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6. 8

동향분석실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으로 인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소외됨은 물론 향후 생존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와 금융 감독 당국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는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화재 도난 대비 상품 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금융정책당국 나아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설문조사를 대행하여 실시해 주신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2016년 8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조사의 개요 / 24

1. 조사의 목적 / 24
2. 주요 조사항목 / 25
3. 조사방법 / 28
4. 표본의 특성 / 29
5. 구분 기준 / 30

II. 생명보험 / 32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 32
2. 생명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 42
3. 향후 생명보험 가입의향 / 58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 62

III. 손해보험 / 82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 82
2. 손해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 94
3. 향후 손해보험 가입의향 / 102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 106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 116

1. 실손의료보험 / 116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 138
3.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 166
4.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 180
5.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 211
6.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 227
7.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 243

| 부록 | / 263

■ 표 차례

- 〈표 I -1〉 표본의 특성 / 29
- 〈표 II -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32
- 〈표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33
- 〈표 II -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34
- 〈표 II -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6년) / 35
- 〈표 II -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 37
- 〈표 II -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37
- 〈표 II -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 38
- 〈표 II -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38
- 〈표 II -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39
- 〈표 II -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39
- 〈표 II -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40
- 〈표 II -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40
- 〈표 II -1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 41
- 〈표 II -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41
- 〈표 II -15〉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43
- 〈표 II -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44
- 〈표 II -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44
- 〈표 II -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44
- 〈표 II -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45
- 〈표 II -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 45
- 〈표 II -21〉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 46
- 〈표 II -22〉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48
- 〈표 II -23〉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49
- 〈표 II -24〉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 50
- 〈표 II -25〉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 51
- 〈표 II -26〉 어린이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52
- 〈표 II -27〉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 53

■ 표 차례

- 〈표 II-28〉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54
- 〈표 II-2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54
- 〈표 II-30〉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55
- 〈표 II-31〉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55
- 〈표 II-32〉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55
- 〈표 II-33〉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56
-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56
-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58
- 〈표 II-36〉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의향 / 58
- 〈표 II-37〉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1) / 60
- 〈표 II-38〉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2) / 61
- 〈표 II-39〉 생명보험 보상 건수 및 보상 액수 / 62
- 〈표 II-40〉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64
- 〈표 II-41〉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64
- 〈표 II-42〉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66
- 〈표 II-43〉 사망보험 가입 이유 / 67
- 〈표 II-44〉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 68
- 〈표 II-45〉 연금보험 가입 이유 / 69
- 〈표 II-46〉 변액보험 가입 이유 / 70
- 〈표 II-47〉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72
- 〈표 II-48〉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 74
- 〈표 II-49〉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1) / 75
- 〈표 II-50〉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2) / 76
- 〈표 II-51〉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78
- 〈표 II-52〉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1) / 80
- 〈표 II-53〉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2) / 81
- 〈표 III-1〉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82
- 〈표 III-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83

■ 표 차례

- 〈표 Ⅲ-3〉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거주 지역별 / 84
- 〈표 Ⅲ-4〉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소득별 / 84
- 〈표 Ⅲ-5〉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6년) / 85
- 〈표 Ⅲ-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 87
- 〈표 Ⅲ-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88
-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89
-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89
-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89
-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90
-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91
-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 91
- 〈표 Ⅲ-14〉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 93
-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95
-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95
-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96
-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96
-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96
- 〈표 Ⅲ-20〉 손해보험 향후 채널별 선호도 / 97
- 〈표 Ⅲ-2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98
- 〈표 Ⅲ-2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98
- 〈표 Ⅲ-23〉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99
- 〈표 Ⅲ-24〉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99
- 〈표 Ⅲ-25〉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100
- 〈표 Ⅲ-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100
- 〈표 Ⅲ-27〉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102
- 〈표 Ⅲ-28〉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의향 / 102
- 〈표 Ⅲ-2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 103
- 〈표 Ⅲ-3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 105

■ 표 차례

- 〈표 Ⅲ-31〉 손해보험 보상 건수 및 보상 액수 / 106
- 〈표 Ⅲ-3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108
- 〈표 Ⅲ-33〉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09
- 〈표 Ⅲ-34〉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및 만족도 / 110
- 〈표 Ⅲ-35〉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 111
- 〈표 Ⅲ-36〉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1) / 114
- 〈표 Ⅲ-37〉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2) / 115
- 〈표 IV-1〉 현재 건강상태 / 117
- 〈표 IV-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118
- 〈표 IV-3〉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120
- 〈표 IV-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122
- 〈표 IV-5〉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 124
- 〈표 IV-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 125
- 〈표 IV-7〉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 127
- 〈표 IV-8〉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입보험료 / 128
- 〈표 IV-9〉 실손의료보험 판매 회사 서비스 만족도 / 130
- 〈표 IV-10〉 실손의료보험 해지 경험 여부 / 131
- 〈표 IV-11〉 실손의료보험 해지 이유 / 132
- 〈표 IV-12〉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1) / 134
- 〈표 IV-13〉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2) / 135
- 〈표 IV-14〉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 / 137
- 〈표 IV-15〉 흡연량 / 139
- 〈표 IV-16〉 규칙적인 운동 여부 / 141
- 〈표 IV-17〉 스트레스 체감 정도 / 143
- 〈표 IV-18〉 건강 식단관리 실태 / 145
- 〈표 IV-19〉 식단관리 방법 / 147
- 〈표 IV-20〉 음주량 / 149
- 〈표 IV-21〉 건강관리 프로그램별 참여율 / 151

■ 표 차례

- 〈표 IV-22〉 금연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2
- 〈표 IV-23〉 금연관리 프로그램 참여 비용 / 153
- 〈표 IV-24〉 금연관리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 153
- 〈표 IV-25〉 금연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53
- 〈표 IV-26〉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4
- 〈표 IV-27〉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비용 / 155
- 〈표 IV-28〉 비만관리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 155
- 〈표 IV-29〉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56
- 〈표 IV-30〉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7
- 〈표 IV-31〉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참여비용 / 158
- 〈표 IV-32〉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만족도 / 158
- 〈표 IV-33〉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58
- 〈표 IV-34〉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9
- 〈표 IV-35〉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만족도 / 160
- 〈표 IV-36〉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60
- 〈표 IV-37〉 식단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61
- 〈표 IV-38〉 식단관리 프로그램 참여비용 / 162
- 〈표 IV-39〉 식단관리 프로그램 만족도 / 162
- 〈표 IV-40〉 식단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62
- 〈표 IV-41〉 금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62
- 〈표 IV-42〉 생활습관개선 지원서비스 이용의향 / 163
- 〈표 IV-43〉 희망 프로그램 / 165
- 〈표 IV-44〉 보험 정보 탐색 시 인터넷 이용 여부 / 167
- 〈표 IV-45〉 보험 정보 탐색 시 이용 사이트 유형 / 168
- 〈표 IV-46〉 인터넷 이용 보험 가입 여부 / 170
- 〈표 IV-47〉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 해지 여부 / 171
- 〈표 IV-48〉 보험 가입 시 인터넷 미이용 이유 (1) / 172
- 〈표 IV-49〉 보험 가입 시 인터넷 미이용 이유 (2) / 173

■ 표 차례

- 〈표 IV-50〉 향후 1년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의향 / 175
- 〈표 IV-51〉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1순위) / 177
- 〈표 IV-52〉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 보험료 할인율 / 179
- 〈표 IV-53〉 노후 준비 여부 / 181
- 〈표 IV-54〉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 182
- 〈표 IV-55〉 노후 대책 평가 / 185
- 〈표 IV-56〉 노후 대책이 불충분한 이유 / 186
- 〈표 IV-57〉 부모님 부양 의향 / 188
- 〈표 IV-58〉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부양 의향 / 190
- 〈표 IV-59〉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의향 / 192
- 〈표 IV-60〉 사적연금 가입 금융 기관 / 194
- 〈표 IV-61〉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 195
- 〈표 IV-62〉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미가입 이유: 응답자 특성 / 196
- 〈표 IV-63〉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 198
- 〈표 IV-64〉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인지도: 응답자 특성 / 200
- 〈표 IV-65〉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전환 시 연금소득세 부과 제도 인지도 / 202
- 〈표 IV-66〉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 수령 시
과세 인지도 / 204
- 〈표 IV-67〉 개인연금저축을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 시
저율과세 인지도 / 206
- 〈표 IV-68〉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인지도 / 208
- 〈표 IV-69〉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의 퇴직연금 미포함 여부 인지도 / 210
- 〈표 IV-70〉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 212
- 〈표 IV-71〉 살고 있는 집의 금액 / 213
- 〈표 IV-72〉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214
- 〈표 IV-73〉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 216
- 〈표 IV-74〉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 / 218
- 〈표 IV-75〉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 / 220

■ 표 차례

- 〈표 IV-76〉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 / 221
- 〈표 IV-77〉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중복 응답) (1) / 223
- 〈표 IV-78〉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중복 응답) (2) / 224
- 〈표 IV-79〉 보유한 금융자산별 보유율 / 225
- 〈표 IV-80〉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총액) / 226
- 〈표 IV-81〉 보유한 금융자산별 납입금액(총액) / 227
- 〈표 IV-82〉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 / 228
- 〈표 IV-83〉 현재의 자영업 종사기간 / 229
- 〈표 IV-84〉 과거 임금 근로자 근무 여부 / 230
- 〈표 IV-85〉 근로자 근무 이력 시 근무 기간 / 231
- 〈표 IV-86〉 퇴직 후 현재 자영업 개시 여부 / 232
- 〈표 IV-87〉 퇴직 후 현재 자영업 개시 연령대 / 233
- 〈표 IV-88〉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 235
- 〈표 IV-89〉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1) / 236
- 〈표 IV-90〉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2) / 237
- 〈표 IV-9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여부 / 238
- 〈표 IV-9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향 / 240
- 〈표 IV-9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 241
- 〈표 IV-9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 방안 / 242
- 〈표 IV-95〉 화재보험 가입여부 / 244
- 〈표 IV-96〉 화재보험 필요성 / 246
- 〈표 IV-97〉 자택 화재 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인지도 / 247
- 〈표 IV-98〉 화재 시 건축물 점유자의 화재 책임 인지도 / 249
- 〈표 IV-99〉 단체화재보험 가입자도 한도 초과 시
개인 추가 보상 의무 인지도 / 251
- 〈표 IV-100〉 주택 화재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252
- 〈표 IV-101〉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 254
- 〈표 IV-102〉 화재보험 가입의향 / 256

■ 표 차례

〈표 IV-103〉 도난보험 가입여부 / 257

〈표 IV-104〉 도난보험 필요성 / 259

〈표 IV-105〉 도난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261

■ 그림 차례

- 〈그림 I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24
- 〈그림 II -1〉 2015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33
- 〈그림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35
- 〈그림 II -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36
- 〈그림 II -4〉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43
- 〈그림 II -5〉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57
- 〈그림 II -6〉 생명보험 보상 경험 / 62
- 〈그림 II -7〉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63
- 〈그림 II -8〉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71
- 〈그림 II -9〉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77
- 〈그림 II -1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79
- 〈그림 III -1〉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 83
- 〈그림 III -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86
- 〈그림 III -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87
- 〈그림 III -4〉 손해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94
- 〈그림 III -5〉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101
- 〈그림 III -6〉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107
- 〈그림 III -7〉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상품의 회사군별 가입률 / 108
- 〈그림 III -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 113
- 〈그림 IV -1〉 현재 건강상태 / 116
- 〈그림 IV -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118
- 〈그림 IV -3〉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120
- 〈그림 IV -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122
- 〈그림 IV -5〉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 123
- 〈그림 IV -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 125
- 〈그림 IV -7〉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 127
- 〈그림 IV -8〉 실손의료보험 판매 회사 서비스 만족도 / 129
- 〈그림 IV -9〉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 133

■ 그림 차례

- 〈그림 IV-10〉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 / 136
- 〈그림 IV-11〉 흡연량 / 138
- 〈그림 IV-12〉 규칙적인 운동 여부 / 140
- 〈그림 IV-13〉 스트레스 체감 정도 / 142
- 〈그림 IV-14〉 건강 식단관리 실태 / 144
- 〈그림 IV-15〉 식단관리 방법 / 146
- 〈그림 IV-16〉 음주량 / 148
- 〈그림 IV-17〉 건강관리 프로그램별 참여율 / 150
- 〈그림 IV-18〉 금연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2
- 〈그림 IV-19〉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4
- 〈그림 IV-20〉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6
- 〈그림 IV-21〉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59
- 〈그림 IV-22〉 식단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161
- 〈그림 IV-23〉 생활습관개선 지원서비스 이용의향 / 163
- 〈그림 IV-24〉 희망 프로그램 1순위 / 165
- 〈그림 IV-25〉 보험 정보 탐색 시 인터넷 이용 여부 / 166
- 〈그림 IV-26〉 인터넷 이용 보험 가입 여부 / 169
- 〈그림 IV-27〉 향후 1년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의향 / 174
- 〈그림 IV-28〉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1순위) / 176
- 〈그림 IV-29〉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 보험료 할인율 / 178
- 〈그림 IV-30〉 노후 준비 여부 / 180
- 〈그림 IV-31〉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 182
- 〈그림 IV-32〉 노후에 예상되는 최대 수입원 / 184
- 〈그림 IV-33〉 노후 대책 평가 / 184
- 〈그림 IV-34〉 노후 대책이 불충분한 이유 / 186
- 〈그림 IV-35〉 부모님 부양 의향 / 188
- 〈그림 IV-36〉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부양 의향 / 189
- 〈그림 IV-37〉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의향 / 191

■ 그림 차례

- 〈그림 IV-38〉 연금제도별 가입률 / 193
- 〈그림 IV-39〉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 194
- 〈그림 IV-40〉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미가입 이유 / 196
- 〈그림 IV-41〉 퇴직연금제도 만족 수준 / 197
- 〈그림 IV-42〉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 198
- 〈그림 IV-43〉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인지도 / 199
- 〈그림 IV-44〉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전환 시 연금소득세 부과 제도 인지도 / 201
- 〈그림 IV-45〉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 수령 시
과세 인지도 / 203
- 〈그림 IV-46〉 개인연금저축을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과세 인지도 / 205
- 〈그림 IV-47〉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인지도 / 207
- 〈그림 IV-48〉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액의 퇴직연금 미포함 여부 인지도 209
- 〈그림 IV-49〉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 211
- 〈그림 IV-50〉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213
- 〈그림 IV-51〉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 215
- 〈그림 IV-52〉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 / 217
- 〈그림 IV-53〉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19
- 〈그림 IV-54〉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중복 응답) / 222
- 〈그림 IV-55〉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총액) / 225
- 〈그림 IV-56〉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 / 228
- 〈그림 IV-57〉 과거 임금 근로자 근무 여부 / 230
- 〈그림 IV-58〉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 234
- 〈그림 IV-59〉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 236
- 〈그림 IV-6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여부 / 238
- 〈그림 IV-6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향 / 239
- 〈그림 IV-6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 241
- 〈그림 IV-6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 방안 / 242

■ 그림 차례

- 〈그림 IV-64〉 화재보험 가입여부 / 244
- 〈그림 IV-65〉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 245
- 〈그림 IV-66〉 주택 화재 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인지도 / 247
- 〈그림 IV-67〉 화재 시 건축물 점유자의 보상 의무 인지도 / 249
- 〈그림 IV-68〉 단체화재보험 가입자도 한도 초과 시
개인 추가 보상 의무 인지도 / 250
- 〈그림 IV-69〉 주택 화재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252
- 〈그림 IV-70〉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 254
- 〈그림 IV-71〉 화재보험 가입의향 / 255
- 〈그림 IV-72〉 도난보험 가입여부 / 257
- 〈그림 IV-73〉 도난보험 필요성 / 259
- 〈그림 IV-74〉 도난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260
- 〈그림 IV-75〉 도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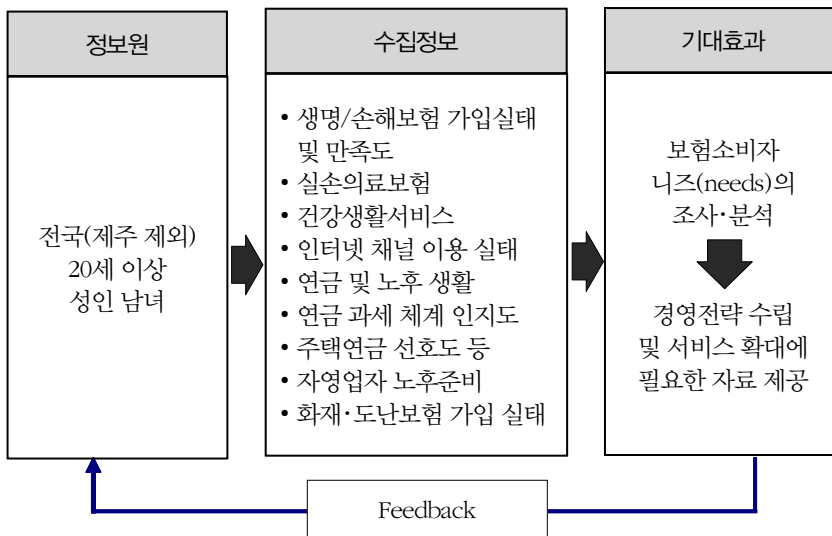
요약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요약 그림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총 1,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추출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자치부, 2016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 조사기간: 2016년 5월 18일 ~ 2016년 6월 17일(약 1개월)
-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3. 주요 조사항목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과 최근 보험산업과 관련한 이슈별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와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화재·도난 대비 상품 등에 대하여 조사함.

I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2016년 조사에서는 보험산업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6.3%¹⁾로 대부분 가구에서 1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1.8%이고, 가구 가입건수는 3.4건으로 조사됨.
 - 2016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8.9%이며, 가입건수는 가구당 3.5건임.

1)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입률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수치임.

〈요약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당 가입률(%)		96.4	98.0	96.1	96.1	97.5	99.7	96.3
생명 보험	가구 가입률(%)	88.0	87.3	86.3	83.0	85.8	87.2	81.8
	가구 가입건수(건)	4.1	3.8	3.8	3.6	4.0	3.5	3.4
손해 보험	가구 가입률(%)	85.9	91.4	87.2	86.8	87.7	91.8	88.9
	가구 가입건수(건)	2.5	3.0	2.9	3.1	3.3	3.4	3.5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에 따른 가구 보험가입률의 경우 대부분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가구 가입률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세대주 연령 및 가구 소득별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60대 이상 고연령 계층과 저소득 가구 계층에서 전년대비 가구 가입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요약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체 가입률		97.5	99.7	96.3	85.8	87.2	81.8	87.7	91.8	88.9			
거주 지역별	대도시	97.8	99.6	99.1	87.1	85.5	84.5	86.9	90.6	92.0			
	중·소도시	97.1	99.6	94.8	84.6	87.3	81.9	88.8	92.4	87.0			
	군지역	97.9	100.0	88.7	85.6	95.8	66.0	85.6	94.8	82.5			
세대주 연령	30대	96.5	100.0	99.5	83.1	87.7	85.6	90.5	95.2	94.6			
	40대	98.9	99.6	98.8	89.5	90.5	88.8	95.1	96.7	95.3			
	50대	98.7	100.0	98.3	88.5	88.7	86.3	91.5	94.7	91.7			
	60대 이상	95.4	99.0	87.6	81.2	84.1	66.1	73.9	82.9	73.1			
가구 소득	저소득	90.2	98.3	86.5	72.9	75.3	60.5	63.6	73.2	66.5			
	중소득	98.7	100.0	99.0	85.8	86.2	85.4	90.9	94.3	94.2			
	고소득	99.6	100.0	99.0	91.9	93.0	92.9	95.2	97.8	97.4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2016년 전체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3.4%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개인 보험 가입률은 76.2%를 기록함.

〈요약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생명보험	79.3	77.3	79.3	78.9	73.4
손해보험	67.9	74.6	74.3	79.7	76.2
전체	92.9	94.0	93.8	96.7	93.8

-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개인 보험가입률은 각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여성(76.9%)이 남성(69.9%)에 비하여 개인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남성(95.0%)이 여성(66.5%)보다 개인 가입률이 높았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입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 보험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4〉 개인별 보험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체 가입률		93.8	96.7	93.8	79.3	78.9	73.4	74.3	79.7	76.2
성별	남성	93.9	97.0	95.5	75.9	74.2	69.9	82.7	89.0	86.0
	여성	93.6	96.4	92.2	82.5	83.5	76.9	66.1	70.5	66.5
연령	20대	84.9	92.4	91.9	69.3	67.2	62.4	55.8	65.2	67.5
	30대	96.7	98.7	98.6	81.2	80.0	78.8	83.7	87.6	83.8
	40대	97.8	100.0	97.3	85.8	86.3	82.2	87.3	89.3	84.1
	50대	97.9	97.9	98.3	85.6	82.2	82.1	81.4	89.3	83.3
	60대 이상	89.9	93.8	84.5	72.5	76.6	61.5	59.7	65.9	62.9
직업	화이트칼라	96.7	98.5	98.9	80.5	85.0	78.3	82.7	86.2	87.5
	블루칼라	90.3	98.0	96.3	77.1	76.3	75.5	71.7	81.6	76.5
	자영업	96.5	96.4	77.8	80.1	74.8	44.4	83.3	84.9	66.7
	농/임/어업	100.0	100.0	96.2	83.3	92.9	72.8	50.0	100.0	82.9
	주부	93.8	96.8	89.9	86.0	84.8	77.9	63.2	70.0	63.7
	은퇴자	87.5	94.6	91.7	68.8	69.6	66.7	53.1	69.6	83.3
	무직/기타	79.6	82.1	75.0	51.0	57.1	38.9	49.0	48.2	55.6
학력	중졸 이하	85.7	88.1	66.3	70.5	75.2	43.6	50.9	53.5	40.6
	고졸	93.9	96.4	96.5	80.0	76.1	77.0	74.2	76.3	76.8
	대재 이상	95.6	98.5	97.6	80.4	82.3	78.2	79.8	87.8	83.9
결혼 여부	기혼	95.8	97.5	94.1	81.4	82.4	75.1	77.3	81.7	77.2
	미혼	85.5	93.4	92.8	70.5	65.0	67.2	62.2	71.6	72.4
가구 소득	저소득	86.9	94.5	83.5	68.7	71.1	57.1	56.5	64.7	59.8
	중소득	94.1	97.9	96.8	78.4	78.6	76.4	76.7	82.9	80.4
	고소득	96.5	96.7	96.8	85.2	82.5	81.4	79.7	83.6	81.7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69.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28.5), 사망보장보험(21.9%), 연금보험(16.3%) 등의 순임.
- 연령별로는 40대 개인 가입률이 대부분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음.

- 대부분 종목에서 대학 재학 이상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질병 보장보험과 재해(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요약 표 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실손 의료 보험	질병 보장 보험	재해 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 보험
전체		(1,200)	28.5	69.4	17.4	3.4	21.9	8.4	16.3	9.4	10.1
성별	남성	(594)	28.3	65.7	15.2	3.0	20.9	8.2	14.3	8.6	9.6
	여성	(606)	28.7	73.1	19.6	3.8	22.9	8.6	18.2	10.2	10.6
연령	20대	(197)	35.5	72.6	19.8	2.0	27.4	9.1	17.8	2.5	10.2
	30대	(222)	28.4	66.2	14.9	3.6	22.5	7.7	13.1	32.4	10.4
	40대	(258)	31.0	72.9	20.2	2.7	28.7	10.5	29.1	14.0	15.1
	50대	(240)	29.6	77.9	19.2	3.8	23.8	12.1	17.9	0.0	12.9
	60대 이상	(283)	20.5	59.4	13.8	4.6	9.9	3.5	4.6	0.0	2.8
지역 규모	대도시	(550)	29.3	72.0	19.1	3.3	22.4	9.6	19.3	9.8	12.4
	중·소도시	(553)	29.8	70.3	15.7	4.0	21.3	7.6	14.6	9.6	9.4
	군지역	(97)	16.5	49.5	17.5	1.0	22.7	6.2	8.2	6.2	1.0
직업	화이트칼라	(368)	32.3	72.0	13.6	2.7	29.1	12.5	20.9	12.2	12.2
	블루칼라	(294)	29.3	73.5	21.4	3.4	17.7	4.8	14.3	9.9	7.1
	농/임/어업	(27)	14.8	37.0	22.2	3.7	14.8	7.4	11.1	0.0	7.4
	자영업	(158)	29.1	67.7	17.1	6.3	18.4	13.9	17.1	6.3	11.4
	주부	(267)	24.7	70.0	17.2	3.7	21.0	6.4	15.7	10.9	11.6
	은퇴자	(12)	16.7	58.3	16.7	0.0	0.0	0.0	0.0	0.0	0.0
	학생	(38)	34.2	71.1	23.7	0.0	31.6	0.0	7.9	0.0	10.5
	무직/기타	(36)	16.7	38.9	16.7	0.0	8.3	0.0	2.8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0.9	40.6	10.9	2.0	5.0	4.0	1.0	0.0	2.0
	고졸	(482)	25.7	73.2	21.6	3.9	19.5	5.8	16.0	6.0	10.4
	대재 이상	(547)	33.8	71.7	16.3	3.5	27.8	12.4	19.4	14.8	11.7
	모름/무응답	(70)	31.4	67.1	7.1	1.4	17.1	1.4	15.7	4.3	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3.5	53.4	11.7	4.1	7.1	1.5	4.1	1.5	1.9
	중소득	(622)	29.7	70.6	17.2	2.3	21.9	8.0	17.4	13.0	10.6
	고소득	(312)	38.8	80.8	22.8	5.1	34.6	15.1	24.4	9.0	16.0

주: 은퇴자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72.2%), 50대(75.8%),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52.6% < 중소득 70.9% < 고소득 73.1%) 개인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요약 표 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단위: %, 건)

특성별		사례 수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 보험	상해 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1,200)	47.8	67.4	2.0	0.4	23.8
성별	남성	(594)	71.5	72.2	2.7	0.2	14.0
	여성	(606)	24.4	62.7	1.3	0.7	33.5
연령	20대	(197)	29.9	61.4	1.5	0.5	32.5
	30대	(222)	54.1	73.0	1.8	0.0	16.2
	40대	(258)	63.2	73.6	2.7	0.4	15.9
	50대	(240)	56.3	75.8	2.9	0.4	16.7
	60대 이상	(283)	33.9	54.4	1.1	0.7	37.1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9.3	70.7	2.2	0.4	20.0
	중·소도시	(553)	46.7	66.0	2.0	0.2	26.2
	군지역	(97)	45.4	56.7	1.0	2.1	32.0
직업	화이트칼라	(368)	67.7	76.1	3.3	0.0	12.5
	블루칼라	(294)	45.6	68.0	1.7	0.7	23.5
	농/임/어업	(27)	55.6	51.9	3.7	0.0	33.3
	자영업	(158)	67.7	69.6	2.5	0.0	17.1
	주부	(267)	19.1	60.7	.4	1.1	36.3
	은퇴자	(12)	75.0	75.0	0.0	0.0	16.7
	학생	(38)	2.6	47.4	0.0	0.0	52.6
	무직/기타	(36)	19.4	44.4	2.8	0.0	44.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5.8	32.7	0.0	1.0	59.4
	고졸	(482)	43.6	69.1	1.7	0.8	23.2
	대재 이상	(547)	58.7	74.4	2.7	0.0	16.1
	모름/무응답	(70)	37.1	51.4	1.4	0.0	3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0.8	52.6	0.0	1.1	40.2
	중소득	(622)	52.7	70.9	1.8	0.2	19.6
	고소득	(312)	52.2	73.1	4.2	0.3	18.3

주: 가입상품 건수.

■ 장기손해보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개인 가입률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개인 가입률은 1.0%로 가장 낮았음.

○ 장기실손의료보험의 경우 60대 이상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응답함.

○ 대부분 종목에서 대도시, 화이트칼라, 대재 이상 계층의 가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요약 표 7〉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 건)

특성별		장기 실손의료	장기 상해	장기 질병	장기 간병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전체		51.5	26.9	12.5	1.0	2.9	2.1	1.5
성별	남성	51.5	37.7	14.1	0.7	3.2	1.5	0.3
	여성	51.4	16.3	10.9	1.3	2.6	2.6	2.6
연령	20대	51.8	18.8	6.1	0.0	1.0	1.5	0.0
	30대	57.2	31.5	14.4	0.9	1.8	1.4	4.1
	40대	56.2	34.5	14.7	0.8	1.9	2.7	3.5
	50대	58.8	30.4	12.9	1.3	4.6	2.9	0.0
	60대 이상	36.4	19.1	13.1	1.8	4.6	1.8	0.0
지역 규모	대도시	53.5	29.8	13.8	0.9	3.3	2.4	1.6
	중·소도시	51.7	23.1	11.6	0.9	2.2	2.2	1.6
	군지역	39.2	32.0	10.3	2.1	5.2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58.2	38.3	11.7	0.8	3.0	1.6	1.1
	블루칼라	50.0	27.2	11.2	0.0	0.3	3.7	0.3
	농/임/어업	25.9	25.9	18.5	11.1	7.4	0.0	0.0
	자영업	51.3	29.7	13.3	0.6	10.1	0.0	1.3
	주부	51.7	13.9	13.1	1.9	1.1	2.6	4.1
	은퇴자	41.7	41.7	50.0	0.0	0.0	0.0	0.0
	학생	39.5	10.5	5.3	0.0	0.0	0.0	0.0
	무직/기타	30.6	5.6	13.9	0.0	5.6	2.8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8	8.9	13.9	1.0	3.0	1.0	0.0
	고졸	53.5	24.7	11.6	1.7	2.9	2.9	0.6
	대재 이상	56.9	32.9	12.6	0.5	2.9	1.8	2.6
	모름/무응답	42.9	21.4	15.7	0.0	2.9	0.0	1.4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의향을 살펴보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11.2%로 가장 높았음.
- 실손의료보험의 뒤를 이어 질병보장보험 10.6%, 간병보험 6.8%, 저축성보험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8〉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8.5	88.8	11.2
질병보장보험	69.4	89.4	10.6
재해상해보험	17.4	95.4	4.6
간병보험	3.4	93.2	6.8
사망보험	21.9	96.8	3.2
저축성보험	8.4	94.8	5.2
연금보험	16.3	95.3	4.8
어린이보험	9.4	98.8	1.2
변액보험	10.1	99.3	0.8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5.0%, 상해보험은 2.2%로 나타남.

〈요약 표 9〉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7.8	56.9	43.1
장기손해보험	67.4	95.0	5.0
상해보험	2.0	97.8	2.2

■ 장기손해보험 중에서는 향후 1년 내 장기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상해보험 대한 가입의향이 각각 9.4%, 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장기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상해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의향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요약 표 1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단위: %, 건)

특성별		장기 실손의료	장기 상해	장기 질병	장기 간병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전체		9.4	8.7	6.2	6.1	1.8	2.1	0.6
연령	20대	13.2	12.2	8.1	3.0	2.0	1.5	0.0
	30대	8.6	10.4	6.3	2.7	3.6	4.1	2.7
	40대	11.6	9.3	3.9	6.6	1.9	3.9	0.0
	50대	7.1	6.3	5.4	5.4	0.8	0.8	0.4
	60대 이상	7.4	6.4	7.4	11.0	1.1	0.4	0.0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모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11.4%), 저축수단(8.1%), 유산상속 목적(1.5%)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5.6%였으며, 저축수단(3.3%), 노후자금 마련(1.7%), 투자수단(0.9%)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1〉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5	2016
위험보장	92.9	95.8	97.7	95.6
노후자금 마련	18.5	11.4	2.3	1.7
목돈마련 저축수단	11.2	8.1	3.3	3.3
유산상속 목적	1.7	1.5	0.1	0.2
자산증식 투자수단	1.6	1.0	0.7	0.9
세제혜택 유리	0.7	0.6	0.4	0.5

4.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회사 상품에 가입한 가입률²⁾이 생명보험의 경우 62.9%, 손해보험의 경우 77.0%로 조사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회사 다음으로 중·소형회사 23.2%, 외국회사 9.8%, 공제/기타 4.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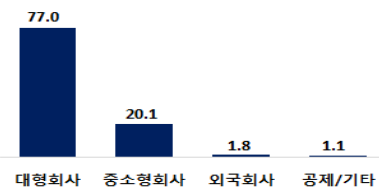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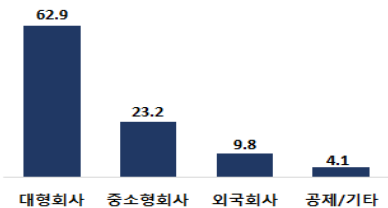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회사 20.1%, 외국회사/직판회사 1.8%, 공제/기타 1.1% 순임.

〈요약 그림 2〉 생명보험 그룹별 가입률

〈요약 그림 3〉 손해보험 그룹별 가입률

(단위: %)

(단위: %)



주: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함.

2)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함.

■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상품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았고, 브랜드 신뢰성(22.8%), 가격 경쟁력(11.2%), 서비스 지원(11.2%) 순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40.8%)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21.6%)과 가격 경쟁력(14.5%), 서비스 지원(12.3%)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2〉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선호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상품 경쟁력	38.2	48.7	48.9	48.0	45.8	35.6	48.2	45.4	46.9	40.8
브랜드 신뢰성	26.6	18.3	17.2	15.6	22.8	27.8	17.8	18.7	16.6	21.6
가격 경쟁력	12.3	14.3	15.1	14.3	11.2	16.7	14.3	17.5	16.4	14.5
서비스 지원	13.1	10.8	10.4	11.0	11.2	10.8	12.2	10.4	12.8	12.3
개인적 관계	4.3	4.3	4.3	4.2	4.4	4.8	5.3	4.7	2.8	5.4
회사규모	2.3	1.8	2.7	2.7	2.2	1.2	0.8	1.8	1.8	2.2
설계사 전문성	1.2	0.5	0.7	1.4	1.1	1.1	0.4	0.5	1.0	1.3
경영 철학	1.1	0.4	0.3	0.6	0.3	0.5	0.1	—	0.6	1.2
과거 거래 경험	0.6	0.4	0.3	1.2	0.3	0.7	0.6	0.5	0.6	0.5
계약 편의성	0.5	0.5	0.2	1.1	0.8	0.9	0.3	0.5	0.6	0.3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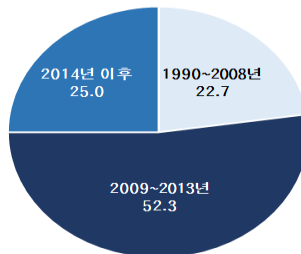
Ⅲ.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실손의료보험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는 응답이 74.1%로 조사됨.
 - 본인이 건강하다는 응답은 남성(79.0%), 저 연령대(20대 93.4%, 30대 91.4%) 고소득(80.4%)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가입³⁾ 여부, 가입 금융기관 종류, 그리고 가입 시기를 조사하였음.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8.3%로, 가입 응답은 중년층(30대 77.1%, 40대 76.0%)과 안정적인 직업종사자(화이트칼라 75.3%, 고소득층 76.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한 금융기관 종류로는 손해보험회사(72.1%)로, 이러한 응답은 지방(군지역 76.5%) 거주와 저소득(79.8%)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시기를 질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2009~2013년: 52.3%)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함.

〈요약 그림 4〉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N=82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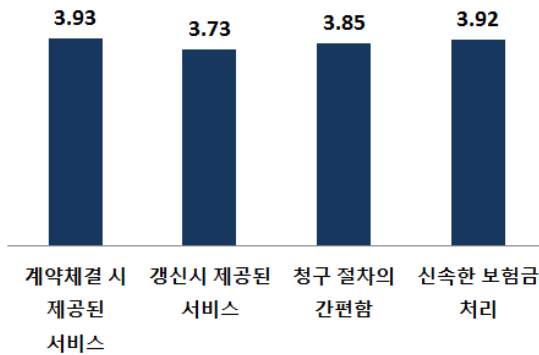


3) 2015년 한 해 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한 경우임.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 주기는 3년이, 본인부담의료비(보험회사 환급률)은 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80.7%가 갱신형으로, 갱신형의 갱신 주기에 대한 응답은 3년(38.8%), 5년(33.8%), 1년(8.2%) 순으로 응답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에 대해서는 90%(35.7%), 80%(34.0%), 100%(15.2%) 순으로 응답함(모름: 14.9%).
- 실손의료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가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속한 보험금 처리(3.92점), 청구 절차의 간편함(3.85점)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5〉 실손의료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N=820, 152(보험금 처리) / 단위: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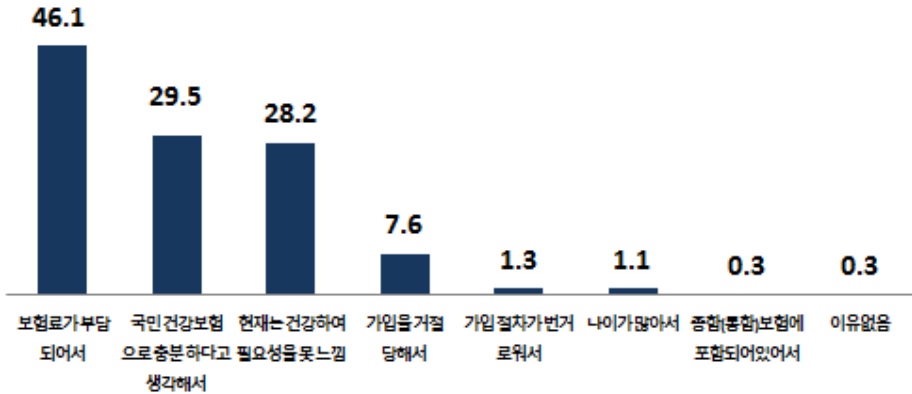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중 8.4% 정도만 해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해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하다고 생각해서(18.8%), 갱신기간을 놓쳐서(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29.5%), ‘현재 건강하여 필요성 못 느낌’

(28.2%), ‘가입 거절당해서’(7.6%), ‘가입 절차 번거로워서’(1.3%)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요약 그림 6〉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N=731 / 단위: %)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 정도(40.3%)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자는 30대(68.6%), 화이트칼라(61.9%), 대재 이상(5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물어본 결과, ‘체육, 헬스클럽 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14.3%), ‘비만관리 프로그램’(3.5%), ‘금연(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88.7%), 자영업자(8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금연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질문해 본 결과, ‘보건소’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40.7%), ‘지방자치단체’(3.7%)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30,741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금연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7.4%로 ‘달성하지 못했다’(88.9%)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향후 금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남.

■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간기관’(28.6%), ‘의료기관’(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200,262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체중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4%로 ‘달성하지 못했다’(47.6%)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향후 비만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남.

■ 신체활동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민간기관’이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42.1%), ‘지방자치단체’(8.8%)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292,053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2.2%로 ‘달성하지 못했다’(11.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향후 신체활동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0.3%로 나타남.

■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소'(11.1%), '지방자치단체'(11.1%)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0.0%,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남.
- 향후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5.1%로 나타남.

■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7.4%), '의료기관'(7.4%) 등의 순임.

-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6,556원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0.0%,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4.8%였음.
- 향후 식단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남.

■ 향후 생활습관개선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물어본 결과, '참여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1%로, '참여하겠다'(14.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95.9%), 60대 이상(87.3%), 군지역(91.8%), 주부(97.0%)에서 '생활 습관개선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이용 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만관리 서비스'(24.6%), '스트레스관리 서비스'(18.5%)의 순이었음.

- 특히, 20대(40.1%)와 60대 이상(38.2%), 군지역(36.1%), 중졸 이하(48.5%)에서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3.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들은 여전히 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에 대한 노출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에서 보험료나 보험상품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4%로, ‘이용 경험이 있다’(19.6%)는 응답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보험정보 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검색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27.7%), ‘보험 관련 커뮤니티’(6.4%) 등의 순이었음.

■ 보험가격 비교 검색사이트의 활성화와 인터넷 전업 보험회사 등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의향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입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6.2%로 ‘가입한 적이 없다’(93.8%)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인터넷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의 해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기존 보험을 해지했다’는 응답은 21.6%를 차지했음.
- 보험 가입 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보험 가입 시 신뢰성이 걱정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설계사 등과의 대면 면접이 익숙하기 때문에’(20.3%), ‘인터넷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14.1%) 등의 순이었음.

■ 우리나라 보험 소비자들은 인터넷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을 고려할 때 무조건 값싼 보험료 보다는 보장내역 등 상품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보장 내역’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험료(가격)’(35.1%), ‘상품 약관’(9.2%)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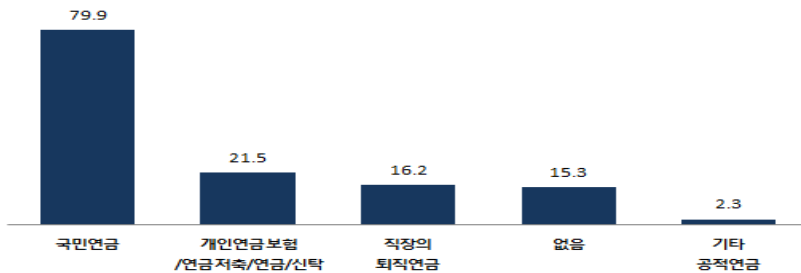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하는 보험료 할인율을 살펴본 결과, '15% 이상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음.

4.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 가구의 연금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79.9%로 가장 높고, 개인연금 21.5%, 퇴직연금 가입률은 16.2%, 기타 공적연금 2.3% 순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7〉 연금제도별 가입률

(N=1,200 / 단위: %)



주: 본 조사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의 가입률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실제 가입률 (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과 차이가 있음. 본 조사에서 가입률은 연금상품 가입률의 상대적 값만 의미가 있음.

-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는 경제적 사정이 61.8%, 다른 공적 및 사적연금으로 충분하다가 13.3%, 가입 필요성이 없어서가 12.2%의 순으로 나타남.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 연간 불입금의 12%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7.3%로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 72.7%의 3분의 1 수준이었음.
-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중도해지 하거나 만기 후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전체 수령금액의 15%를 과세하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5.8%로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5.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들의 유산상속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변화하면서 자식들에게 주택을 물려줄 의향이 없는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섰음.
 -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에 대해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50.2%로, 의향이 ‘있다’는 의견 49.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여성(52.7%), 60대 이상(60.5%), 주부(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택에 대한 상속개념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은 응답자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됨.
 -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에 대해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40.9%,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0.3%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25.2%),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7.4%)의 순이었음.
 -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60대 이상(36.8%), 군지역(38.6%), 중졸 이하(39.4%), 저소득층(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로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1인 혹은 무급가족 종사자 있는 자영업)이 71.5%로 가장 많았음.
 - 자영업 종사기간은 '7~15년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음.
- 임금 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는 74.7%여서 전생애기간에 걸쳐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자영업)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됨.
 -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 종사기간은 '7~15년 미만'이 43.2%로 가장 많았음.
 - 퇴직 후 현재 자영업을 개시한 비율(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비율)은 62.7%로 조사됨.
 -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우 각각 68.1%, 56.7%로, 이들 집단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비율로 볼 수 있음.
 - 퇴직 후 현재 자영업을 개시한 연령대는 '35~40세'가 27.0%로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개시연령대가 매우 다양함.
- 자영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가입의향은 35.4%로 낮았음.
 -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로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음.
-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15.2%로 매우 낮았음.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할 의향은 36.1%로 매우 낮았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로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를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이 많고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음.

7.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본 결과, 화재보험 가입 가구는 8.3%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가입률은 50대(12.5%), 군지역 거주자(12.4%), 자영업 종사자(24.1%), 자가 보유자(11.1%), 고소득층(1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필요하다’(27.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주택 화재로 발생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5%로 ‘모르고 있다’(55.5%)에 비해 11.0%p 낮게 나타남.
- 우발적인 화재로 인한 피해도 화재 시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화재사고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은 10명 중 4명(40.1%) 정도만 알고 있음.
-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개인이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74.3%로 ‘알고 있다’(25.7%)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았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1~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미만’(36.3%), ‘3~5억 원 미만’(12.6%)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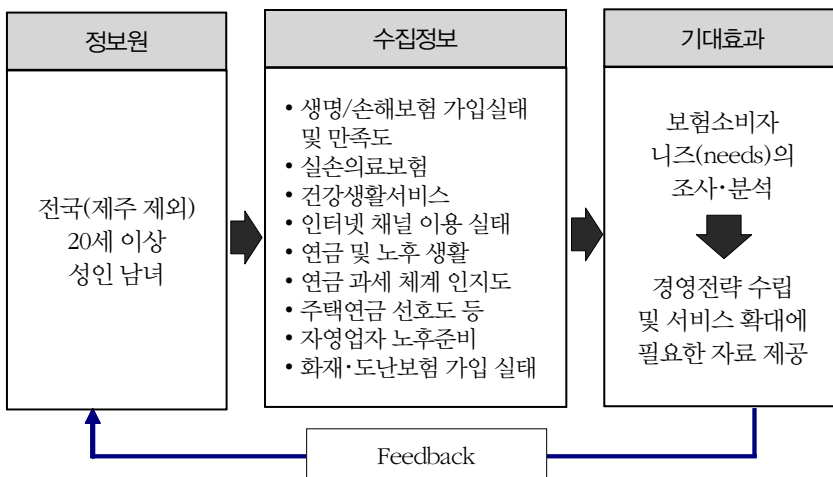
-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이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료가 비싸다’(20.9%), ‘가입 권유를 받은 적 없다’(16.4%)등의 순임.
- 향후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12.7%로 ‘가입하지 않겠다’(66.5%)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현재 도난보험에 가입여부를 물어본 결과, 도난보험 가입 가구는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도난보험가입률은 농/임/어업 종사자(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도난보험 가입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도난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9.7%로 ‘필요하다’(12.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도난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군지역(84.5%), 농/임/어업(81.5%), 중졸 이하(8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1천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 원~3천만 원 미만’(39.3%),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16.5%) 등의 순임.
- 도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도난보험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13.8%), ‘보험료가 비싸다’(13.2%) 등의 순임.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소비자의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적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 실태 및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주요 이슈로는 실손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화재·도난 대비 상품 등이 포함됨.

〈그림 1-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2. 주요 조사항목

-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가입률(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개인별)
 - 가입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상품 만족도(개인별)
 - 보험금 지급 항목(가구당)

- 향후 생명/손해보험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 향후 1년 내 가입의향(생명/손해보험)
 - 향후 1년 내 선호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생명/손해보험)
 -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생명/손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 현재 건강상태
 -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종류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실손의료보험 유형과 종류
 - 실손의료보험 계약 기간
 - 실손의료보험 가입 경로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율
 -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지 않는 이유
 -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
 - 실손의료보험 만족도

■ 건강생활서비스

- 일평균 흡연량/주평균 음주량
- 정기적인 운동 여부 및 운동 시간
- 스트레스 체감도
- 건강 식단관리 유형
-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 평가
-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의향

■ 인터넷 채널 이용 실태

- 보험 상품 정보 탐색 경험
- 주이용 인터넷 사이트 유형
- 인터넷 보험 가입 유무 및 미가입 이유

■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 연금제도의 가입여부/가입자/만족도/납입액/금융회사/가입기간
- 향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
-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방식
-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 필요성과 예상금액
- 노후준비 평가
- 노후준비 부족 원인

■ 연금과세 체계 인지도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금 감면 등 세금 제도 인지도

■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 및 금액
-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주택연금 이용의향
- 보유한 금융상품과 납입금액

■ 자영업자 노후준비

- 현재 자영업 운영기간/형태
-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및 미가입 이유
- 개인형 퇴직연금 인지도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향 및 미가입 이유

■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 화재·도난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 화재 시 보상의무 인지도
- 화재·도난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화재·도난보험 가입의향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총 1,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 추출방법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자치부, 2016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 조사기간

- 2016년 5월 18일~2016년 6월 17일(약 1개월)

■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4. 표본의 특성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1〉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성별	남성	(594)	49.5
	여성	(606)	50.5
응답자 연령별	20대	(197)	16.4
	30대	(222)	18.5
	40대	(258)	21.5
	50대	(240)	20.0
	60대 이상	(283)	23.6
지역 규모별	대도시	(550)	45.8
	중·소도시	(553)	46.1
	군지역	(97)	8.1
응답자 직업별	화이트칼라	(368)	30.7
	블루칼라	(294)	24.5
	농/임/어업	(27)	2.3
	자영업	(158)	13.2
	주부	(267)	22.3
	은퇴자	(12)	1.0
	학생	(38)	3.2
	무직/기타	(36)	3.0
응답자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1)	8.4
	고졸	(482)	40.2
	대재 이상	(547)	45.6
	모름/무응답	(70)	5.8
가구연간 소득 수준별	저소득(3,000만 원 미만)	(266)	22.2
	중소득(3,000~6,000만 원)	(622)	51.8
	고소득(6,000만 원 이상)	(312)	26.0

주: 응답자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 세대주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와 같이 30표본 이하의 경우 분석결과의 활용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5. 구분 기준

■ 직업분류

- 화이트칼라: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
- 자영업: 자영업
-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 주부: 주부
- 은퇴자: 은퇴자

■ 보험회사 그룹 구분

○ 생명보험회사

- 대형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3개사)
- 중·소형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DGB생명(구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구 하나HSBC), ING생명, K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IBK연금보험, NH농협생명(13개사)
- 외국사: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ACE생명(구 뉴욕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AIA생명,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9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 기타

○ 손해보험회사

-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현대하이카다이렉트 포함), KB손해보험, 동부화재(4개사)
- 중·소형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에이스화재, NH농협손해보험(8개사)

- 직판전문 보험회사: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3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등 기타 공제, 기타

■ 판매채널 분류

- 대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형법인대리점(GA) 등 전통채널
- 직판: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방카슈랑스
- 기타: 보험회사 임직원, TV 홈쇼핑 채널, 대형 할인점 등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가. 생명보험 가구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6년 생명보험 가구가입률⁴⁾은 81.8%로 2015년(87.2%) 대비 5.4%p 감소했으며, 가구 가입건수는 2015년(3.5건) 대비 소폭 감소한 3.4건으로 조사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세였던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2014년과 2015년 반등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하락함.

〈표 Ⅱ-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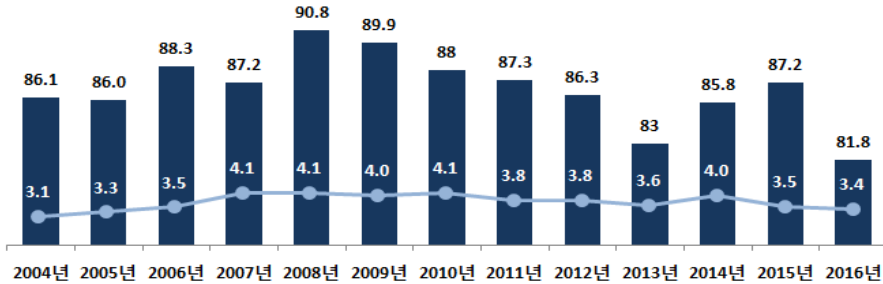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 가입률(%)	89.9	88.0	87.3	86.3	83.0	85.8	87.2	81.8
가구 가입건수(건)	4.0	4.1	3.8	3.8	3.6	4.0	3.5	3.4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4)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생명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입률임.

〈그림 II-1〉 2015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N=1,200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2) 세부 분석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감소한 가운데 농/임/어업(-44.7%p)과 저소득층(-14.8%p)의 가입률 감소가 크게 나타났음.
- 가구 가입건수는 전년대비 0.1건 감소하였으며, 계층별로는 농/임/어업(-1.8건), 무직/기타(-1.7건)의 가구 가입건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표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률(%p)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건수(건)
직업	화이트칼라	92.5	87.0	-5.6	4.1	3.8	-0.3
	블루칼라	83.3	83.0	-0.3	3.2	3.2	0.0
	자영업	84.5	79.7	-4.8	3.4	3.8	0.4
	농/임/어업	92.9	48.1	-44.7	3.9	2.0	-1.8
	주부	89.4	83.5	-5.9	3.5	3.4	-0.1
	은퇴자	83.9	66.7	-17.3	2.5	1.8	-0.7
	학생	-	81.6	-	-	4.0	-
	무직/기타	78.6	47.2	-31.3	2.9	1.3	-1.6
가구 소득	저소득	75.3	60.5	-14.8	1.6	1.5	-0.1
	중소득	86.2	85.4	-0.9	3.1	3.4	0.3
	고소득	93.0	92.9	-0.1	4.7	5.1	0.4

주: 은퇴자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거주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와 군지역 가구 가입률 하락 폭이 컸음.

- 특히, 군지역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2015년(95.8%) 대비 29.9%p나 감소하였음.

〈표 II-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률(%p)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건수(건)
지역 규모	대도시	85.5	84.5	-1.0	3.3	3.7	0.4
	중·소도시	87.3	81.9	-5.4	3.7	3.3	-0.3
	군지역	95.8	66.0	-29.9	3.8	2.3	-1.4

■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질병보장보험 가구 가입률이 6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 28.5%, 사망보험 21.9%, 재해(상해)보험 17.4%, 연금보험 16.3%, 변액보험 10.1%, 어린이보험 9.4%, 저축성보험 8.4% 순으로 조사됨.
-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⁵⁾도 질병보장보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 2.1건, 재해(상해)보험 1.9건, 간병보험 1.6건, 사망 및 어린이 보험 각각 1.5건 등으로 나타남.
- 질병 및 생명 등의 위험 보장을 위한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저축성보험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5) 종목별 가입건수의 경우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가입건수임 (이하 동일).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6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실손의료보험	28.5	2.1
질병보장보험	69.4	2.3
재해(상해)보험	17.4	1.9
간병보험	3.4	1.6
사망보험	21.9	1.5
저축성보험	8.4	1.2
연금보험	16.3	1.2
어린이보험	9.4	1.5
변액보험	10.1	1.2
비가입	1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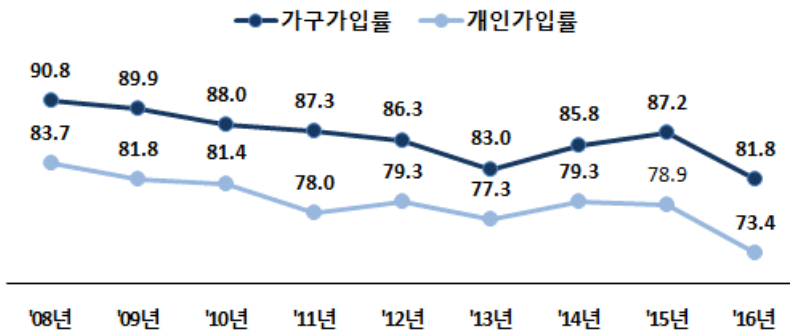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개인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6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3.4%로, 2015년(78.9%) 대비 5.5%p 하락함.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1,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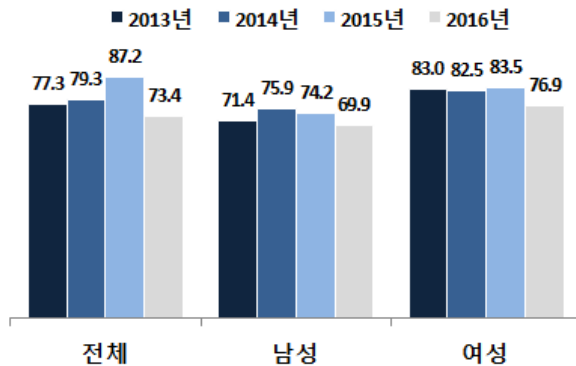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 성별에 따른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83.5%, 남성이 74.2%로, 여전히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 가입률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는데,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도(74.2%) 대비 4.3%p, 남성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도(83.5%) 대비 6.6%p 감소함.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1,200 / 단위: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결혼 여부별

- 기혼자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기혼 75.1% > 미혼 67.2%)과 개인 가입건수(기혼 1.6건 > 미혼 1.1건)는 모두 미혼자에 비하여 높았음.
- 2015년 조사결과 대비 기혼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감소한 반면, 미혼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소폭 증가함.
 - 기혼자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7.4%p 감소하였으나 미혼자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2.2%p 증가함.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률(%p)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건수(건)
결혼 여부	기혼	82.4	75.1	-7.4	1.7	1.6	-0.1
	미혼	65.0	67.2	2.2	1.0	1.1	0.1

- 또한, 기혼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9.0%로 기혼 남성(70.6%)에 비하여 8.4%p 높았으나, 미혼 여성의 개인 가입률은 66.7%로 미혼 남성(67.6%)에 비해 0.9%p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70.6%, 79.0%)의 개인 가입률이 미혼자(각각 67.6%, 66.7%)의 개인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남.
- 개인 평균 가입건수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1.4건, 1.7건)의 개인 평균 가입건수가 미혼자(각각 1.1건)보다 많았음.

〈표 II-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75.1	67.2	69.9		76.9	
			70.6	67.6	79.0	66.7
개인 가입건수(건)	1.6	1.1	1.3		1.6	
			1.4	1.1	1.7	1.1

주: 가입건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자녀 수별

-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6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16.5%p나 감소하여 자녀가 있는 계층보다 감소세가 컸음.

- 한편, 자녀가 있는 계층 가운데 특히 자녀가 2명(78.3%)인 계층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가입률(%)	62.2	78.2	78.3	70.0
가입건수(건)	1.1	1.5	1.7	1.8
2015년 대비 가입률(%p)	-16.5	-3.4	-7.7	-10.4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연령별로는 40대(82.2%), 50대(82.1%)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개인 가입건수도 역시 해당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40대 1.9건, 50대 1.8건).
- 다만, 모든 연령대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특히 60대 이상은 전년대비 15.1%p 이상이나 하락함.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2.4	78.8	82.2	82.1	61.5
가입건수(건)	0.9	1.6	1.9	1.8	1.1
2015년 대비 가입률(%p)	-4.7	-1.2	-4.1	-0.1	-15.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가 78.2%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2.3%, 군지역 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 가입건수는 대도시가 1.6건, 중·소도시 1.4건, 군지역 1.1건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 가입건수가 적게 나타남.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대도시	78.2	1.6
중·소도시	72.3	1.4
군지역	52.6	1.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학력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중졸 이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43.6%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34.6%p 낮으며, 개인 평균 가입건수 역시 0.7건으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0.9건 적음.
- 한편, 중졸 이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하락 폭이 대재 이상의 개인 가입률 하락 폭보다 커 학력수준에 의한 가입률 격차가 증가함.
 - 중졸 이하 개인 가입률은 2015년(75.2%)에 비해 31.6%p 감소한 반면, 대재 이상 개인 가입률은 2015년(82.3%)에 비해 4.1%p 감소함.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평균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43.6	0.7
고졸	77.0	1.6
대재 이상	78.2	1.6
모름/무응답	54.3	1.0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7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부(77.9%), 블루칼라(75.5%), 자영업(7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평균 가입건수는 자영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부(1.6건), 화이트칼라(1.5건), 블루칼라(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입률 형태와는 다르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은퇴자, 무직/기타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78.3	1.5
블루칼라	75.5	1.4
농/임/어업	44.4	1.1
자영업	72.8	1.7
주부	77.9	1.6
은퇴자	66.7	1.1
학생	36.8	0.5
무직/기타	38.9	0.5

주: 은퇴자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저소득 57.1% < 중소득 76.4% < 고소득 81.4%)과 개인 가입건수(저소득 1.0건 < 중소득 1.5건 < 고소득 1.8건)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저소득	57.1	1.0
중소득	76.4	1.5
고소득	81.4	1.8

○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 계층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

〈표 II-1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저소득	67.5	68.7	71.1	57.1	-14.0
중소득	78.8	78.4	78.6	76.4	-2.2
고소득	82.8	85.2	82.5	81.4	-1.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가입률이 69.4%로 가장 높았으며, 실손의료보험(28.5%), 사망보험(17.4%) 등의 순임.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특성별	사례 수	실손 의료 보험	질병 보장 보험	재해 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 보험
전체	(1,200)	28.5	69.4	17.4	3.4	21.9	8.4	16.3	9.4	10.1
성별	남성	(594)	28.3	65.7	15.2	3.0	20.9	8.2	14.3	8.6
	여성	(606)	28.7	73.1	19.6	3.8	22.9	8.6	18.2	10.6
연령	20대	(197)	35.5	72.6	19.8	2.0	27.4	9.1	17.8	2.5
	30대	(222)	28.4	66.2	14.9	3.6	22.5	7.7	13.1	32.4
	40대	(258)	31.0	72.9	20.2	2.7	28.7	10.5	29.1	14.0
	50대	(240)	29.6	77.9	19.2	3.8	23.8	12.1	17.9	0.0
	60대 이상	(283)	20.5	59.4	13.8	4.6	9.9	3.5	4.6	0.0
지역 규모	대도시	(550)	29.3	72.0	19.1	3.3	22.4	9.6	19.3	9.8
	중·소도시	(553)	29.8	70.3	15.7	4.0	21.3	7.6	14.6	9.6
	군지역	(97)	16.5	49.5	17.5	1.0	22.7	6.2	8.2	6.2
직업	화이트칼라	(368)	32.3	72.0	13.6	2.7	29.1	12.5	20.9	12.2
	블루칼라	(294)	29.3	73.5	21.4	3.4	17.7	4.8	14.3	9.9
	농/임/어업	(27)	14.8	37.0	22.2	3.7	14.8	7.4	11.1	0.0
	자영업	(158)	29.1	67.7	17.1	6.3	18.4	13.9	17.1	6.3
	주부	(267)	24.7	70.0	17.2	3.7	21.0	6.4	15.7	10.9
	은퇴자	(12)	16.7	58.3	16.7	0.0	0.0	0.0	0.0	0.0
	학생	(38)	34.2	71.1	23.7	0.0	31.6	0.0	7.9	0.0
	무직/기타	(36)	16.7	38.9	16.7	0.0	8.3	0.0	2.8	0.0

〈표 II-14〉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실손 의료 보험	질병 보장 보험	재해 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 보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0.9	40.6	10.9	2.0	5.0	4.0	1.0	0.0	2.0
	고졸	(482)	25.7	73.2	21.6	3.9	19.5	5.8	16.0	6.0	10.4
	대재 이상	(547)	33.8	71.7	16.3	3.5	27.8	12.4	19.4	14.8	11.7
	모름/무응답	(70)	31.4	67.1	7.1	1.4	17.1	1.4	15.7	4.3	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3.5	53.4	11.7	4.1	7.1	1.5	4.1	1.5	1.9
	중소득	(622)	29.7	70.6	17.2	2.3	21.9	8.0	17.4	13.0	10.6
	고소득	(312)	38.8	80.8	22.8	5.1	34.6	15.1	24.4	9.0	16.0

주: 은퇴자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2. 생명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가. 생명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6년에도 생명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해 생명보험을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⁶⁾

○ 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가입률은 93.6%로 압도적인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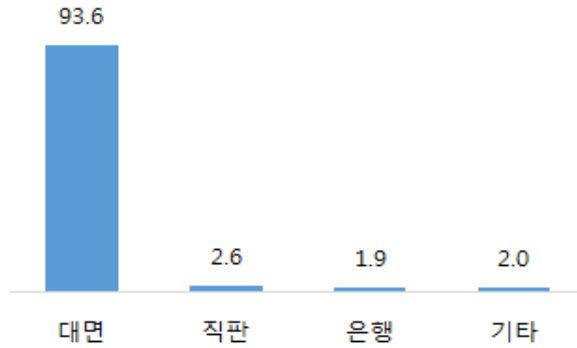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2.6%, 은행⁷⁾을 통한 가입률은 1.9%로 나타남.

6) 가입자 중 각 채널을 통해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응답이 가능하여 이를 고려함. 또한,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채널별 보험료 비중과는 다르며, 특히, 직판과 은행 등은 표본이 작고 통계적 의미가 낮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이하 동일).

7)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조사는 응답자가 보유한 모든 상품의 가입 채널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면채널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주: 1) 가입자 중 각 채널을 통해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2) 판매채널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3)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2015년에 이어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5〉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3.3	93.8
직판	3.0	2.3
은행	1.9	1.9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직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모든 연령층에서 7.0% 미만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20대의 직판채널 가입률이 6.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0.4	92.3	94.6	95.1	93.9
직판	6.4	2.8	2.7	1.0	1.7
은행	1.6	2.2	1.8	1.5	2.2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전 지역에 걸쳐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군지역(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은행 채널을 통한 가입도 역시 군지역에서 7.3%로 높았음.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3.9	94.2	85.5
직판	2.3	2.6	5.5
은행	2.3	0.7	7.3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부분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 수준으로 높음.
- 농/임/어업의 경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7.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은행 채널을 통한 가입은 블루칼라(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농/임/어업	자영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2.4	91.8	84.6	94.2	97.1	87.5	100.0
직판	3.6	2.6	7.7	2.5	1.0	12.5	0.0
은행	2.0	2.6	0.0	2.5	0.5	0.0	0.0

주: 은퇴자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모든 학력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대면	91.1	93.5	93.3	100.0
직판	2.2	2.6	2.9	0.0
은행	4.4	1.8	1.8	0.0

나.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모든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대부분 보험 종목에서 5% 이하로 낮게 나타났음.

○ 재해(상해)보험의 경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5.3%로 다른 종목에 비하여 높았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은행을 통한 가입이 5.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실손의료보험	95.6	0.4	1.2
질병보장보험	95.4	2.2	0.8
재해(상해)보험	90.8	5.3	0.7
간병보험	92.0	-	-
사망보험	98.1	-	-
저축성보험	91.5	-	5.1
연금보험	93.3	1.9	3.8
어린이보장보험	100.0	-	-
변액보험	100.0	-	-

2) 세부 분석

■ 실손의료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실손의료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5.6%로 가장 높고, 은행은 1.2%,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남성이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6.6%로 여성(94.7%)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대도시(96.6%), 중·소도시(95.0%), 군지역(92.9%) 순으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모든 직업에서 높은 가운데, 특히 주부의 경우 98.0%로 높게 나타남.
- 은행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화이트칼라(2.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압도적인 가운데, 은행을 통한 가입은 중소득 계층(2.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1〉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전체		(249)	95.6	0.4	1.2
성별	남성	(118)	96.6	0.8	0.0
	여성	(131)	94.7	0.0	2.3
연령	20대	(38)	100.0	0.0	0.0
	30대	(51)	90.2	2.0	2.0
	40대	(62)	100.0	0.0	0.0
	50대	(54)	90.7	0.0	1.9
	60대 이상	(44)	97.7	0.0	2.3
지역 규모	대도시	(116)	96.6	0.0	1.7
	중·소도시	(119)	95.0	0.8	0.0
	군지역	(14)	92.9	0.0	7.1

〈표 II-21〉의 계속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직업	화이트칼라	(88)	93.2	0.0	2.3
	블루칼라	(64)	93.8	1.6	1.6
	농/임/어업	(2)	100.0	0.0	0.0
	자영업	(34)	100.0	0.0	0.0
	주부	(51)	98.0	0.0	0.0
	은퇴자	(2)	100.0	0.0	0.0
	학생	(7)	10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100.0	0.0	0.0
	고졸	(97)	96.9	0.0	1.0
	대재 이상	(130)	93.8	0.8	1.5
	모름/무응답	(15)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	100.0	0.0	0.0
	중소득	(134)	95.5	0.7	2.2
	고소득	(88)	94.3	0.0	0.0

■ 질병보장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질병보장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5.4%로 가장 높고, 은행은 0.8%,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남성이 95.7%로 여성(95.2%)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대(87.2%)가 타 연령 대비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 채널(8.1%)을 통한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6.7%), 대도시(95.2%), 군지역(86.1%)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주부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97.7%로 높았고, 직판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직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저소득 계층(3.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2〉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전체		(721)	95.4	2.2	0.8
성별	남성	(329)	95.7	2.1	0.9
	여성	(392)	95.2	2.3	0.8
연령	20대	(86)	87.2	8.1	2.3
	30대	(132)	94.7	1.5	1.5
	40대	(172)	97.7	1.7	0.0
	50대	(174)	98.3	1.1	0.0
	60대 이상	(157)	94.9	1.3	1.3
지역 규모	대도시	(355)	95.2	2.3	1.1
	중·소도시	(330)	96.7	1.8	0.0
	군지역	(36)	86.1	5.6	5.6
직업	화이트칼라	(229)	94.8	3.5	0.9
	블루칼라	(187)	94.1	2.1	1.6
	농/임/어업	(9)	88.9	0.0	0.0
	자영업	(95)	95.8	2.1	1.1
	주부	(176)	97.7	0.6	0.0
	은퇴자	(7)	85.7	14.3	0.0
	학생	(8)	100.0	0.0	0.0
	무직/기타	(10)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	92.5	2.5	2.5
	고졸	(319)	95.9	1.9	0.6
	대재 이상	(332)	94.9	2.7	0.9
	모름/무응답	(3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38)	92.8	3.6	0.7
	중소득	(372)	95.4	2.4	1.1
	고소득	(211)	97.2	0.9	0.5

■ 재해(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재해(상해)보험은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90.8%, 직판채널은 5.3%, 은행 채널은 0.7%로 조사됨.
- 다른 종목에 비하여 직판을 통한 재해(상해)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화이트칼라(9.4%) 계층에서 가장 높았음.

〈표 II-23〉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전체		(152)	90.8	5.3	0.7
성별	남성	(71)	90.1	7.0	1.4
	여성	(81)	91.4	3.7	0.0
연령	20대	(17)	88.2	5.9	0.0
	30대	(25)	68.0	16.0	4.0
	40대	(44)	93.2	4.5	0.0
	50대	(34)	100.0	0.0	0.0
	60대 이상	(32)	96.9	3.1	0.0
지역 규모	대도시	(83)	94.0	2.4	0.0
	중·소도시	(56)	87.5	7.1	1.8
	군지역	(13)	84.6	15.4	0.0
직업	화이트칼라	(32)	87.5	9.4	0.0
	블루칼라	(46)	91.3	4.3	0.0
	농/임/어업	(5)	80.0	20.0	0.0
	자영업	(24)	91.7	4.2	0.0
	주부	(35)	94.3	2.9	0.0
	은퇴자	(1)	100.0	0.0	0.0
	학생	(4)	100.0	0.0	0.0
	무직/기타	(5)	80.0	0.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	100.0	0.0	0.0
	고졸	(80)	92.5	5.0	0.0
	대재 이상	(57)	86.0	7.0	1.8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	88.9	3.7	0.0
	중소득	(80)	90.0	7.5	1.3
	고소득	(45)	93.3	2.2	0.0

■ 저축성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저축성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1.5%로 가장 높고, 은행은 5.1%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은 남성이 92.6%, 여성 90.6%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이 대도시(96.4%), 중·소도시(88.5%), 군지역(80.0%) 순으로 나타남.

〈표 II-24〉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은행
전체		(59)	91.5	5.1
성별	남성	(27)	92.6	3.7
	여성	(32)	90.6	6.3
연령	20대	(5)	100.0	0.0
	30대	(11)	90.9	0.0
	40대	(18)	94.4	5.6
	50대	(18)	88.9	5.6
	60대 이상	(7)	85.7	14.3
지역 규모	대도시	(28)	96.4	3.6
	중·소도시	(26)	88.5	3.8
	군지역	(5)	80.0	20.0
직업	화이트칼라	(20)	90.0	5.0
	블루칼라	(10)	90.0	10.0
	농/임/어업	(2)	100.0	0.0
	자영업	(16)	93.8	6.3
	주부	(11)	90.9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66.7	33.3
	고졸	(23)	95.7	4.3
	대재 이상	(33)	90.9	3.0
가구 소득	저소득	(3)	100.0	0.0
	중소득	(33)	97.0	0.0
	고소득	(23)	82.6	13.0

■ 연금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연금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3.3%로 가장 높고, 은행은 3.8%, 직판 채널을 통한 가입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로 높은 가운데, 여성이 96.4%로 남성(89.8%)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40대, 대도시, 화이트칼라의 연금보험 가입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음.

〈표 II-25〉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전체		(104)	93.3	1.9	3.8
성별	남성	(49)	89.8	4.1	6.1
	여성	(55)	96.4	0.0	1.8
연령	20대	(6)	100.0	0.0	0.0
	30대	(20)	95.0	0.0	0.0
	40대	(48)	89.6	4.2	6.3
	50대	(26)	96.2	0.0	3.8
	60대 이상	(4)	10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54)	92.6	1.9	5.6
	중·소도시	(46)	93.5	2.2	2.2
	군지역	(4)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46)	95.7	2.2	2.2
	블루칼라	(20)	95.0	0.0	5.0
	농/임/어업	(3)	100.0	0.0	0.0
	자영업	(15)	86.7	6.7	6.7
	주부	(20)	90.0	0.0	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고졸	(39)	89.7	2.6	7.7
	대재 이상	(59)	94.9	1.7	1.7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8)	100.0	0.0	0.0
	중소득	(57)	91.2	3.5	5.3
	고소득	(39)	94.9	0.0	2.6

■ 어린이보장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어린이보장보험의 경우 대면채널로 100% 판매되었으며, 여성과 30대 계층에서 특히 많이 가입하고 있음.

〈표 II-26〉 어린이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전체		(31)	100.0
성별	남성	(8)	100.0
	여성	(23)	100.0
연령	20대	(1)	100.0
	30대	(22)	100.0
	40대	(8)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15)	100.0
	중·소도시	(11)	100.0
	군지역	(5)	100.0
직업	화이트칼라	(8)	100.0
	블루칼라	(11)	100.0
	자영업	(3)	100.0
	주부	(9)	100.0
교육 수준	고졸	(11)	100.0
	대재 이상	(19)	100.0
	모름/무응답	(1)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2)	100.0
	중소득	(23)	100.0
	고소득	(6)	100.0

■ 변액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변액보험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특히 많이 가입함.
- 그리고 화이트칼라와 대재 이상에서 변액보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함.

〈표 II-27〉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전체		(49)	100.0
성별	남성	(30)	100.0
	여성	(19)	100.0
연령	20대	(4)	100.0
	30대	(11)	100.0
	40대	(17)	100.0
	50대	(14)	100.0
	60대 이상	(3)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30)	100.0
	중·소도시	(19)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0)	100.0
	블루칼라	(8)	100.0
	농/임/어업	(0)	100.0
	자영업	(10)	100.0
	주부	(10)	100.0
	학생	(1)	100.0
교육 수준	고졸	(20)	100.0
	대재 이상	(27)	100.0
	모름/무응답	(2)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	100.0
	중소득	(28)	100.0
	고소득	(17)	100.0

다.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7.2%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이 9.5%, 은행은 0.7%로 나타남.

○ 특히, 직판채널에 대한 향후 선호도가 현재 직판 채널 가입률보다 높아 향후 직판채널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음.

〈표 II-28〉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가입률	향후 선호
대면	93.6	87.2
직판	2.6	9.5
은행	1.9	0.7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성별에 관계없이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을 가장 많이 선호함.
- 다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향후 가입 시 남성에 비해 대면채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의 경우 향후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에 비하여 높았음.

〈표 II-2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84.4	90.0
직판	12.9	6.1
은행	0.4	0.9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60대 이상이 93.2%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73.8%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대와 30대의 직판채널 선호도가 각각 22.3%와 11.9%로 향후 직판 채널을 통한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0〉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20대	73.8	22.3	0.0	4.0
30대	87.1	11.9	1.0	0.0
40대	92.7	4.2	2.1	1.1
50대	92.6	3.7	0.0	3.8
60대 이상	93.2	1.4	0.0	5.6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II-31〉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대도시	89.6	9.5	0.0	0.9
중·소도시	84.5	9.3	1.6	4.7
군지역	86.7	10.0	0.0	3.3

주: 군지역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 직업군이 95.7%로 특히 높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화이트칼라(17.3%),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 역시 화이트칼라(1.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2〉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농/임/어업	자영업	주부	학생	무직/기타
대면	80.4	92.5	85.7	95.7	92.9	77.8	66.7
직판	17.3	2.8	14.3	2.1	5.1	16.7	11.1
은행	1.2	0.9	0.0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대재 이상의 경우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직판 채널에 대한 선호도(13.4%)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II-33〉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중졸 이하	90.0	5.0	0.0
고졸	92.4	4.4	0.6
대재 이상	83.3	13.4	0.4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재해(상해)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의 향후 선호도가 다른 종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78.2%),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16.4%).
-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재해(상해)보험(16.4%)이,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는 연금보험(7.1%)이 높게 나타남.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실손의료보험	86.6	11.9	-
질병보장보험	81.9	15.7	-
재해상해보험	78.2	16.4	-
간병보험	91.5	4.9	-
사망보험	92.1	6.6	-
저축성보험	88.7	4.8	-
연금보험	87.7	7.0	3.5
어린이보험	64.3	28.6	7.1
변액보험	97.0	3.0	-

주: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저축성보험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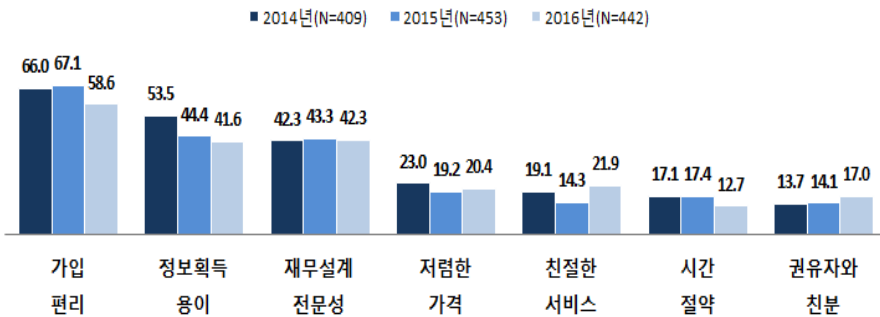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채널별 선호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58.6%)이 가장 많이 꼽힘.

○ 다음으로 재무 설계의 전문성(42.3%), 정보 획득의 용이성(4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5〉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종목별 채널 선호 이유

○ 대부분 생명보험 종목에서 가입 시 가입편리성을 향후 채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연금보험, 어린이보험의 경우 정보 획득의 용이성(50.9%, 57.1%)이 높았고, 변액보험의 경우 재무 설계의 전문성(57.6%)이 높았음.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정보획득 용이	재무설계 전문성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시간 절약	권유자 친분
실손의료보험	57.5	43.3	34.3	17.2	22.4	8.2	12.7
질병보장보험	56.7	33.1	34.6	28.3	15.7	8.7	16.5
재해상해보험	63.6	29.1	23.6	29.1	18.2	12.7	18.2
간병보험	63.4	40.2	34.1	13.4	28.0	7.3	12.2
사망보험	55.3	42.1	40.8	14.5	18.4	11.8	13.2
저축성보험	51.6	30.6	43.5	19.4	22.6	14.5	17.7
연금보험	47.4	50.9	45.6	14.0	15.8	8.8	14.0
어린이보험	50.0	57.1	35.7	28.6	14.3	7.1	7.1
변액보험	36.4	42.4	57.6	15.2	30.3	12.1	12.1

3. 향후 생명보험 가입의향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의향을 살펴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이 11.2%로 가장 높았음.

○ 실손의료보험의 뒤를 이어 질병보장보험 10.6%, 간병보험 6.8%, 저축성보험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36〉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8.5	88.8	11.2
질병보장보험	69.4	89.4	10.6
재해상해보험	17.4	95.4	4.6
간병보험	3.4	93.2	6.8
사망보험	21.9	96.8	3.2
저축성보험	8.4	94.8	5.2
연금보험	16.3	95.3	4.8
어린이보험	9.4	98.8	1.2
변액보험	10.1	99.3	0.8

나.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장보험 등 보장성보험 종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을 향후 1년 내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장보험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1년 내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대의 향후 가입의향이 가장 높았음.
 - 20대 향후 1년 내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장보험 가입의향은 모두 16.2%로 상대적으로 높음.
- 화이트칼라의 경우 어린이보험과 간병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보험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장보험 등 보장성보험 종목의 가입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37〉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실손의료 보험	질병보장 보험	재해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 보험
전체		(1,200)	11.2	10.6	4.6	6.8	3.2
성별	남성	(594)	10.4	9.9	4.4	4.7	3.5
	여성	(606)	11.9	11.2	4.8	8.9	2.9
연령	20대	(197)	16.2	16.2	6.1	0.5	3.8
	30대	(222)	12.6	13.1	7.2	2.7	4.3
	40대	(258)	11.6	8.9	4.3	7.4	2.9
	50대	(240)	7.1	7.5	2.9	11.3	3.3
	60대 이상	(283)	9.5	8.8	3.2	10.2	1.9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2.5	11.3	6.4	8.2	3.5
	중·소도시	(553)	9.8	10.1	3.3	5.6	2.4
	군지역	(97)	11.3	9.3	2.1	6.2	5.7
직업	화이트칼라	(368)	11.7	11.1	6.3	2.7	4.3
	블루칼라	(294)	9.9	10.5	5.4	7.1	3.2
	농/임/어업	(27)	14.8	18.5	3.7	14.8	1.9
	자영업	(158)	6.3	7.0	1.9	9.5	2.5
	주부	(267)	12.4	9.7	3.4	11.2	2.4
	은퇴자	(12)	0.0	0.0	0.0	0.0	0.0
	학생	(38)	28.9	18.4	2.6	0.0	2.6
	무직/기타	(36)	11.1	16.7	5.6	5.6	1.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0.9	11.9	2.0	6.9	1.0
	고졸	(482)	8.7	8.9	2.5	9.8	3.0
	대재 이상	(547)	12.6	11.7	6.8	4.6	3.7
	모름/무응답	(70)	17.1	11.4	5.7	4.3	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3.2	11.7	3.8	8.3	2.1
	중소득	(622)	10.9	10.9	4.8	7.4	3.8
	고소득	(312)	9.9	9.0	4.8	4.5	2.9

〈표 II-38〉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2)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 보험
전체		(1,200)	5.2	4.8	1.2	0.8
성별	남성	(594)	5.4	5.1	0.5	1.0
	여성	(606)	5.0	4.5	1.8	0.5
연령	20대	(197)	11.2	5.6	1.0	1.4
	30대	(222)	5.9	7.7	4.1	1.1
	40대	(258)	4.7	5.8	1.2	1.0
	50대	(240)	4.2	4.2	0.0	0.4
	60대 이상	(283)	1.8	1.4	0.0	0.1
지역 규모	대도시	(550)	6.2	4.7	0.9	1.2
	중·소도시	(553)	4.5	4.7	1.4	0.4
	군지역	(97)	3.1	5.2	1.0	0.3
직업	화이트칼라	(368)	8.2	7.6	0.8	1.2
	블루칼라	(294)	3.1	5.1	1.0	0.9
	농/임/어업	(27)	3.7	3.7	0.0	0.0
	자영업	(158)	2.5	3.8	0.0	0.3
	주부	(267)	4.9	2.6	3.0	0.5
	은퇴자	(12)	0.0	0.0	0.0	0.0
	학생	(38)	7.9	0.0	0.0	0.7
	무직/기타	(36)	5.6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0	1.0	0.0	0.0
	고졸	(482)	3.3	3.1	0.4	0.7
	대재 이상	(547)	7.9	6.8	2.2	1.0
	모름/무응답	(70)	2.9	5.7	0.0	0.7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9	3.4	0.4	0.3
	중소득	(622)	5.6	5.3	1.6	1.0
	고소득	(312)	7.1	4.8	1.0	0.7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가. 생명보험 보상 경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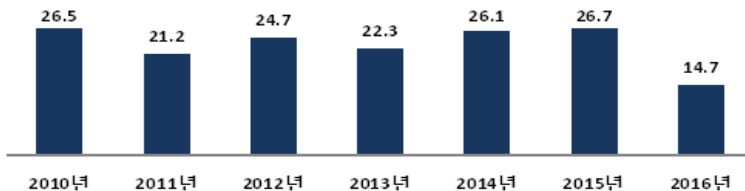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 가구(N=982) 중 14.7%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 건수는 2.6건, 평균 보상 액수는 143.9만 원이었음.
-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평균 보상 건수는 3.2건으로 다른 종목보다 보상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평균 보상 액수는 약 68.2만 원이었음.

〈그림 II-6〉 생명보험 보상 경험

(N=982 / 단위: %)



〈표 II-39〉 생명보험 보상 건수 및 보상 액수

(단위: 건,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 건수	평균 보상 액수
전체	(144)	2.6	1,439,700
실손의료보험	(95)	3.2	682,145
중증질병	(7)	1.0	13,642,857
일반질병	(19)	1.4	1,700,263
성인병	(2)	1.0	1,375,000
재해(상해)	(11)	1.0	374,818
저축	(2)	1.0	240,000
교통사고	(4)	1.0	450,000
자녀에 대한 보장	(15)	1.3	367,000
기타	(1)	2.0	50,000

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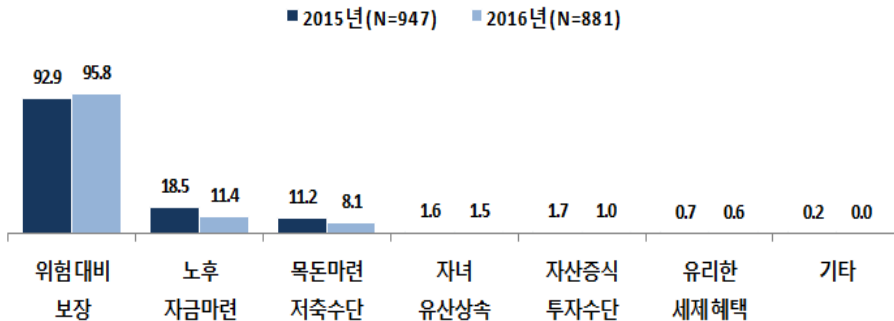
■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95.8%)을 생명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노후자금 마련은 11.4%, 목돈마련 저축수단은 8.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임.

○ 유산상속, 자산증식, 자녀교육, 세제혜택을 위한 보험 가입은 2% 미만으로 매우 낮음.

〈그림 II-7〉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보험종목별 가입 이유

○ 간병보험(100.0%)과 어린이보험(100.0%), 실손의료보험(97.6%), 질병보장보험(98.5%), 재해(상해)보험(99.3%), 사망보험(86.3%), 변액보험(51.6%)의 경우 위험보장을 가입 이유로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연금보험(65.4%)과 저축성보험(15.3%) 가입자의 경우 보험 가입 이유로 노후자금 마련을 가장 많이 들었음.

〈표 II-40〉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노후자금 마련	세제 혜택	저축 수단	자산 증식	유산 상속	기타
실손의료보험	97.6	0.4	0.4	1.6	-	-	-
질병보장보험	98.5	0.4	0.1	0.7	0.3	-	-
재해상해보험	99.3	-	0.7	-	-	-	-
간병보험	100.0	-	-	-	-	-	-
사망보험	86.3	4.4	-	3.1	-	6.3	-
저축성보험	11.9	15.3	1.7	64.4	6.8	-	-
연금보험	13.5	65.4	1.0	19.2	-	1.0	-
어린이보험	100.0	-	-	-	-	-	-
변액보험	51.6	32.8	-	7.8	4.7	3.1	-

2) 세부 분석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 마련을 위해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음.

〈표 II-41〉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전체		(721)	98.5	0.7	0.4	0.3	0.1
성별	남성	(329)	97.0	1.2	0.9	0.6	0.3
	여성	(392)	99.7	0.3	0.0	0.0	0.0
연령	20대	(86)	100.0	0.0	0.0	0.0	0.0
	30대	(132)	98.5	0.0	0.8	0.8	0.0
	40대	(172)	98.8	0.6	0.6	0.0	0.0
	50대	(174)	96.6	2.3	0.6	0.6	0.0
	60대 이상	(157)	99.4	0.0	0.0	0.0	0.6

〈표 II-41〉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지역 규모	대도시	(355)	97.5	1.1	0.8	0.3	0.3
	중·소도시	(330)	99.4	0.3	0.0	0.3	0.0
	군지역	(36)	100.0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29)	97.8	0.4	0.9	0.9	0.0
	블루칼라	(187)	98.4	1.1	0.0	0.0	0.5
	농/임/어업	(9)	100.0	0.0	0.0	0.0	0.0
	자영업	(95)	97.9	1.1	1.1	0.0	0.0
	주부	(176)	99.4	0.6	0.0	0.0	0.0
	은퇴자	(7)	100.0	0.0	0.0	0.0	0.0
	학생	(8)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10)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	100.0	0.0	0.0	0.0	0.0
	고졸	(319)	98.1	1.3	0.3	0.0	0.3
	대재 이상	(332)	98.5	0.3	0.6	0.6	0.0
	모름/무응답	(30)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38)	99.3	0.0	0.0	0.0	0.7
	중소득	(372)	98.9	1.1	0.0	0.0	0.0
	고소득	(211)	97.2	0.5	1.4	0.9	0.0

■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직업, 성별, 지역 규모, 직업군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 마련을 위해 재해(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음.

〈표 II-42〉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전체		(152)	99.3	0.7
성별	남성	(71)	100.0	0.0
	여성	(81)	98.8	1.2
연령	20대	(17)	100.0	0.0
	30대	(25)	100.0	0.0
	40대	(44)	100.0	0.0
	50대	(34)	97.1	2.9
	60대 이상	(32)	10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83)	98.8	1.2
	중·소도시	(56)	100.0	0.0
	군지역	(13)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2)	100.0	0.0
	블루칼라	(46)	100.0	0.0
	농/임/어업	(5)	100.0	0.0
	자영업	(24)	100.0	0.0
	주부	(35)	97.1	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고졸	(4)	100.0	0.0
	대재 이상	(5)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100.0	0.0
	중소득	(80)	98.8	1.3
	고소득	(57)	100.0	0.0

■ 사망보험 가입 이유

- 30대(90.6%)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43〉 사망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전체		(160)	86.3	6.3	4.4	3.1
성별	남성	(86)	84.9	9.3	3.5	2.3
	여성	(74)	87.8	2.7	5.4	4.1
연령	20대	(13)	92.3	0.0	0.0	7.7
	30대	(32)	90.6	3.1	0.0	6.3
	40대	(53)	84.9	7.5	5.7	1.9
	50대	(39)	89.7	5.1	2.6	2.6
	60대 이상	(23)	73.9	13.0	13.0	0.0
지역 규모	대도시	(74)	86.5	2.7	6.8	4.1
	중·소도시	(73)	86.3	8.2	2.7	2.7
	군지역	(13)	84.6	15.4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69)	88.4	5.8	2.9	2.9
	블루칼라	(29)	89.7	0.0	6.9	3.4
	농/임/어업	(4)	50.0	50.0	0.0	0.0
	자영업	(22)	86.4	13.6	0.0	0.0
	주부	(35)	82.9	2.9	8.6	5.7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66.7	33.3	0.0	0.0
	고졸	(60)	83.3	8.3	5.0	3.3
	대재 이상	(93)	89.2	4.3	3.2	3.2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4)	75.0	0.0	25.0	0.0
	저소득	(14)	85.7	14.3	0.0	0.0
	중소득	(85)	87.1	5.9	3.5	3.5
	고소득	(61)	85.2	4.9	6.6	3.3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은 여성(6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44〉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전체		(59)	64.4	15.3	11.9	6.8	1.7
성별	남성	(27)	59.3	11.1	18.5	7.4	3.7
	여성	(32)	68.8	18.8	6.3	6.3	0.0
연령	20대	(5)	80.0	20.0	0.0	0.0	0.0
	30대	(11)	72.7	0.0	27.3	0.0	0.0
	40대	(18)	55.6	16.7	16.7	11.1	0.0
	50대	(18)	77.8	11.1	5.6	0.0	5.6
	60대 이상	(7)	28.6	42.9	0.0	28.6	0.0
지역 규모	대도시	(28)	71.4	14.3	3.6	10.7	0.0
	중·소도시	(26)	57.7	19.2	19.2	0.0	3.8
	군지역	(5)	60.0	0.0	20.0	2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0)	65.0	10.0	15.0	5.0	5.0
	블루칼라	(10)	100.0	0.0	0.0	0.0	0.0
	농/임/어업	(2)	50.0	0.0	50.0	0.0	0.0
	자영업	(16)	37.5	43.8	12.5	6.3	0.0
	주부	(11)	72.7	0.0	9.1	18.2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66.7	0.0	0.0	33.3	0.0
	고졸	(23)	60.9	26.1	8.7	4.3	0.0
	대재 이상	(33)	66.7	9.1	15.2	6.1	3.0
가구 소득	저소득	(3)	66.7	33.3	0.0	0.0	0.0
	중소득	(33)	66.7	15.2	9.1	9.1	0.0
	고소득	(23)	60.9	13.0	17.4	4.3	4.3

■ 연금보험 가입 이유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높음.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0대(7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중·소도시(73.9%)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5〉 연금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녀에게 유산 상속 목적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전체		(104)	65.4	19.2	13.5	1.0	1.0
성별	남성	(49)	61.2	28.6	10.2	0.0	0.0
	여성	(55)	69.1	10.9	16.4	1.8	1.8
연령	20대	(6)	33.3	66.7	0.0	0.0	0.0
	30대	(20)	55.0	30.0	10.0	5.0	0.0
	40대	(48)	70.8	12.5	14.6	0.0	2.1
	50대	(26)	69.2	15.4	15.4	0.0	0.0
	60대 이상	(4)	75.0	0.0	25.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54)	55.6	25.9	14.8	1.9	1.9
	중·소도시	(46)	73.9	13.0	13.0	0.0	0.0
	군지역	(4)	100.0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46)	63.0	26.1	8.7	2.2	0.0
	블루칼라	(20)	65.0	15.0	20.0	0.0	0.0
	농/임/어업	(3)	66.7	0.0	33.3	0.0	0.0
	자영업	(15)	73.3	20.0	6.7	0.0	0.0
	주부	(20)	65.0	10.0	20.0	0.0	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0.0	0.0
	고졸	(39)	74.4	10.3	15.4	0.0	0.0
	대재 이상	(59)	57.6	25.4	13.6	1.7	1.7
	모름/무응답	(5)	80.0	2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8)	87.5	12.5	0.0	0.0	0.0
	중소득	(57)	64.9	17.5	17.5	0.0	0.0
	고소득	(39)	61.5	23.1	10.3	2.6	2.6

■ 변액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마련하기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51.6%로 높게 나타났으나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응답도 32.8%를 차지함.
- 특히, 대도시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51.4%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Ⅱ-46〉 변액보험 가입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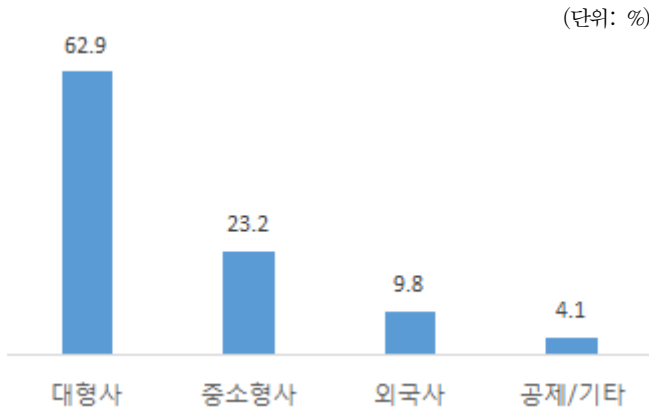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자녀에게 유산 상속 목적
전체		(64)	51.6	32.8	7.8	4.7	3.1
성별	남성	(38)	52.6	31.6	10.5	2.6	2.6
	여성	(26)	50.0	34.6	3.8	7.7	3.8
연령	20대	(7)	42.9	28.6	14.3	14.3	0.0
	30대	(12)	50.0	33.3	8.3	8.3	0.0
	40대	(23)	52.2	34.8	0.0	4.3	8.7
	50대	(19)	52.6	31.6	15.8	0.0	0.0
	60대 이상	(3)	66.7	33.3	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37)	40.5	51.4	5.4	2.7	0.0
	중·소도시	(27)	66.7	7.4	11.1	7.4	7.4
	군지역	(25)	52.0	28.0	8.0	8.0	4.0
직업	화이트칼라	(11)	63.6	27.3	9.1	0.0	0.0
	블루칼라	(1)	100.0	0.0	0.0	0.0	0.0
	농/임/어업	(13)	53.8	38.5	7.7	0.0	0.0
	자영업	(13)	38.5	38.5	7.7	7.7	7.7
	주부	(1)	0.0	100.0	0.0	0.0	0.0
교육 수준	고졸	(24)	45.8	50.0	4.2	0.0	0.0
	대재 이상	(38)	55.3	23.7	7.9	7.9	5.3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2)	50.0	0.0	50.0	0.0	0.0
	저소득	(4)	25.0	50.0	25.0	0.0	0.0
	중소득	(33)	48.5	36.4	3.0	6.1	6.1
	고소득	(27)	59.3	25.9	11.1	3.7	0.0

다.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회사군을 3개로 구분하여 국내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⁸⁾
- 최근 3년 이내 생명보험회사 가입자 중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개 대형 보험회사 가입률은 62.9%로 나타남.⁹⁾
 - 대형 보험회사 가입률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중·소형사 23.2%, 외국사 9.8%, 공제/기타 4.1% 순임.

〈그림 II-8〉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주: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을 고려함.

8) 대형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며, 중·소형사는 국내 9개 생명보험회사이며, 외국사는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한 9개 회사를 포함함.

9)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함.

2) 세부 분석

■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 비중

- 최근 3년 내 가입자 가운데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남녀 모두에서 60% 이상으로 높았음.
 - 여성이 남성보다 대형사(67.2%) 상품에 가입한 가입률이 높았으며, 남성은 외국사(8.5%)에 가입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30대와 40대(각각 70.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50대(38.3%), 외국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60대 이상(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중·소형사 가입률은 중·소도시(34.7%)와 군지역(3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소득 계층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중소득(69.1%)에서 상대적으로 대형사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47〉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전체		62.9	23.2	9.8	4.1
성별	남성	61.4	22.8	12.5	3.3
	여성	64.2	23.6	7.5	4.7
연령	20대	64.4	26.4	8.0	1.1
	30대	69.2	16.8	11.2	2.8
	40대	65.1	22.9	8.4	3.6
	50대	54.2	29.2	11.1	5.6
	60대 이상	55.3	23.4	10.6	10.6
지역 규모	대도시	65.9	20.2	8.2	5.8
	중·소도시	58.8	27.9	10.9	2.4
	군지역	65.2	17.4	17.4	0.0

〈표 II-47〉의 계속

특성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직업	화이트칼라	65.6	25.6	6.9	1.9
	블루칼라	56.4	25.5	14.9	3.2
	농/임/어업	75.0	0.0	25.0	0.0
	자영업	52.4	26.2	14.3	7.1
	주부	70.6	16.5	7.1	5.9
	은퇴자	50.0	0.0	0.0	50.0
	학생	71.4	14.3	14.3	0.0
	무직/기타	0.0	50.0	0.0	5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6.7	16.7	8.3	8.3
	고졸	59.9	21.9	12.4	5.8
	대재 이상	64.6	24.0	8.7	2.6
	모름/무응답	61.1	27.8	5.6	5.6
가구 소득	저소득	51.9	29.6	13.0	5.6
	중소득	64.8	21.0	9.1	5.0
	고소득	64.2	24.4	9.8	1.6

주: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을 고려함.

라.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종목별 만족도는 저축성보험(3.90점), 실손의료보험(3.86점), 질병보장보험(3.84점) 등으로 나타남.

〈표 II-48〉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구분		사례 수	상품 만족도(5점 만점)
실손의료보험		112	3.86
질병보장보험		198	3.84
재해상해보험		40	3.73
간병보험		7	3.71
사망보험	종신	43	4.02
	정기	1	4.00
저축성보험		30	3.90
연금보험		23	3.83
어린이보험		18	3.72
변액보험	연금	8	3.38
	유니버설 연금	4	3.00
	유니버설 종신	8	3.25
	종신	6	3.83

2) 세부 분석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 생명보험 종목별 응답자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특히, 40대에서, 그리고 대재 이상의 학력 계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9〉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1)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실손의료 보험	질병보장 보험	재해(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보험	
						종신	정기
전체		3.86	3.84	3.73	3.71	4.02	4.00
성별	남성	3.95	3.90	3.87	4.00	3.82	-
	여성	3.75	3.80	3.64	3.67	4.24	4.00
연령	20대	3.96	3.94	3.83	-	4.14	-
	30대	3.76	3.83	3.90	4.00	4.08	4.00
	40대	3.83	3.88	3.73	4.00	4.09	-
	50대	3.76	3.81	3.57	-	4.00	-
	60대 이상	4.08	3.70	3.50	3.60	3.50	-
지역 규모	대도시	3.89	3.88	3.61	4.00	4.14	-
	중·소도시	3.86	3.81	3.86	3.60	3.83	4.00
	군지역	3.40	3.78	4.00	-	4.25	-
직업	화이트칼라	3.93	3.91	3.56	-	4.20	-
	블루칼라	3.93	3.80	3.88	4.00	4.29	-
	농/임/어업	4.00	4.00	5.00	-	4.00	-
	자영업	3.33	3.84	3.86	4.00	3.14	-
	주부	3.81	3.75	3.54	3.60	4.13	4.00
	은퇴자	4.00	3.00	-	-	-	-
	학생	4.33	4.33	4.00	-	-	-
	무직/기타	-	4.00	4.00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0	3.75	3.00	3.00	3.00	-
	고졸	3.73	3.77	3.74	3.67	3.93	-
	대재 이상	3.94	3.92	3.75	4.00	4.08	4.00
	모름/무응답	3.50	3.70	-	4.00	4.50	-
가구 소득	저소득	3.79	3.73	3.50	3.50	3.50	-
	중소득	3.87	3.86	3.78	4.00	4.24	-
	고소득	3.86	3.88	3.69	4.00	3.89	4.00

주: 간병보험, 사망정기보험,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변액보험 군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I -50〉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2)

(단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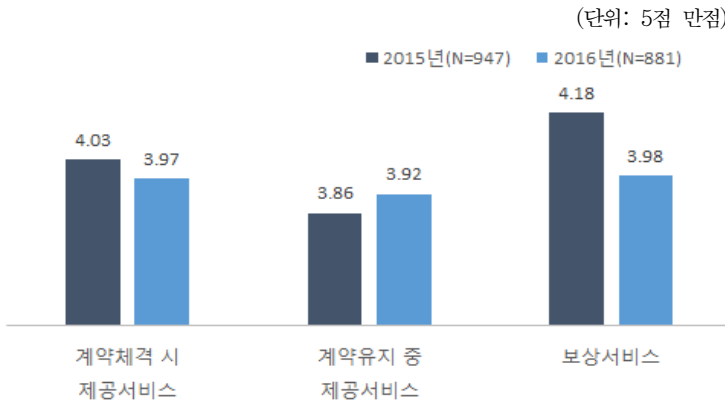
특성별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보험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설 연금	변액 유니버설 종신	변액 종신
전체		3.90	3.83	3.72	3.38	3.00	3.25	3.83
성별	남성	3.78	3.80	3.75	3.50	3.50	3.17	3.33
	여성	3.95	3.85	3.70	3.25	2.50	3.50	4.33
연령	20대	3.67	3.33	4.00	3.00	3.00	3.50	4.00
	30대	3.88	3.88	3.67	3.67	3.50	3.33	2.00
	40대	4.00	4.00	4.00	4.00	2.00	-	4.50
	50대	3.86	3.75	-	3.00	-	3.00	4.00
	60대 이상	4.00	-	-	-	-	3.00	-
지역 규모	대도시	3.80	3.75	3.67	3.17	4.00	3.60	4.00
	중·소도시	4.00	4.00	3.71	4.00	2.67	2.67	3.50
	군지역	4.00	3.67	4.00	-	-	-	-
직업	화이트칼라	4.00	3.75	3.80	3.50	3.00	3.67	4.00
	블루칼라	3.86	4.00	3.86	3.50	4.00	3.00	4.00
	농/임/어업	4.00	4.00	-	-	-	-	-
	자영업	3.67	3.50	3.50	3.00	-	2.50	2.00
	주부	4.00	4.00	3.50	3.33	2.50	4.00	4.50
	은퇴자	-	-	-	-	-	-	-
	학생	-	-	-	-	-	3.00	-
	무직/기타	-	-	-	-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0	4.00	-	-	-	-	-
	고졸	3.91	3.80	3.80	3.33	-	3.00	4.00
	대재 이상	3.89	3.87	3.67	3.40	3.00	3.50	3.80
	모름/무응답	-	3.50	4.00	-	3.00	-	-
가구 소득	저소득	4.00	3.50	4.00	-	3.00	-	-
	중소득	3.80	3.86	3.64	3.33	2.50	3.67	5.00
	고소득	4.11	3.86	4.00	3.50	4.00	3.00	3.60

마.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N=881)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된 결과,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3.97점, 계약 유지서비스가 3.92점, 보상 서비스가 3.98점으로 나타남.
- 전년도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함.

〈그림 II-9〉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주: 보상 서비스(N=43)는 보상 경험자의 만족도만을 측정함.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생명보험 서비스에 대한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40대(4.06점)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20대(3.94점)가, 보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대(4.13점)가 가장 높았음.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도시(4.00점)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았음.

-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만족도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화이트 칼라(4.00점, 3.97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음.
-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았음.

〈표 II-51〉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사례 수	계약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유지 중 제공서비스	사례 수	보상서비스
전체		(881)	3.97	3.92	(43)	3.98
성별	남성	(415)	3.95	3.92	(16)	3.81
	여성	(466)	3.98	3.92	(27)	4.07
연령	20대	(123)	4.04	3.94	(8)	4.13
	30대	(175)	3.95	3.97	(13)	4.00
	40대	(212)	4.06	3.89	(9)	4.00
	50대	(197)	3.93	3.88	(9)	3.78
	60대 이상	(174)	3.77	3.90	(4)	4.00
지역 규모	대도시	(430)	4.00	3.93	(18)	4.00
	중·소도시	(400)	3.93	3.90	(22)	3.95
	군지역	(51)	4.00	4.00	(3)	4.00
직업	화이트칼라	(288)	4.00	3.97	(17)	3.94
	블루칼라	(222)	3.99	3.85	(9)	4.00
	농/임/어업	(12)	4.00	4.00	-	-
	자영업	(115)	3.86	3.86	(3)	3.67
	주부	(208)	3.96	3.95	(12)	4.08
	은퇴자	(8)	3.50	4.00	-	-
	학생	(14)	4.00	3.86	(2)	4.00
	무직/기타	(14)	3.50	4.00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4)	3.82	3.82	-	-
	고졸	(371)	3.91	3.84	(16)	3.94
	대재 이상	(428)	4.02	3.98	(27)	4.00
	모름/무응답	(38)	3.82	3.82	-	-
가구 소득	저소득	(316)	3.85	3.83	(4)	4.00
	중소득	(311)	3.96	3.90	(23)	3.87
	고소득	(254)	4.04	4.00	(16)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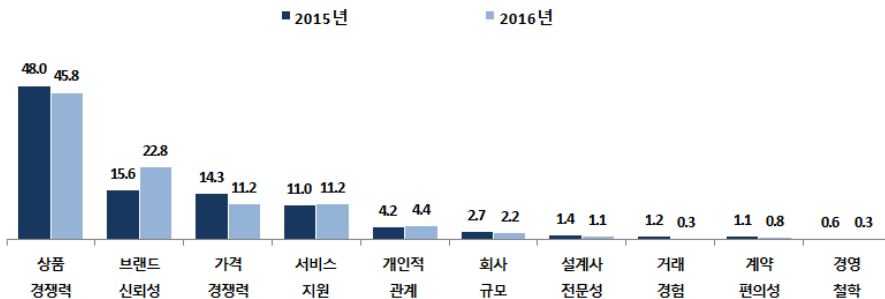
바.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45.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22.8%), 가격 경쟁력(11.2%), 서비스 지원(11.2%), 개인적 관계(4.4%) 등의 순임.
 - 가격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전년대비 2.2%p 감소한 반면, 상품 경쟁력은 7.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1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N=1,200 / 단위: %)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의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브랜드 신뢰성은 40대(26.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브랜드 신뢰성(27.8%)과 가격 경쟁력(18.6%)의 경우 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50.8%)와 대재 이상(48.3%)에서 특히 높음.

〈표 II-52〉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의 신뢰성	가격 경쟁력	서비스 지원	개인적 관계
전체		(1,200)	45.8	22.8	11.2	11.2	4.4
성별	남성	(594)	46.5	22.1	9.6	12.5	4.5
	여성	(606)	45.2	23.6	12.7	9.9	4.3
연령	20대	(197)	52.8	19.8	7.6	14.2	3.6
	30대	(222)	43.7	23.0	13.1	9.5	5.4
	40대	(258)	42.6	26.7	7.8	13.2	3.9
	50대	(240)	45.0	24.6	11.7	10.8	4.6
	60대 이상	(283)	46.3	19.8	14.8	8.8	4.6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8.9	24.7	9.3	9.5	3.1
	중·소도시	(553)	46.1	20.1	11.8	11.6	6.1
	군지역	(97)	26.8	27.8	18.6	18.6	2.1
직업	화이트칼라	(368)	50.8	20.1	7.9	11.7	4.1
	블루칼라	(294)	47.3	21.8	12.9	7.8	7.1
	농/임/어업	(27)	33.3	14.8	22.2	18.5	3.7
	자영업	(158)	46.8	22.8	10.1	13.3	3.8
	주부	(267)	41.6	28.5	12.4	9.4	2.2
	은퇴자	(12)	25.0	8.3	0.0	50.0	16.7
	학생	(38)	34.2	31.6	7.9	21.1	2.6
교육 수준	무직/기타	(36)	38.9	19.4	25.0	8.3	2.8
	중졸 이하	(101)	45.5	13.9	20.8	11.9	3.0
	고졸	(482)	46.7	23.0	11.4	9.8	4.6
	대재 이상	(547)	48.3	22.9	9.1	11.5	4.0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70)	21.4	34.3	11.4	17.1	8.6
	저소득	(266)	45.1	20.3	17.3	7.9	4.1
	중소득	(622)	45.3	24.6	9.2	11.9	3.9
	고소득	(312)	47.4	21.5	9.9	12.5	5.8

〈표 II-53〉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2)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회사규모	설계사의 전문성	계약체결 편의성	과거 거래경험	경영철학
전체		(1,200)	2.2	1.1	0.8	0.3	0.3
성별	남성	(594)	1.9	1.3	0.8	0.5	0.3
	여성	(606)	2.5	0.8	0.7	0.2	0.2
연령	20대	(197)	0.5	1.0	0.0	0.0	0.5
	30대	(222)	2.7	0.9	0.9	0.5	0.5
	40대	(258)	2.7	1.9	0.4	0.4	0.4
	50대	(240)	1.3	0.4	1.3	0.4	0.0
	60대 이상	(283)	3.2	1.1	1.1	0.4	0.0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6	1.5	0.7	0.5	0.2
	중·소도시	(553)	2.0	0.9	0.9	0.2	0.4
	군지역	(97)	6.2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68)	1.6	2.2	0.8	0.5	0.3
	블루칼라	(294)	2.0	0.3	0.3	0.3	0.0
	농/임/어업	(27)	7.4	0.0	0.0	0.0	0.0
	자영업	(158)	1.3	0.0	1.9	0.0	0.0
	주부	(267)	3.4	1.5	0.4	0.4	0.4
	은퇴자	(12)	0.0	0.0	0.0	0.0	0.0
	학생	(38)	2.6	0.0	0.0	0.0	0.0
	무직/기타	(36)	0.0	0.0	2.8	0.0	2.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3.0	2.0	0.0	0.0	0.0
	고졸	(482)	2.7	0.4	1.0	0.4	0.0
	대재 이상	(547)	1.3	1.6	0.5	0.4	0.4
	모름/무응답	(70)	4.3	0.0	1.4	0.0	1.4
가구 소득	저소득	(266)	2.6	1.1	0.8	0.4	0.4
	중소득	(622)	2.7	1.3	0.6	0.5	0.0
	고소득	(312)	0.6	0.6	1.0	0.0	0.6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가. 손해보험 가구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6년 손해보험 가구¹⁰⁾ 가입률은 88.9%로 2015년(91.8%) 대비 2.9%p 감소하고, 가구 가입건수는 3.5건으로 2015년(3.4건) 대비 0.1건 증가함.

〈표 Ⅲ-1〉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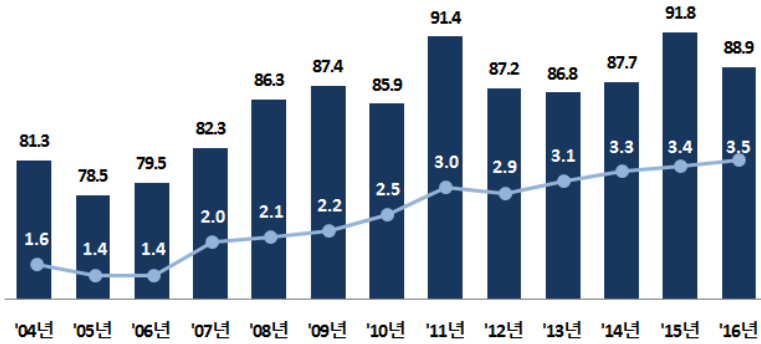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 가입률	87.4	85.9	91.4	87.2	86.8	87.7	91.8	88.9
가구 가입건수	2.2	2.5	3.0	2.9	3.1	3.3	3.4	3.5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10)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입률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수치임.

〈그림 Ⅲ-1〉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N=1,200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자영업자와 은퇴자를 제외한 모든 세대주 직업별 및 가구소득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농/임/어업(-18.5%p), 무직/기타(-13.7%p)에서 특히 많이 하락함.

〈표 Ⅲ-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률(%p)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가입건수(건)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4.6	96.2	1.6	3.8	4.1	0.3
	블루칼라	93.1	85.7	-7.3	3.2	3.1	-0.1
	자영업	90.6	92.4	1.8	3.4	3.6	0.2
	농/임/어업	100.0	81.5	-18.5	3.4	2.6	-0.8
	주부	92.6	83.9	-8.7	3.4	3.3	-0.1
	은퇴자	80.4	83.3	3.0	2.4	2.8	0.4
	학생	-	92.1	-	-	4.1	-
가구 소득	무직/기타	80.4	66.7	-13.7	3.1	1.7	-1.4
	저소득	73.2	66.5	-6.7	1.6	1.7	0.0
	중소득	94.3	94.2	-0.1	3.1	3.6	0.5
	고소득	97.8	97.4	-0.4	4.4	4.8	0.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대도시(92.0%), 중·소도시(87.0%), 군지역(82.5%) 모두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군지역의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특히 군지역 가구 가입률이 전년(94.8%) 대비 12.3%p 하락함.

〈표 Ⅲ-3〉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도시	85.0	84.4	88.3	88.3	86.1	86.9	90.6	92.0
중·소도시	89.8	86.6	94.1	87.0	89.5	88.8	92.4	87.0
군지역	88.2	90.3	94.5	82.4	76.9	85.6	94.8	82.5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소득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저소득 66.5% < 중소득 94.2% < 고소득 97.4%) 높음.
- 고소득 가구와 중소득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각각 0.4%p, 0.1%p 하락하였고, 저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대비 6.7%p 하락함.

〈표 Ⅲ-4〉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소득별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저소득	76.3	70.7	79.9	66.6	63.0	63.6	73.2	66.5
중소득	92.1	92.4	94.9	92.4	92.7	90.9	94.3	94.2
고소득	95.8	96.1	94.9	96.0	96.8	95.2	97.8	97.4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 가입률은 자동차보험이 7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78.1%)이며, 상해보험¹¹⁾ 가구 가입률은 4% 미만임.

- 장기손해보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58.8%)과 장기상해보험(42.7%)의 가구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 종목별 평균 가입건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6건, 상해보험 1.5건, 자동차보험 1.2건으로 나타남.

〈표 Ⅲ-5〉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6년)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건)
자동차보험	78.5	1.2
장기손해보험	78.1	3.2
- 실손의료보험	58.8	2.4
- 장기상해보험	42.7	1.3
- 장기질병보험	18.6	1.9
- 장기간병보험	1.6	1.3
- 장기종합보험	6.3	1.1
- 장기저축성보험	2.9	1.2
- 어린이보험	5.0	1.5
상해보험	3.8	1.5
기타	0.4	1.6

11) 장기상해보험을 제외한 여행상해 및 교통상해 등의 상해보험을 포함함(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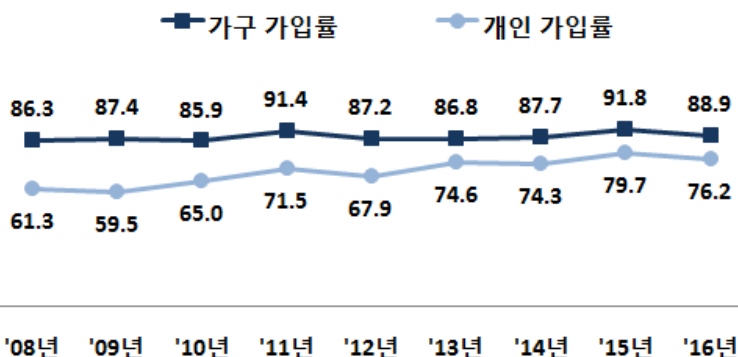
나. 손해보험 개인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6년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3.5%p 감소한 76.2%를 나타냄.

〈그림 Ⅲ-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1,200 / 단위: %)



- 손해보험의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40대(84.1%, 1.9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미혼보다는 기혼(77.2%, 1.6건)에서, 저소득 가구보다는 고소득(81.7%, 1.8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다만,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50대(83.3%), 기혼(77.2%), 저소득(59.8%) 가구에서 특히 많이 하락함.

〈표 Ⅲ-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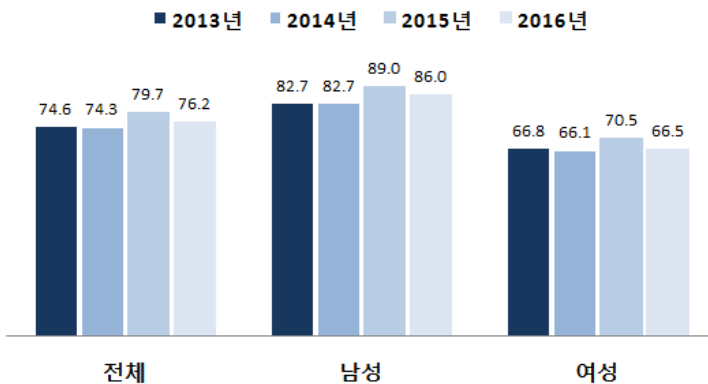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5년	2016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2015년	2016년	2016년 대비 가입건수(건)
연령	20대	65.2	67.5	2.4	1.1	1.2	0.1
	30대	87.6	83.8	-3.8	1.9	1.8	-0.1
	40대	89.3	84.1	-5.2	2.0	1.9	-0.1
	50대	89.3	83.3	-5.9	1.9	1.8	0.0
	60대 이상	65.9	62.9	-3.0	1.2	1.2	0.0
결혼 여부	기혼	81.7	77.2	-4.6	1.7	1.6	0.0
	미혼	71.6	72.4	0.8	1.3	1.3	0.0
가구 소득	저소득	64.7	59.8	-4.9	1.1	1.1	0.0
	중소득	82.9	80.4	-2.5	1.6	1.7	0.0
	고소득	83.6	81.7	-1.9	1.8	1.8	0.0

■ 성별 기준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남성이 86.0%, 여성이 66.5%로 여전히 남성의 가입률이 더 높았음.

○ 남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3.0%p, 여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4.0%p 감소함.

〈그림 Ⅲ-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1,200 / 단위: %)



2) 세부분석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6.0%)이 여성(66.5%)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기혼 남성의 개인 가입률이 89.5%로 높았음.

– 남성의 손해보험 가입 가입률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자동차보험 개인 가입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표 Ⅲ-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77.2	72.4	86.0		66.5	
			89.5	75.2	66.1	68.6
개인 가입건수(건)	1.6	1.3	1.9		1.3	
			2.1	1.4	1.3	1.2

주: 가입건수는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모든 연령대에서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30대 (-3.8%p), 40대(-5.2%p), 50대(-5.9%p)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함.

○ 개인 가입건수는 20대 1.2건, 30대 1.8건, 40대 1.9건, 50대 1.8건, 60대 이상 1.2건으로 나타남.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7.5	83.8	84.1	83.3	62.9
가입건수(건)	1.2	1.8	1.9	1.8	1.2
2015년 대비 가입률(%p)	2.4	-3.8	-5.2	-5.9	-3.0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 80.0%, 중·소도시 73.8%, 군지역 68.0%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개인 가입건수도 대도시 1.7건, 중·소도시 1.5건, 군지역 1.5건 순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대도시	80.0	1.7
중·소도시	73.8	1.5
군지역	68.0	1.5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대재 이상 고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83.9%, 개인 가입건수는 1.8건인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40.6%, 개인 가입건수는 0.7건임.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40.6	0.7
고졸	76.8	1.5
대재 이상	83.9	1.8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7.5%), 은퇴자(83.3%), 자영업(82.9%) 그룹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주부(63.7%), 무직/기타(47.4%) 등 비경제 활동 그룹의 개인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개인 가입건수는 은퇴자(2.2건), 화이트칼라(1.9건), 자영업(1.8건), 농/임/어업(1.6건), 블루칼라(1.5건)가 1.5건 이상이었으나, 주부(1.2건), 무직/기타(0.6건)는 1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7.5	1.9
블루칼라	76.5	1.5
농/임/어업	66.7	1.6
자영업	82.9	1.8
주부	63.7	1.2
은퇴자	83.3	2.2
무직/기타	47.4	0.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중소득(80.4%)과 고소득(81.7%) 가구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80% 이상 수준으로 높은 반면, 저소득 가구의 개인 가입률은 59.8%로 낮음.
- 개인 가입건수는 고소득(1.8건)과 중소득 가구(1.7건)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저소득 가구 가입건수: 1.1건)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건수의 차이를 보임.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저소득	59.8	1.1
중소득	80.4	1.7
고소득	81.7	1.8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67.4%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종목의 경우 10% 미만으로 낮음.
-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2.2%), 50대(75.8%),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52.6% < 중소득 70.9% < 고소득 73.1%) 개인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은 남성(71.5%), 40대(63.2%), 50대(56.3%), 저소득보다는 중소득(52.7%), 고소득(52.2%) 가구에 속한 개인의 가입률이 높음.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단위: %, 건)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 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47.8	67.4	2.0	0.4	23.8
성별	남성	71.5	72.2	2.7	0.2	14.0
	여성	24.4	62.7	1.3	0.7	33.5
연령	20대	29.9	61.4	1.5	0.5	32.5
	30대	54.1	73.0	1.8	0.0	16.2
	40대	63.2	73.6	2.7	0.4	15.9
	50대	56.3	75.8	2.9	0.4	16.7
	60대 이상	33.9	54.4	1.1	0.7	37.1
지역 규모	대도시	49.3	70.7	2.2	0.4	20.0
	중·소도시	46.7	66.0	2.0	0.2	26.2
	군지역	45.4	56.7	1.0	2.1	32.0

〈표 Ⅲ-13〉의 계속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 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직업	화이트칼라	67.7	76.1	3.3	0.0	12.5
	블루칼라	45.6	68.0	1.7	0.7	23.5
	농/임/어업	55.6	51.9	3.7	0.0	33.3
	자영업	67.7	69.6	2.5	0.0	17.1
	주부	19.1	60.7	.4	1.1	36.3
	은퇴자	75.0	75.0	0.0	0.0	16.7
	학생	2.6	47.4	0.0	0.0	52.6
	무직/기타	19.4	44.4	2.8	0.0	44.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8	32.7	0.0	1.0	59.4
	고졸	43.6	69.1	1.7	0.8	23.2
	대재 이상	58.7	74.4	2.7	0.0	16.1
	모름/무응답	37.1	51.4	1.4	0.0	37.1
가구 소득	저소득	30.8	52.6	0.0	1.1	40.2
	중소득	52.7	70.9	1.8	0.2	19.6
	고소득	52.2	73.1	4.2	0.3	18.3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 장기손해보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개인 가입률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개인 가입률은 1.0%로 가장 낮았음.
- 장기실손보험의 경우 60대 이상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대부분 종목에서 대도시, 화이트칼라, 대재 이상 계층의 가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Ⅲ-14〉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 건)

특성별		장기 실손 의료	장기 상해	장기 질병	장기 간병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전체		51.5	26.9	12.5	1.0	2.9	2.1	1.5
성별	남성	51.5	37.7	14.1	0.7	3.2	1.5	0.3
	여성	51.4	16.3	10.9	1.3	2.6	2.6	2.6
연령	20대	51.8	18.8	6.1	0.0	1.0	1.5	0.0
	30대	57.2	31.5	14.4	0.9	1.8	1.4	4.1
	40대	56.2	34.5	14.7	0.8	1.9	2.7	3.5
	50대	58.8	30.4	12.9	1.3	4.6	2.9	0.0
	60대 이상	36.4	19.1	13.1	1.8	4.6	1.8	0.0
지역 규모	대도시	53.5	29.8	13.8	0.9	3.3	2.4	1.6
	중·소도시	51.7	23.1	11.6	0.9	2.2	2.2	1.6
	군지역	39.2	32.0	10.3	2.1	5.2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58.2	38.3	11.7	0.8	3.0	1.6	1.1
	블루칼라	50.0	27.2	11.2	0.0	0.3	3.7	0.3
	농/임/어업	25.9	25.9	18.5	11.1	7.4	0.0	0.0
	자영업	51.3	29.7	13.3	0.6	10.1	0.0	1.3
	주부	51.7	13.9	13.1	1.9	1.1	2.6	4.1
	은퇴자	41.7	41.7	50.0	0.0	0.0	0.0	0.0
	학생	39.5	10.5	5.3	0.0	0.0	0.0	0.0
	무직/기타	30.6	5.6	13.9	0.0	5.6	2.8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8	8.9	13.9	1.0	3.0	1.0	0.0
	고졸	53.5	24.7	11.6	1.7	2.9	2.9	0.6
	대재 이상	56.9	32.9	12.6	0.5	2.9	1.8	2.6
	모름/무응답	42.9	21.4	15.7	0.0	2.9	0.0	1.4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2. 손해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가. 손해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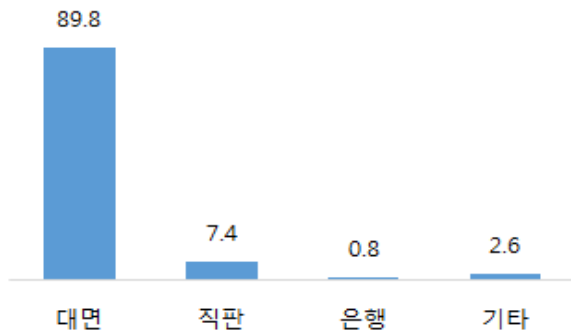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의 경우 전통적 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등 대면채널(89.8%)을 통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¹²⁾

○ 인터넷과 통신판매 등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7.4%로 나타났으며,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통한 가입률은 0.8%로 매우 낮았음.¹³⁾

〈그림 Ⅲ-4〉 손해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주: 1) 가입자 중 각 채널을 통해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2) 판매채널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3)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

12) 가입자 중 각 채널을 통해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응답이 가능하여 이를 고려함. 또한,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채널별 보험료 비중과는 다르며, 특히, 직판과 은행 등은 표본이 작고 통계적 의미가 낮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이하 동일).

13) 최근 자동차보험 인터넷 판매 증가 등으로 직판채널을 통한 신규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본 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보유한 손해보험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가장 많았음.
- 직판채널을 통한 손해보험가입률은 남성(8.8%)이 여성(5.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89.0	90.9
직판	8.8	5.6
은행	0.5	1.2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 가입률이 85% 내외 수준으로 높았음.
- 20대와 30대의 경우 향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해당 연령의 향후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음.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3.8	85.0	93.6	90.7	94.5
직판	11.5	13.1	5.6	6.5	1.1
은행	1.4	0.0	0.0	0.9	2.2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을 가장 선호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선호도는 군지역 7.8%, 중·소도시 7.7%, 대도시 7.1% 순임.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0.5	89.6	87.0
직판	7.1	7.7	7.8
은행	1.3	0.5	0.0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직판채널 선호도(15.0%)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88.0	86.2	85.0	93.5	94.9	91.7	100.0
직판	9.4	9.3	15.0	5.8	2.8	0.0	0.0
은행	0.3	1.2	0.0	0.7	0.6	8.3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재 이상(10.7%)의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93.0	91.1	88.5
직판	0.0	5.6	9.9
은행	4.7	1.0	0.2

나.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4.0%로 여전히 가장 높고, 직판채널 선호도는 13.9%로 나타남.
- 은행 채널에 대한 향후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0.9%)보다 0.2%p 낮은 0.6%로 나타남.
- 다만,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이나, 현재 가입률(89.8%)보다는 5.8%p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7.4%)보다 6.5%p 높게 나타났음.

〈표 III-20〉 손해보험 향후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가입률	향후 선호도
대면	89.8	84.0
직판	7.4	13.9
은행	0.8	0.6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남성(84.2%)과 여성(83.6%) 모두 가장 높음.
- 남성은 직판(14.4%)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았고,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 대비 직판(24.8%)채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2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성별	남성	84.2	14.4	0.2
	여성	83.6	13.1	1.1
결혼 여부	기혼	86.7	11.0	0.7
	미혼	73.8	24.8	0.0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91.5%로 가장 높음.
- 그러나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직판채널(27.0%)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20대	70.3	27.0	0.0
30대	79.2	19.5	0.0
40대	86.0	12.3	1.1
50대	90.1	7.7	1.4
60대 이상	91.5	5.4	0.0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향후 채널 선호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의향은 군지역(3.7%)에 비하여 대도시(14.6%)와 중·소 도시(15.0%)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23〉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대도시	83.1	14.6	0.6
중·소도시	83.1	15.0	0.6
군지역	94.4	3.7	0.0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향후 직판채널 선호도는 화이트칼라(1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4〉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화이트칼라	80.4	18.6	0.0
블루칼라	81.1	15.7	0.6
농/임/어업	90.9	4.5	0.0
자영업	90.9	9.1	0.0
주부	89.3	6.3	2.7
은퇴자	88.9	0.0	0.0
학생	90.0	10.0	0.0
무직/기타	80.0	20.0	0.0

주: 농/임/어업, 무직/기타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대면채널 선호도는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97.2% > 고졸 88.9% > 대재 이상 78.5%) 높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직판채널(중졸 이하 0.0% < 고졸 8.7% < 대재 이상 19.4%)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25〉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중졸 이하	97.2	0.0	0.0
고졸	88.9	8.7	0.8
대재 이상	78.5	19.4	0.5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자동차보험(15.3%)의 향후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자동차보험	83.8	15.3	-
장기손해보험	86.5	11.0	1.3
상해보험	85.7	14.3	-

다.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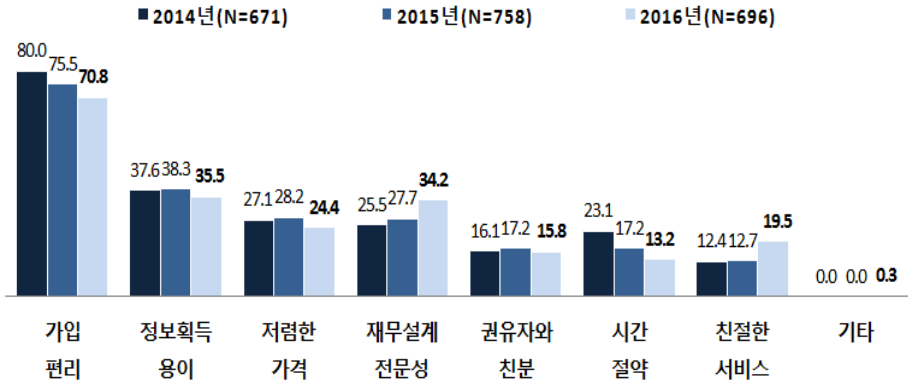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에 손해보험 상품 가입의향자(N=696)를 대상으로 향후 가입 시 선호하는 가입 채널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입 편리성이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이 꼽힘.

○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성(35.5%), 재무설계의 전문성(34.2%), 그리고 저렴한 가격(24.4%) 등의 순임.

〈그림 Ⅲ-5〉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향후 가입하고자 하는 채널의 선호 이유

-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 가입하고자 하는 채널의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68.1%), 재무설계의 전문성(32.9%), 정보획득의 용이성(27.5%), 저렴한 가격(19.9%) 등이 꼽힘.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가입의 편리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특히 건강과 관련한 장기손해보험(74.3%)¹⁴⁾과 저축과 관련 장기손해보험(71.6%)에서 가입 편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상해보험¹⁵⁾의 경우 향후 가입 시 해당 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59.1%), 정보획득 용이(54.5%), 재무 설계의 전문성(27.3%), 저렴한 가격(27.3%) 등이 꼽힘.

14)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포함함.

15) 장기상해보험을 제외한 여행상해 및 교통상해 등의 상해보험을 포함함.

〈표 Ⅲ-27〉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정보 획득 용이	재무 설계 전문성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시간 절약	권유자 친분
자동차보험	68.1	27.5	32.9	19.9	18.2	12.0	15.5
장기손해보험-상해	68.3	42.0	28.8	26.6	17.2	12.2	12.2
장기손해보험-건강 ¹⁾	74.3	30.1	24.8	20.4	24.8	10.6	7.1
장기손해보험-종합	65.4	44.2	21.2	28.8	9.6	13.5	11.5
장기손해보험-저축	71.6	37.8	24.3	25.7	9.5	8.1	16.2
장기손해보험-어린이	68.5	31.5	16.4	31.5	16.4	15.1	12.3
상해보험 ²⁾	59.1	54.5	27.3	27.3	4.5	-	18.2
기타	28.6	57.1	28.6	14.3	-	28.6	42.9

주: 1)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포함함.

2) 장기상해보험을 제외한 여행상해 및 교통상해 등의 상해보험을 포함함.

3. 향후 손해보험 가입의향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5.0%, 상해보험은 2.2%로 나타남.

〈표 Ⅲ-28〉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7.8	56.9	43.1
장기손해보험	67.4	95.0	5.0
상해보험	2.0	97.8	2.2

나. 세부 분석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 장기손해보험 가입의향은 여성(5.3%)이 남성(4.7%)보다 높은 반면, 상해보험 가입의향은 여성(2.5%)이 남성(1.9%)보다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가입의향은 20대 5.7%, 30대 5.5%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상해보험 가입의향은 40대(4.3%)에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거주 지역별로는 장기손해보험 가입의향은 모든 지역에서 4% 이상으로 나타났다.
- 장기손해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은 화이트칼라(5.8%, 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중소득 가구의 가입의향이 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 가입의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의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표 Ⅲ-2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단위: %)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전체		43.1	5.0	2.2
성별	남성	61.4	4.7	1.9
	여성	25.1	5.3	2.5
연령	20대	37.6	5.7	3.6
	30대	52.7	5.5	1.8
	40대	53.5	5.3	4.3
	50대	45.4	3.8	0.8
	60대 이상	27.9	4.8	0.7
지역 규모	대도시	42.5	5.6	4.0
	중·소도시	43.8	4.3	0.7
	군지역	42.3	5.2	0.0

〈표 Ⅲ-29〉의 계속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직업	화이트칼라	62.0	5.8	3.8
	블루칼라	38.8	4.4	2.4
	농/임/어업	59.3	8.5	0.0
	자영업	51.3	4.1	1.3
	주부	21.7	5.1	1.1
	은퇴자	75.0	1.2	0.0
	학생	7.9	4.1	0.0
	무직/기타	22.2	4.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9	5.4	1.0
	고졸	35.3	4.4	1.2
	대재 이상	55.6	5.5	3.5
	모름/무응답	41.4	4.7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4	4.7	1.1
	중소득	48.2	5.2	1.6
	고소득	46.2	4.8	4.2

■ 향후 1년 이내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 장기손해보험 중에서는 향후 1년 내 장기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상해보험 대한 가입의향이 각각 9.4%, 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장기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상해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의향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음.

〈표 Ⅲ-3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가입의향

(단위: %, 건)

특성별		장기 실손의료	장기 상해	장기 질병	장기 간병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전체		9.4	8.7	6.2	6.1	1.8	2.1	0.6
성별	남성	10.1	9.9	4.9	2.9	1.9	2.5	0.7
	여성	8.7	7.4	7.4	9.2	1.8	1.7	0.5
연령	20대	13.2	12.2	8.1	3.0	2.0	1.5	0.0
	30대	8.6	10.4	6.3	2.7	3.6	4.1	2.7
	40대	11.6	9.3	3.9	6.6	1.9	3.9	0.0
	50대	7.1	6.3	5.4	5.4	0.8	0.8	0.4
	60대 이상	7.4	6.4	7.4	11.0	1.1	0.4	0.0
지역 규모	대도시	10.2	9.5	6.2	6.9	3.1	2.4	0.9
	중·소도시	9.2	7.4	6.0	4.9	0.7	2.0	0.2
	군지역	6.2	11.3	7.2	8.2	1.0	1.0	1.0
직업	화이트칼라	12.8	12.0	5.7	3.8	2.7	3.3	0.5
	블루칼라	8.8	7.1	5.8	3.7	2.4	1.4	1.4
	농/임/어업	14.8	14.8	14.8	14.8	0.0	0.0	0.0
	자영업	5.1	10.1	4.4	5.1	1.3	2.5	0.0
	주부	6.7	4.9	7.9	12.7	1.1	1.9	0.4
	은퇴자	0.0	0.0	8.3	0.0	0.0	0.0	0.0
	학생	10.5	13.2	2.6	2.6	0.0	0.0	0.0
	무직/기타	16.7	2.8	5.6	2.8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9	7.9	9.9	7.9	1.0	0.0	0.0
	고졸	6.6	7.1	5.0	8.5	1.5	1.9	0.2
	대재 이상	11.3	9.9	6.8	3.7	2.6	2.9	1.1
	모름/무응답	11.4	11.4	4.3	5.7	0.0	0.0	0.0

주: 가입상품 전수 기준임.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가. 손해보험 보상 경험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N=1,067) 가운데 19.6%가 손해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2.9건, 평균 보상액수는 168만 원이었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평균 보상건수가 3.1건으로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보상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평균 보상액수는 63.5만 원이었음.

〈표 Ⅲ-31〉 손해보험 보상 건수 및 보상 액수

(단위: 건,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209)	2.9	1,685,202
실손의료보험	(174)	3.1	635,531
중증질병	(6)	1.0	32,500,000
일반질병	(7)	1.7	462,857
재해(상해)	(10)	1.0	1,135,000
교통사고	(27)	1.0	1,051,481
재산손실보장	(1)	1.0	25,000
자녀에 대한 보장	(12)	1.7	301,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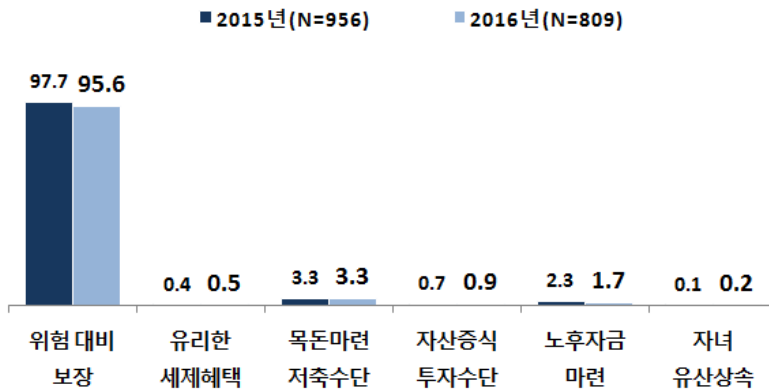
나.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5.6%)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상대적으로 저축, 노후 대비, 투자 수단으로 손해보험 상품을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남.

〈그림 Ⅲ-6〉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종목에 상관없이 손해보험 가입 이유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압도적임.

〈표 Ⅲ-3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자산증식	유산상속
자동차보험	97.0	1.4	0.3	0.7	0.3	0.2
장기손해보험	95.6	3.3	1.7	0.5	0.9	0.2
상해보험	100.0	-	-	-	-	-

주: 기타는 제외함(이하 동일).

다.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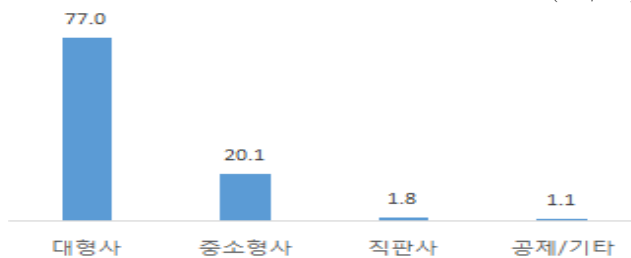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를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하여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의 가입 현황을 파악함.¹⁶⁾

■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80.8%가 대형사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⁷⁾

〈그림 Ⅲ-7〉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상품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주: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을 고려함.

16) 대형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4개 회사이며, 중·소형사는 7개 회사, 직판사는 3개 회사임.

17)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함.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 최근 3년 내 대형사 가입률은 남성(80.0%)이 여성(71.4%)보다 높음.
- 대형사 가입률은 전 연령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81.7%)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중·소형사 가입률은 40대(20.1%), 외국사 가입률은 50대(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소형사 가입률은 군지역(2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4.0%)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특히 높았음.
- 가구소득별로 보면, 중소득(74.8%) 가구의 대형사 가입률이 고소득(79.7%)과 저소득(79.6%) 가구의 대형사 가입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33〉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전체		77.0	20.1	1.8	1.1
성별	남성	80.0	17.4	1.9	0.6
	여성	71.4	25.1	1.5	1.9
연령	20대	70.1	23.4	0.9	5.6
	30대	78.0	20.0	2.0	0.0
	40대	75.9	22.5	1.6	0.0
	50대	78.4	18.5	2.5	0.6
	60대 이상	81.7	15.7	1.7	0.9
지역 규모	대도시	80.5	16.9	1.5	1.2
	중·소도시	74.4	21.8	2.5	1.3
	군지역	70.3	29.7	0.0	0.0

〈표 Ⅲ-33〉의 계속

특성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직업	화이트칼라	84.0	14.2	0.4	1.4
	블루칼라	69.9	24.9	4.6	0.6
	농/임/어업	64.7	35.3	0.0	0.0
	자영업	78.9	19.3	1.8	0.0
	주부	69.5	26.7	1.9	1.9
	은퇴자	88.9	11.1	0.0	0.0
	학생	63.6	27.3	0.0	9.1
	무직/기타	78.6	21.4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0.8	15.4	0.0	3.8
	고졸	71.8	25.6	1.8	0.7
	대재 이상	80.1	17.4	2.0	0.5
	모름/무응답	80.0	11.4	0.0	8.6
가구 소득	저소득	79.6	19.4	0.0	0.9
	중소득	74.8	22.7	1.5	1.0
	고소득	79.7	15.6	3.3	1.4

주: 3년 이내 가입자 중 각 회사군별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을 고려함.

라.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에 가입한 보험 상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이 3.91점, 장기손해보험이 3.92점, 상해보험이 3.90점으로 모두 3.9점 이상 수준임.

〈표 Ⅲ-34〉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및 만족도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만족도(5점 만점)
자동차보험 ²⁾	41.5	3.90
장기손해보험	28.4	-
상해보험	1.2	3.86
기타	0.3	3.67

주: 1)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에서 3년 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비율임.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

-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가운데 저축성보험과 어린이보장 보험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역 및 직업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가 대도시와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Ⅲ-35〉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 손해 보험
			실손	상해	질병	간병	종합	저축성	어린이 보장	
전체		3.90	3.95	3.85	3.83	3.67	3.71	4.10	4.09	3.86
성별	남성	3.90	4.00	3.87	3.80	4.00	3.75	4.00	4.00	3.9
	여성	3.88	3.91	3.79	3.88	3.33	3.69	4.14	4.10	3.8
연령	20대	3.88	4.04	3.88	3.86	-	3.00	4.00	-	3.7
	30대	3.92	3.94	4.00	4.00	4.00	4.00	4.00	4.14	4.5
	40대	3.85	3.86	3.76	3.67	4.00	4.00	4.00	4.00	4.0
	50대	3.88	3.93	3.77	3.71	3.50	3.71	4.33	-	3.5
	60대 이상	3.98	4.00	3.81	4.00	3.00	3.67	4.00	-	3.0
지역 규모	대도시	3.93	4.06	4.00	4.11	4.00	3.64	4.17	4.14	3.9
	중·소도시	3.86	3.82	3.69	3.57	3.50	3.71	4.00	4.00	4.0
	군지역	3.88	4.00	3.64	3.50	4.00	4.00	-	-	3.0
직업	화이트칼라	3.94	4.07	3.98	4.00	3.67	3.57	4.00	-	3.8
	블루칼라	3.85	3.85	3.67	3.50	-	4.00	4.00	4.00	5.0
	농/임/어업	3.87	3.67	3.50	3.33	4.00	-	-	-	4.0
	자영업	3.84	3.86	3.73	3.67	3.00	3.80	-	4.00	3.0
	주부	3.98	3.96	3.82	4.07	-	4.00	4.33	4.13	-
	은퇴자	3.78	-	-	-	-	-	-	-	-
	학생	3.00	3.71	3.50	4.00	-	-	-	-	-
	무직/기타	4.00	4.00	4.00	4.00	-	3.00	-	-	-

〈표 Ⅲ-35〉의 계속

특성별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 손해 보험
			실손	상해	질병	간병	종합	저축성	어린이 보장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80	3.40	3.60	3.71	-	3.50	-	-	-
	고졸	3.84	3.93	3.67	3.80	3.33	3.78	4.14	4.00	3.0
	대재 이상	3.93	3.99	3.96	4.00	4.00	3.70	4.00	4.11	3.9
	모름/무응답	3.95	4.00	3.71	3.33	-	-	-	4.00	-
가구 소득	저소득	3.86	3.85	3.65	3.77	3.00	3.40	4.00	-	-
	중소득	3.92	3.94	3.91	4.04	4.00	3.90	4.17	4.11	3.8
	고소득	3.85	4.02	3.81	3.53	4.00	3.67	4.00	4.00	3.9

마.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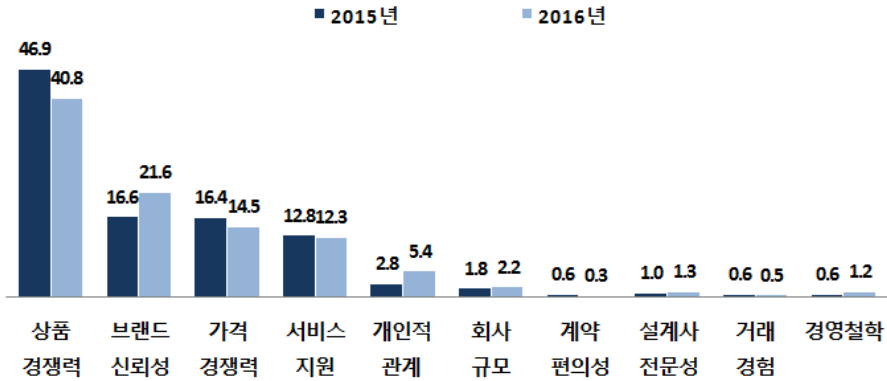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40.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21.6%), 가격 경쟁력(14.5%), 서비스 지원(12.3%), 개인적 관계(5.4%) 등의 순임.

○ 다만, 상품 경쟁력은 전년대비 6.1%p 하락한 반면,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은 5.0%p 상승함.

〈그림 Ⅲ-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N=1,200 /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함.
- 연령별로도 상품 경쟁력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브랜드 신뢰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40대(24.0%)에서 높게 나타남.
- 또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대도시가 45.6%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직업별로는 특히 화이트칼라(42.7%)에서 상품 경쟁력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져 대재 이상에서 43.3%로 가장 높음.

〈표 Ⅲ-36〉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가격 경쟁력	서비스 지원	개인적 관계
전체		(1,200)	40.8	21.6	14.5	12.3	5.4
성별	남성	(594)	42.3	22.7	13.5	10.3	6.1
	여성	(606)	39.4	20.5	15.5	14.2	4.8
연령	20대	(197)	50.3	22.8	9.6	11.2	2.5
	30대	(222)	40.1	18.0	17.6	15.3	5.4
	40대	(258)	37.6	24.0	14.0	12.4	5.4
	50대	(240)	38.8	21.7	14.2	12.5	7.1
	60대 이상	(283)	39.6	21.2	16.3	10.2	6.0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5.6	22.9	12.2	11.6	3.6
	중·소도시	(553)	38.0	21.2	16.1	11.9	5.8
	군지역	(97)	29.9	16.5	18.6	17.5	13.4
직업	화이트칼라	(368)	42.7	22.8	14.7	12.8	2.7
	블루칼라	(294)	40.5	21.8	15.3	10.9	6.1
	농/임/어업	(27)	22.2	7.4	22.2	18.5	22.2
	자영업	(158)	43.7	18.4	11.4	10.1	10.8
	주부	(267)	39.0	22.5	16.1	12.0	3.7
	은퇴자	(12)	58.3	8.3	0.0	25.0	8.3
	학생	(38)	36.8	26.3	7.9	18.4	5.3
	무직/기타	(36)	38.9	25.0	13.9	13.9	2.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33.7	12.9	23.8	12.9	5.9
	고졸	(482)	39.6	21.4	13.3	13.1	7.7
	대재 이상	(547)	43.3	23.0	14.1	11.7	3.7
	모름/무응답	(70)	40.0	24.3	12.9	10.0	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5.7	22.2	15.4	10.9	8.3
	중소득	(622)	41.5	23.2	15.3	11.3	4.5
	고소득	(312)	43.9	17.9	12.2	15.4	4.8

〈표 Ⅲ-37〉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2)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회사 규모	설계사 전문성	경영철학	과거 거래경험	계약체결 편의성
전체		(1,200)	2.2	1.3	1.2	0.5	0.3
성별	남성	(594)	1.9	1.3	1.0	0.7	0.3
	여성	(606)	2.5	1.2	1.3	0.3	0.3
연령	20대	(197)	1.0	1.5	.5	0.5	0.0
	30대	(222)	1.8	0.9	0.0	0.5	0.5
	40대	(258)	2.7	1.6	2.3	0.0	0.0
	50대	(240)	1.7	1.3	1.3	0.8	0.8
	60대 이상	(283)	3.2	1.1	1.4	0.7	0.4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5	1.5	0.4	0.5	0.2
	중·소도시	(553)	2.7	1.3	2.0	0.5	0.5
	군지역	(97)	3.1	0.0	1.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68)	1.4	1.4	1.4	0.3	0.0
	블루칼라	(294)	2.0	1.7	0.3	0.7	0.7
	농/임/어업	(27)	7.4	0.0	0.0	0.0	0.0
	자영업	(158)	1.9	0.6	1.3	1.3	0.6
	주부	(267)	3.0	1.1	1.9	0.4	0.4
	은퇴자	(12)	0.0	0.0	0.0	0.0	0.0
	학생	(38)	2.6	2.6	0.0	0.0	0.0
	무직/기타	(36)	2.8	0.0	2.8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5.0	2.0	2.0	0.0	2.0
	고졸	(482)	2.1	1.2	0.6	0.6	0.4
	대재 이상	(547)	1.5	1.3	1.1	0.4	0.0
	모름/무응답	(70)	4.3	0.0	4.3	1.4	0.0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8	1.1	1.5	0.4	0.8
	중소득	(622)	1.4	1.3	0.6	0.8	0.2
	고소득	(312)	2.2	1.3	1.9	0.0	0.3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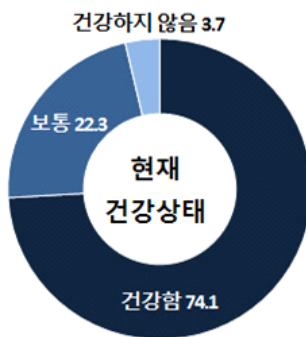
1. 실손의료보험

가. 현재 건강상태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 74.1%, 보통이다 22.3%, 건강하지 않다 3.7%로 대략 10명 중에서 7명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응답함.
-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는 응답은 남성(79.0%),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져 20대(93.4%)와 30대(91.4%),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80.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 현재 건강상태

(N=1,200 / 단위: %)



주: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1〉 현재 건강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체		(1,200)	74.1	22.3	3.7
성별	남성	(594)	79.0	18.0	3.0
	여성	(606)	69.3	26.4	4.3
연령	20대	(197)	93.4	6.1	0.5
	30대	(222)	91.4	7.7	0.9
	40대	(258)	78.7	19.0	2.3
	50대	(240)	68.8	26.7	4.6
	60대 이상	(283)	47.3	44.2	8.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74.2	23.1	2.7
	중·소도시	(553)	75.4	20.8	3.8
	군지역	(97)	66.0	25.8	8.2
직업	화이트칼라	(368)	89.4	10.3	0.3
	블루칼라	(294)	71.8	25.9	2.4
	농/임/어업	(27)	33.3	55.6	11.1
	자영업	(158)	68.4	26.6	5.1
	주부	(267)	64.4	28.8	6.7
	은퇴자	(12)	58.3	41.7	0.0
	학생	(38)	84.2	13.2	2.6
교육 수준	무직/기타	(36)	58.3	25.0	16.7
	중졸 이하	(101)	37.6	46.5	15.8
	고졸	(482)	66.0	30.5	3.5
	대재 이상	(547)	87.6	11.0	1.5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70)	77.1	18.6	4.3
	저소득	(266)	54.1	37.6	8.3
	중소득	(622)	79.4	18.3	2.3
	고소득	(312)	80.4	17.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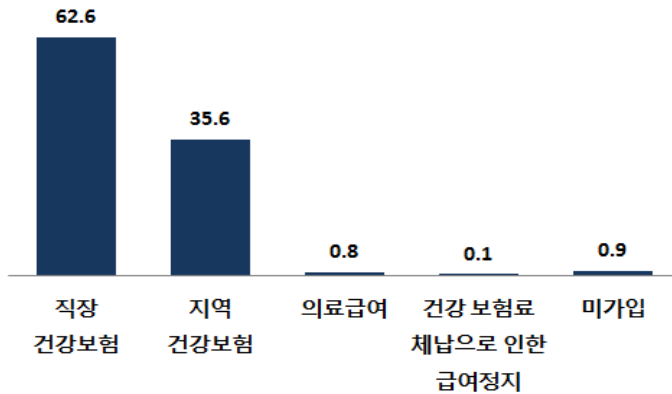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종류로는 직장 건강보험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건강보험(35.6%), 의료급여(0.8%) 등의 순으로 나타남(미가입: 0.9%).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직장생활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20대(84.3%)와 30대(85.6%), 40대(69.0%), 화이트칼라(94.0%)와 블루칼라(71.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N=1,200 / 단위: %)



〈표 IV-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의료 급여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미가입
전체		(1,200)	62.6	35.6	0.8	0.1	0.9
성별	남성	(594)	65.8	32.8	0.5	0.2	0.7
	여성	(606)	59.4	38.3	1.2	0.0	1.2
연령	20대	(197)	84.3	14.7	0.0	0.0	1.0
	30대	(222)	85.6	12.2	0.5	0.0	1.8
	40대	(258)	69.0	29.5	0.4	0.4	0.8
	50대	(240)	52.1	46.7	0.8	0.0	0.4
	60대 이상	(283)	32.5	64.7	2.1	0.0	0.7
지역 규모	대도시	(550)	65.6	33.1	0.0	0.0	1.3
	중·소도시	(553)	64.2	34.4	0.7	0.0	0.7
	군지역	(97)	36.1	56.7	6.2	1.0	0.0

〈표 IV-2〉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의료 급여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미가입
직업	화이트칼라	(368)	94.0	5.4	0.3	0.0	0.3
	블루칼라	(294)	71.4	26.9	0.3	0.3	1.0
	농/임/어업	(27)	14.8	81.5	3.7	0.0	0.0
	자영업	(158)	8.9	89.9	1.3	0.0	0.0
	주부	(267)	52.4	45.7	0.7	0.0	1.1
	은퇴자	(12)	8.3	83.3	0.0	0.0	8.3
	학생	(38)	55.3	39.5	0.0	0.0	5.3
	무직/기타	(36)	41.7	47.2	8.3	0.0	2.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30.7	63.4	5.0	0.0	1.0
	고졸	(482)	47.9	50.2	0.8	0.2	0.8
	대재 이상	(547)	81.4	17.6	0.2	0.0	0.9
	모름/무응답	(70)	62.9	35.7	0.0	0.0	1.4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8.0	57.5	2.6	0.4	1.5
	중소득	(622)	68.2	30.2	0.5	0.0	1.1
	고소득	(312)	72.4	27.6	0.0	0.0	0.0

주: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했다 68.3%(개인 실손의료보험 67.7% + 단체 실손의료보험 0.7%)로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는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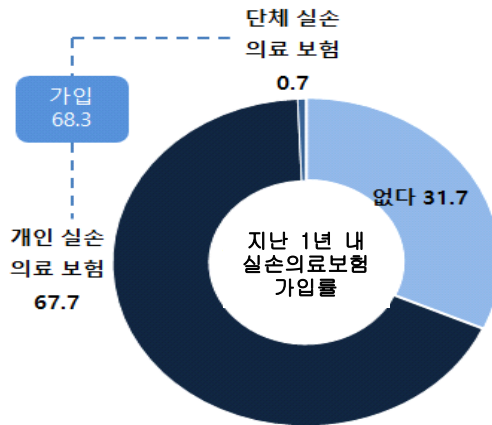
○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0대(51.2%), 농/임/어업(6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입했다는 응답은 30대(77.1%), 40대(76.0%), 화이트칼라(77.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30대(76.6%), 50대(75.4%), 화이트칼라(75.3%), 고소득층(76.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N=1,200 / 단위: %)



〈표 IV-3〉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	
전체		(1,200)	67.7	0.7	31.7
성별	남성	(594)	66.2	1.2	32.7
	여성	(606)	69.1	0.2	30.7
연령	20대	(197)	67.0	1.0	32.0
	30대	(222)	76.6	0.5	23.0
	40대	(258)	74.4	1.6	24.0
	50대	(240)	75.4	0.0	24.6
	60대 이상	(283)	48.4	0.4	51.2
지역 규모	대도시	(550)	69.8	1.1	29.1
	중·소도시	(553)	68.2	0.4	31.5
	군지역	(97)	52.6	0.0	47.4

〈표 IV-3〉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	
직업	화이트칼라	(368)	75.3	1.9	22.8
	블루칼라	(294)	66.3	0.3	33.3
	농/임/어업	(27)	33.3	0.0	66.7
	자영업	(158)	68.4	0.0	31.6
	주부	(267)	68.5	0.0	31.5
	은퇴자	(12)	50.0	0.0	50.0
	학생	(38)	57.9	0.0	42.1
	무직/기타	(36)	33.3	0.0	6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4.8	0.0	75.2
	고졸	(482)	70.5	0.2	29.3
	대재 이상	(547)	74.0	1.1	24.9
	모름/무응답	(70)	60.0	1.4	38.6
가구 소득	저소득	(266)	44.7	0.0	55.3
	중소득	(622)	72.8	0.5	26.7
	고소득	(312)	76.9	1.6	21.5

주: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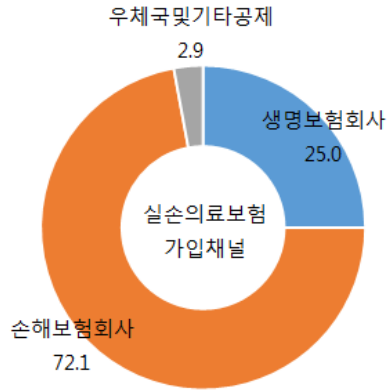
라.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72.1%), 생명보험사(25.0%), 우체국 및 기타 공제(2.9%)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라는 응답은 대도시보다는 지방일수록 높아져 군지역(76.5%),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져 저소득(79.8%)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N=820 / 단위: %)



〈표 IV-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전체		(820)	25.0	72.1	2.9
성별	남성	(400)	25.8	72.0	2.3
	여성	(420)	24.3	72.1	3.6
연령	20대	(134)	23.1	73.1	3.7
	30대	(171)	26.9	69.6	3.5
	40대	(196)	26.5	71.9	1.5
	50대	(181)	22.7	73.5	3.9
	60대 이상	(138)	25.4	72.5	2.2
지역 규모	대도시	(390)	26.4	70.5	3.1
	중·소도시	(379)	24.0	73.1	2.9
	군지역	(51)	21.6	76.5	2.0
직업	화이트칼라	(284)	27.5	69.7	2.8
	블루칼라	(196)	23.5	74.0	2.6
	농/임/어업	(9)	22.2	77.8	0.0
	자영업	(108)	25.9	68.5	5.6
	주부	(183)	23.5	74.3	2.2
	은퇴자	(6)	16.7	83.3	0.0
	학생	(22)	27.3	68.2	4.5
	무직/기타	(12)	8.3	91.7	0.0

〈표 IV-4〉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20.0	76.0	4.0
	고졸	(341)	21.4	76.0	2.6
	대재 이상	(411)	27.5	70.1	2.4
	모름/무응답	(43)	32.6	58.1	9.3
가구 소득	저소득	(119)	17.6	79.8	2.5
	중소득	(456)	23.5	73.7	2.9
	고소득	(245)	31.4	65.3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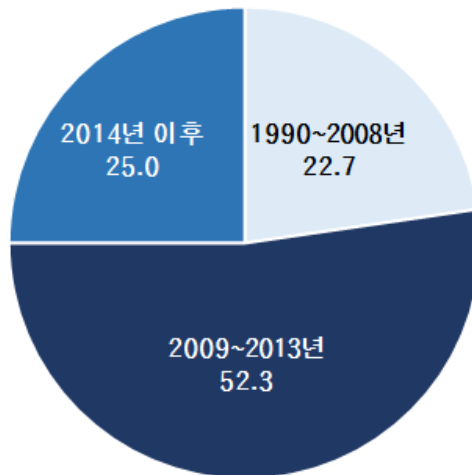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마.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한 결과, 상품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 (2009~2013년: 52.3%)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가입 시기가 2009~2013년이라는 응답은 30대(60.8%), 화이트칼라(57.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N=820 / 단위: %)



〈표 IV-5〉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2008년 이전	2009~2013년	2014년 이후
전체		(820)	22.7	52.3	25.0
성별	남성	(400)	24.5	52.0	23.5
	여성	(420)	21.0	52.6	26.4
연령	20대	(134)	3.7	57.5	38.8
	30대	(171)	11.1	60.8	28.1
	40대	(196)	27.0	49.5	23.5
	50대	(181)	26.0	51.9	22.1
	60대 이상	(138)	44.9	41.3	13.8
지역 규모	대도시	(390)	22.8	47.7	29.5
	중·소도시	(379)	23.0	56.2	20.8
	군지역	(51)	19.6	58.8	21.6
직업	화이트칼라	(284)	19.7	57.0	23.2
	블루칼라	(196)	21.4	52.6	26.0
	농/임/어업	(9)	33.3	44.4	22.2
	자영업	(108)	26.9	50.9	22.2
	주부	(183)	25.1	47.5	27.3
	은퇴자	(6)	83.3	0.0	16.7
	학생	(22)	9.1	54.5	36.4
	무직/기타	(12)	25.0	50.0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28.0	60.0	12.0
	고졸	(341)	25.5	49.0	25.5
	대재 이상	(411)	20.7	54.3	25.1
	모름/무응답	(43)	16.3	55.8	27.9
가구 소득	저소득	(119)	27.7	48.7	23.5
	중소득	(456)	19.3	57.0	23.7
	고소득	(245)	26.5	45.3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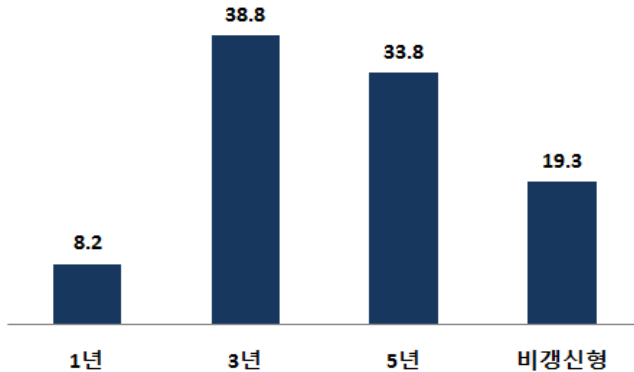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에 대해서 3년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33.8%), 비갱신형(19.3%), 1년(8.2%)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가 3년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 20대(45.5%), 블루칼라(4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N=820 / 단위: %)



〈표 IV-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3년	5년	비갱신형
전체		(820)	8.2	38.8	33.8	19.3
성별	남성	(400)	7.3	39.0	34.3	19.5
	여성	(420)	9.0	38.6	33.3	19.0
연령	20대	(134)	11.9	45.5	30.6	11.9
	30대	(171)	11.7	43.3	31.6	13.5
	40대	(196)	4.1	36.2	38.8	20.9
	50대	(181)	7.7	35.9	33.1	23.2
	60대 이상	(138)	6.5	34.1	33.3	26.1
지역 규모	대도시	(390)	8.7	47.9	29.7	13.6
	중·소도시	(379)	6.3	27.4	40.6	25.6
	군지역	(51)	17.6	52.9	13.7	15.7

〈표 IV-6〉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1년	3년	5년	비갱신형
직업	화이트칼라	(284)	11.3	38.4	34.9	15.5
	블루칼라	(196)	9.2	44.9	31.1	14.8
	농/임/어업	(9)	0.0	44.4	33.3	22.2
	자영업	(108)	3.7	35.2	33.3	27.8
	주부	(183)	7.1	37.7	32.2	23.0
	은퇴자	(6)	0.0	0.0	66.7	33.3
	학생	(22)	0.0	27.3	45.5	27.3
	무직/기타	(12)	0.0	33.3	41.7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4.0	40.0	36.0	20.0
	고졸	(341)	7.6	38.4	32.3	21.7
	대재 이상	(411)	8.8	38.7	35.8	16.8
	모름/무응답	(43)	9.3	41.9	25.6	23.3
가구 소득	저소득	(119)	6.7	43.7	30.3	19.3
	중소득	(456)	8.3	39.0	35.1	17.5
	고소득	(245)	8.6	35.9	33.1	22.4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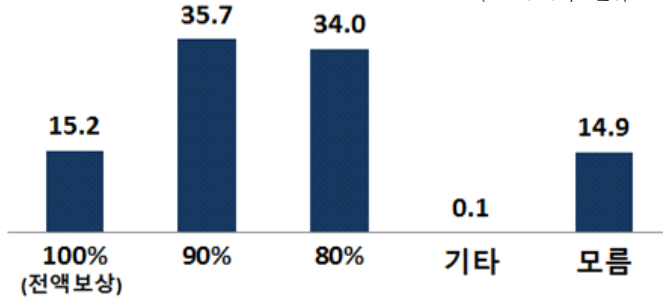
사.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보험회사 환급률)에 대해서는 90%(35.7%), 80%(34.0%), 100%(15.2%) 순으로 나타남(모름: 14.9%).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이 90%라는 응답은 50대 (38.1%), 화이트칼라(3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7〉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N=820 / 단위: %)



〈표 IV-7〉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00%	90%	80%	기타	모름
전체		(820)	15.2	35.7	34.0	0.1	14.9
성별	남성	(400)	15.5	37.3	32.5	0.0	14.8
	여성	(420)	15.0	34.3	35.5	0.2	15.0
연령	20대	(134)	8.2	34.3	42.5	0.0	14.9
	30대	(171)	11.1	36.8	39.8	0.0	12.3
	40대	(196)	18.9	35.7	31.1	0.0	14.3
	50대	(181)	17.7	38.1	28.2	0.0	16.0
	60대 이상	(138)	18.8	32.6	30.4	0.7	17.4
지역 규모	대도시	(390)	10.3	37.7	37.7	0.3	14.1
	중·소도시	(379)	19.5	33.5	32.2	0.0	14.8
	군지역	(51)	21.6	37.3	19.6	0.0	21.6
직업	화이트칼라	(284)	12.7	38.4	37.0	0.0	12.0
	블루칼라	(196)	12.8	34.2	35.7	0.5	16.8
	농/임/어업	(9)	22.2	44.4	33.3	0.0	0.0
	자영업	(108)	17.6	38.9	22.2	0.0	21.3
	주부	(183)	17.5	32.8	35.0	0.0	14.8
	은퇴자	(6)	50.0	33.3	16.7	0.0	0.0
	학생	(22)	27.3	22.7	36.4	0.0	13.6
	무직/기타	(12)	16.7	33.3	33.3	0.0	16.7

〈표 IV-7〉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100%	90%	80%	기타	모름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20.0	48.0	28.0	0.0	4.0
	고졸	(341)	17.0	36.7	30.5	0.3	15.5
	대재 이상	(411)	13.4	36.0	36.3	0.0	14.4
	모름/무응답	(43)	16.3	18.6	44.2	0.0	20.9
가구 소득	저소득	(119)	16.0	36.1	32.8	0.0	15.1
	중소득	(456)	14.7	35.5	35.5	0.2	14.0
	고소득	(245)	15.9	35.9	31.8	0.0	16.3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아.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입보험료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입보험료¹⁸⁾는 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납입보험료는 여성,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IV-8〉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입보험료

(단위: 원)

특성별		사례 수	평균 납입보험료
전체		(820)	73,524
성별	남성	(400)	73,021
	여성	(420)	74,002
연령	20대	(134)	59,389
	30대	(171)	67,085
	40대	(196)	79,034
	50대	(181)	78,182
	60대 이상	(138)	81,291
지역 규모	대도시	(390)	79,228
	중·소도시	(379)	66,836
	군지역	(51)	79,600

18) 다른 보장과 함께 특약으로 판매될 경우 대부분 전체 보험료로 응답하여, 실제 실손의료 보험 보험료가 1~3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V-8〉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평균 납입보험료
직업	화이트칼라	(284)	71,261
	블루칼라	(196)	69,755
	농/임/어업	(9)	92,333
	자영업	(108)	82,861
	주부	(183)	78,986
	은퇴자	(6)	64,217
	학생	(22)	46,523
	무직/기타	(12)	61,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84,424
	고졸	(341)	76,043
	대재 이상	(411)	71,931
	모름/무응답	(43)	62,430
가구 소득	저소득	(119)	73,450
	중소득	(456)	72,077
	고소득	(245)	76,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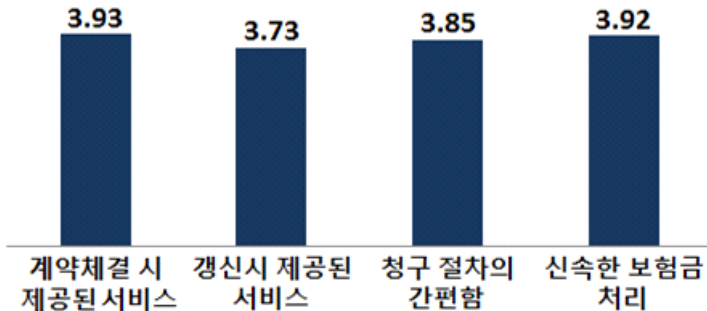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회사 서비스 만족도

- 실손의료보험 판매 회사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가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속한 보험금 처리(3.92점), 청구 절차의 간편함(3.85점)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 실손의료보험 판매 회사 서비스 만족도

(N=820, 152(보험금 처리) / 단위: 점, 5점 척도)



〈표 IV-9〉 실손의료보험 판매 회사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척도)

특성별		사례 수	계약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갱신 시 제공된 서비스	청구 절차의 간편함	신속한 보험금 처리
전체		(820)	3.93	3.73	3.85	3.92
성별	남성	(400)	3.95	3.70	3.77	3.86
	여성	(420)	3.92	3.75	3.91	3.97
연령	20대	(134)	3.93	3.76	3.81	3.88
	30대	(171)	3.96	3.71	3.75	3.79
	40대	(196)	3.92	3.72	3.85	3.98
	50대	(181)	3.88	3.65	3.85	3.79
	60대 이상	(138)	3.99	3.83	3.92	4.08
지역 규모	대도시	(390)	3.96	3.80	3.79	3.91
	중·소도시	(379)	3.91	3.66	3.88	3.91
	군지역	(51)	3.90	3.71	4.40	4.20
직업	화이트칼라	(284)	3.96	3.79	3.78	3.83
	블루칼라	(196)	3.93	3.65	3.91	3.91
	농/임/어업	(9)	3.89	3.78	4.00	3.50
	자영업	(108)	3.85	3.64	3.76	3.86
	주부	(183)	3.95	3.77	3.86	4.00
	은퇴자	(6)	4.17	4.00	4.00	4.00
	학생	(22)	3.95	3.86	4.33	4.33
	무직/기타	(12)	3.83	3.42	3.75	4.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3.84	3.60	3.78	3.89
	고졸	(341)	3.93	3.70	3.84	3.96
	대재 이상	(411)	3.95	3.75	3.88	3.91
	모름/무응답	(43)	3.86	3.77	3.75	3.50
가구 소득	저소득	(119)	3.85	3.62	3.88	4.08
	중소득	(456)	3.93	3.71	3.74	3.86
	고소득	(245)	3.98	3.81	4.00	3.94

차.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 및 이유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을 확인해본 결과, 가입자의 10명 중 1명 수준인 8.4% 정도가 해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IV-10〉 실손의료보험 해지 경험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820)	8.4	91.6
성별	남성	(400)	6.8	93.3
	여성	(420)	10.0	90.0
연령	20대	(134)	0.7	99.3
	30대	(171)	7.6	92.4
	40대	(196)	11.7	88.3
	50대	(181)	12.2	87.8
	60대 이상	(138)	7.2	92.8
지역 규모	대도시	(390)	6.7	93.3
	중·소도시	(379)	7.9	92.1
	군지역	(51)	25.5	74.5
직업	화이트칼라	(284)	4.9	95.1
	블루칼라	(196)	11.7	88.3
	농/임/어업	(9)	22.2	77.8
	자영업	(108)	11.1	88.9
	주부	(183)	9.8	90.2
	은퇴자	(6)	0.0	100.0
	학생	(22)	0.0	100.0
	무직/기타	(12)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12.0	88.0
	고졸	(341)	11.7	88.3
	대재 이상	(411)	6.3	93.7
	모름/무응답	(43)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119)	14.3	85.7
	중소득	(456)	7.5	92.5
	고소득	(245)	7.3	92.7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하다고 생각해서(18.8%), 갱신기간을 놓쳐서(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1〉 실손의료보험 해지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 부담	불필요	갱신기간 놓침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	다시 가입	만기
전체		(69)	75.4	18.8	7.2	1.4	1.4	1.4
성별	남성	(27)	74.1	25.9	7.4	0.0	3.7	0.0
	여성	(42)	76.2	14.3	7.1	2.4	0.0	2.4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0.0	0.0
	30대	(13)	61.5	30.8	7.7	0.0	0.0	0.0
	40대	(23)	78.3	17.4	4.3	0.0	4.3	0.0
	50대	(22)	77.3	13.6	13.6	4.5	0.0	4.5
	60대 이상	(10)	80.0	20.0	0.0	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26)	84.6	7.7	11.5	3.8	0.0	0.0
	중·소도시	(30)	66.7	30.0	3.3	0.0	0.0	3.3
	군지역	(13)	76.9	15.4	7.7	0.0	7.7	0.0
직업	화이트칼라	(14)	57.1	35.7	14.3	0.0	0.0	0.0
	블루칼라	(23)	87.0	8.7	0.0	0.0	0.0	4.3
	농/임/어업	(2)	100.0	0.0	0.0	0.0	0.0	0.0
	자영업	(12)	91.7	16.7	0.0	0.0	8.3	0.0
	주부	(18)	61.1	22.2	16.7	5.6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66.7	66.7	0.0	0.0	0.0	0.0
	고졸	(40)	80.0	12.5	5.0	2.5	0.0	2.5
	대재 이상	(26)	69.2	23.1	11.5	0.0	3.8	0.0
가구 소득	저소득	(17)	82.4	23.5	0.0	0.0	0.0	0.0
	중소득	(34)	70.6	20.6	8.8	0.0	2.9	2.9
	고소득	(18)	77.8	11.1	11.1	5.6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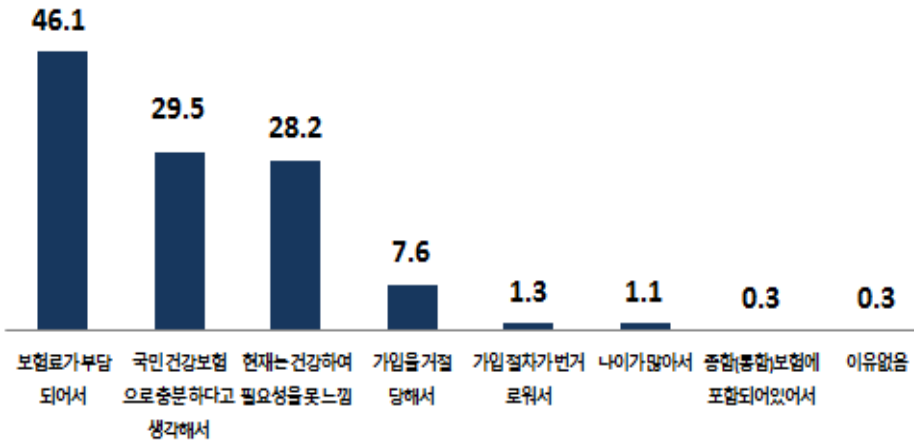
카.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9.5%),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28.2%), 가입을 거절당해서(7.6%)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은 고연령 계층(50대 50.8%, 60대 62.8%), 블루칼라(58.2%)와 주부(52.4%), 중졸 이하(68.4%), 저소득층(61.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9〉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N=731 / 단위: %)



〈표 IV-12〉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 부담	국민건강 으로 충분	필요성 못 느낌	가입 거절당함
전체		(380)	46.1	29.5	28.2	7.6
성별	남성	(194)	43.8	30.4	33.0	7.2
	여성	(186)	48.4	28.5	23.1	8.1
연령	20대	(63)	23.8	23.8	63.5	1.6
	30대	(51)	25.5	35.3	47.1	0.0
	40대	(62)	41.9	40.3	32.3	1.6
	50대	(59)	50.8	42.4	16.9	5.1
	60대 이상	(145)	62.8	20.0	9.0	16.6
지역 규모	대도시	(160)	47.5	38.8	27.5	5.6
	중·소도시	(174)	44.3	23.0	30.5	8.6
	군지역	(46)	47.8	21.7	21.7	10.9
직업	화이트칼라	(84)	25.0	31.0	52.4	1.2
	블루칼라	(98)	58.2	31.6	23.5	3.1
	농/임/어업	(18)	72.2	0.0	22.2	11.1
	자영업	(50)	46.0	46.0	20.0	6.0
	주부	(84)	52.4	31.0	11.9	14.3
	은퇴자	(6)	50.0	16.7	16.7	16.7
	학생	(16)	6.3	18.8	68.8	6.3
	무직/기타	(24)	54.2	8.3	16.7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6)	68.4	15.8	7.9	11.8
	고졸	(141)	53.9	31.9	17.7	10.6
	대재 이상	(136)	27.2	39.7	44.9	2.2
	모름/무응답	(27)	37.0	3.7	55.6	7.4
가구 소득	저소득	(147)	61.9	20.4	15.6	12.9
	중소득	(166)	39.2	33.7	34.3	4.8
	고소득	(67)	28.4	38.8	40.3	3.0

주: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13〉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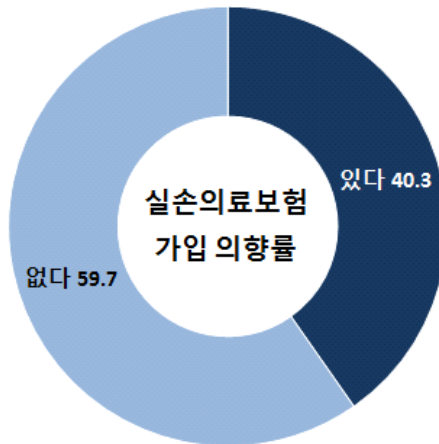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번거로운 가입절차	나이 많아서	종합(통합) 보험에 포함	이유 없음
전체		(380)	1.3	1.1	0.3	0.3
성별	남성	(194)	1.0	0.5	0.0	0.5
	여성	(186)	1.6	1.6	0.5	0.0
연령	20대	(63)	1.6	0.0	0.0	0.0
	30대	(51)	2.0	0.0	0.0	0.0
	40대	(62)	0.0	0.0	0.0	0.0
	50대	(59)	0.0	0.0	0.0	0.0
	60대 이상	(145)	2.1	2.8	0.7	0.7
지역 규모	대도시	(160)	0.6	0.0	0.6	0.0
	중·소도시	(174)	2.3	0.6	0.0	0.0
	군지역	(46)	0.0	6.5	0.0	2.2
직업	화이트칼라	(84)	0.0	0.0	0.0	0.0
	블루칼라	(98)	3.1	0.0	0.0	0.0
	농/임/어업	(18)	0.0	0.0	0.0	5.6
	자영업	(50)	0.0	0.0	2.0	0.0
	주부	(84)	1.2	2.4	0.0	0.0
	은퇴자	(6)	16.7	0.0	0.0	0.0
	학생	(16)	0.0	0.0	0.0	0.0
	무직/기타	(24)	0.0	8.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6)	3.9	5.3	0.0	1.3
	고졸	(141)	0.7	0.0	0.7	0.0
	대재 이상	(136)	0.7	0.0	0.0	0.0
	모름/무응답	(27)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47)	1.4	1.4	0.0	0.7
	중소득	(166)	1.2	0.6	0.6	0.0
	고소득	(67)	1.5	1.5	0.0	0.0

타.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0.3%로 응답자 5명 중 2명 정도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68.6%), 화이트칼라(61.9%), 대재 이상(5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0〉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

(N=380 / 단위: %)



〈표 IV-14〉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다	의향 없다
전체		(380)	40.3	59.7
성별	남성	(194)	47.4	52.6
	여성	(186)	32.8	67.2
연령	20대	(63)	60.3	39.7
	30대	(51)	68.6	31.4
	40대	(62)	45.2	54.8
	50대	(59)	35.6	64.4
	60대 이상	(145)	21.4	78.6
지역 규모	대도시	(160)	41.3	58.8
	중·소도시	(174)	43.7	56.3
	군지역	(46)	23.9	76.1
직업	화이트칼라	(84)	61.9	38.1
	블루칼라	(98)	37.8	62.2
	농/임/어업	(18)	33.3	66.7
	자영업	(50)	32.0	68.0
	주부	(84)	27.4	72.6
	은퇴자	(6)	33.3	66.7
	학생	(16)	75.0	25.0
	무직/기타	(24)	20.8	79.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6)	22.4	77.6
	고졸	(141)	32.6	67.4
	대재 이상	(136)	55.9	44.1
	모름/무응답	(27)	51.9	48.1
가구 소득	저소득	(147)	28.6	71.4
	중소득	(166)	50.0	50.0
	고소득	(67)	41.8	58.2

주: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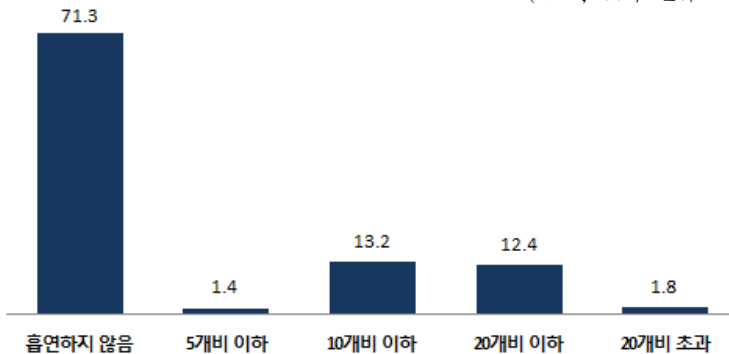
가. 흡연량

■ 흡연 여부 및 1일 흡연량을 물어본 결과 ‘흡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개비 이하 흡연’(13.2%), ‘11개비 이상 20개비 이하’(12.4%) 등의 순임.

○ ‘흡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97.7%), 60대 이상(77.0%), 주부(98.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11〉 흡연량

(N=1,200 / 단위: %)



〈표 IV-15〉 흡연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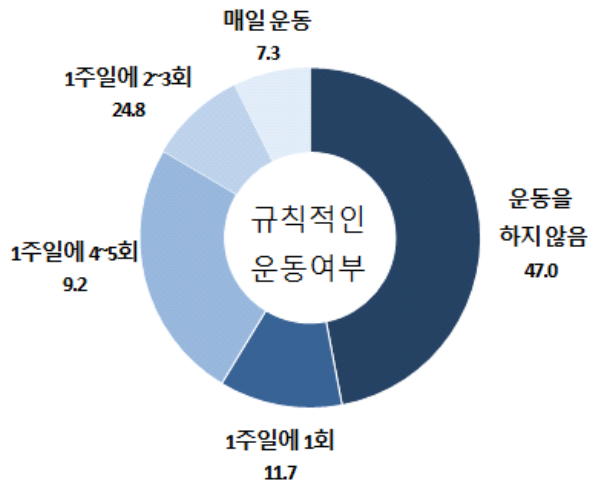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비흡연	5개비 이하	10개비 이하	20개비 이하	20개비 초과
전체		(1,200)	71.3	1.4	13.2	12.4	1.8
성별	남성	(594)	44.3	2.9	25.1	24.4	3.4
	여성	(606)	97.7	0.0	1.5	0.7	0.2
연령	20대	(197)	71.1	0.5	16.8	11.7	0.0
	30대	(222)	67.1	1.8	16.7	13.1	1.4
	40대	(258)	72.1	1.2	11.2	12.8	2.7
	50대	(240)	67.5	1.3	11.7	16.3	3.3
	60대 이상	(283)	77.0	2.1	11.0	8.8	1.1
지역 규모	대도시	(550)	70.5	0.4	12.0	14.9	2.2
	중·소도시	(553)	71.8	2.0	13.9	11.2	1.1
	군지역	(97)	72.2	4.1	15.5	5.2	3.1
직업	화이트칼라	(368)	62.8	1.4	15.2	19.6	1.1
	블루칼라	(294)	63.3	1.7	19.4	12.6	3.1
	농/임/어업	(27)	55.6	0.0	25.9	18.5	0.0
	자영업	(158)	58.2	2.5	17.1	19.6	2.5
	주부	(267)	98.5	0.0	0.7	0.4	0.4
	은퇴자	(12)	75.0	0.0	25.0	0.0	0.0
	학생	(38)	89.5	0.0	10.5	0.0	0.0
	무직/기타	(36)	69.4	8.3	5.6	8.3	8.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79.2	2.0	13.9	5.0	0.0
	고졸	(482)	74.7	1.0	10.0	12.4	1.9
	대재 이상	(547)	66.2	1.6	15.7	14.8	1.6
	모름/무응답	(70)	75.7	1.4	14.3	4.3	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73.3	1.9	12.8	9.4	2.6
	중소득	(622)	70.9	1.3	13.7	13.2	1.0
	고소득	(312)	70.2	1.3	12.5	13.5	2.6

나. 규칙적인 운동 여부(1주일 기준)

- 1주일 기준 정기적인 운동 여부를 물어본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2~3회’(24.8%), ‘주 1회’(11.7%) 등의 순임.
-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50.3%), 군지역(59.8%), 블루칼라(56.5%),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12〉 규칙적인 운동 여부

(N=1,200 / 단위: %)



〈표 IV-16〉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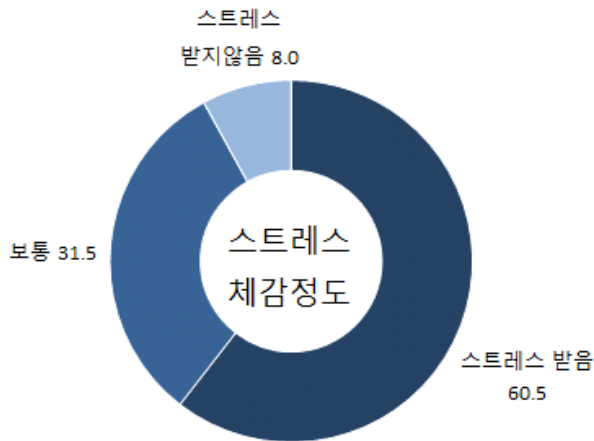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운동을 하지 않음	1주일에 1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5회	매일 운동
전체		(1,200)	47.0	11.7	24.8	9.2	7.3
성별	남성	(594)	43.6	15.8	24.9	7.6	8.1
	여성	(606)	50.3	7.6	24.8	10.7	6.6
연령	20대	(197)	45.2	9.1	25.9	13.2	6.6
	30대	(222)	45.0	13.5	27.0	9.0	5.4
	40대	(258)	48.8	12.8	24.8	7.0	6.6
	50대	(240)	49.2	12.5	21.7	9.2	7.5
	60대 이상	(283)	46.3	10.2	25.1	8.5	9.9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6.7	12.7	25.5	10.0	5.1
	중·소도시	(553)	45.0	11.6	25.5	8.3	9.6
	군지역	(97)	59.8	6.2	17.5	9.3	7.2
직업	화이트칼라	(368)	40.2	13.6	29.6	9.5	7.1
	블루칼라	(294)	56.5	12.9	20.7	5.8	4.1
	농/임/어업	(27)	66.7	3.7	14.8	11.1	3.7
	자영업	(158)	54.4	15.2	16.5	7.6	6.3
	주부	(267)	40.8	7.1	28.8	12.7	10.5
	은퇴자	(12)	8.3	8.3	50.0	0.0	33.3
	학생	(38)	47.4	10.5	21.1	7.9	13.2
	무직/기타	(36)	50.0	8.3	19.4	16.7	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66.3	3.0	18.8	7.9	4.0
	고졸	(482)	49.6	11.6	23.7	8.5	6.6
	대재 이상	(547)	42.8	12.6	28.0	10.2	6.4
	모름/무응답	(70)	34.3	17.1	17.1	7.1	2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51.5	8.6	22.9	9.4	7.5
	중소득	(622)	48.2	11.3	24.8	8.8	6.9
	고소득	(312)	40.7	15.1	26.6	9.6	8.0

다. 스트레스 체감 정도

- 평소 생활하는 동안 스트레스 체감 정도를 물어본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많이 받음+어느 정도 받음)’는 응답이 60.5%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음+전혀 받지 않음)’응답(8.0%)에 비해 매우 높았음.
- 특히, 남성(67.8%), 20대(73.6%)와 30대(67.6%), 화이트칼라(71.2%), 고소득층(70.2%)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3〉 스트레스 체감 정도

(N=1,200 / 단위: %)



〈표 IV-17〉 스트레스 체감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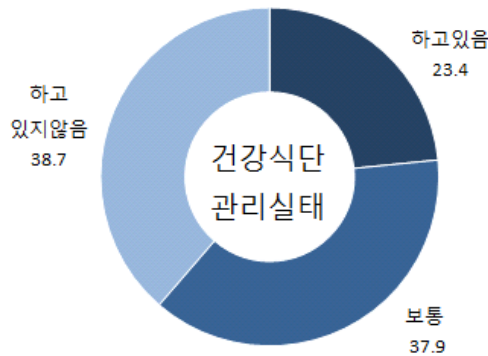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스트레스 받음	보통	스트레스 받지 않음
전체		(1,200)	60.5	31.5	8.0
성별	남성	(594)	67.8	26.4	5.7
	여성	(606)	53.3	36.5	10.2
연령	20대	(197)	73.6	22.3	4.1
	30대	(222)	67.6	25.7	6.8
	40대	(258)	65.9	28.7	5.4
	50대	(240)	63.3	30.4	6.3
	60대 이상	(283)	38.5	45.9	15.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62.2	31.1	6.7
	중·소도시	(553)	61.8	31.5	6.7
	군지역	(97)	43.3	34.0	22.7
직업	화이트칼라	(368)	71.2	25.5	3.3
	블루칼라	(294)	66.7	26.5	6.8
	농/임/어업	(27)	37.0	55.6	7.4
	자영업	(158)	65.2	25.3	9.5
	주부	(267)	43.1	44.6	12.4
	은퇴자	(12)	41.7	41.7	16.7
	학생	(38)	60.5	28.9	10.5
	무직/기타	(36)	33.3	44.4	22.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7.7	50.5	21.8
	고졸	(482)	57.9	34.2	7.9
	대재 이상	(547)	69.5	26.1	4.4
	모름/무응답	(70)	55.7	27.1	1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42.5	40.6	16.9
	중소득	(622)	63.3	29.9	6.8
	고소득	(312)	70.2	26.9	2.9

라. 건강 식단관리 실태

-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지 살펴본 결과, ‘관리하고 있다(매우 철저히 관리+어느 정도 관리)’는 응답이 23.4%로 ‘관리 하지 않는다(별로 관리 하지 않음+전혀 관리 하지 않음)’ 응답(38.7%)에 비해 다소 낮았음.
- 식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27.9%), 40대(28.7%), 고소득층(3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4〉 건강 식단관리 실태

(N=1,200 / 단위: %)



〈표 IV-18〉 건강 식단관리 실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하고 있음	보통	하고 있지 않음
전체		(1,200)	23.4	37.9	38.7
성별	남성	(594)	18.9	35.5	45.6
	여성	(606)	27.9	40.3	31.8
연령	20대	(197)	20.8	36.0	43.1
	30대	(222)	22.1	40.1	37.8
	40대	(258)	28.7	36.4	34.9
	50대	(240)	24.6	33.3	42.1
	60대 이상	(283)	20.5	42.8	36.7
지역 규모	대도시	(550)	22.9	32.9	44.2
	중·소도시	(553)	25.3	44.8	29.8
	군지역	(97)	15.5	26.8	57.7
직업	화이트칼라	(368)	22.8	38.3	38.9
	블루칼라	(294)	23.8	35.7	40.5
	농/임/어업	(27)	14.8	25.9	59.3
	자영업	(158)	17.7	37.3	44.9
	주부	(267)	28.1	43.1	28.8
	은퇴자	(12)	41.7	33.3	25.0
	학생	(38)	23.7	28.9	47.4
	무직/기타	(36)	16.7	36.1	4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5.9	43.6	50.5
	고졸	(482)	24.9	34.9	40.2
	대재 이상	(547)	25.6	39.1	35.3
	모름/무응답	(70)	21.4	41.4	3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7.3	41.7	41.0
	중소득	(622)	21.7	37.9	40.4
	고소득	(312)	32.1	34.6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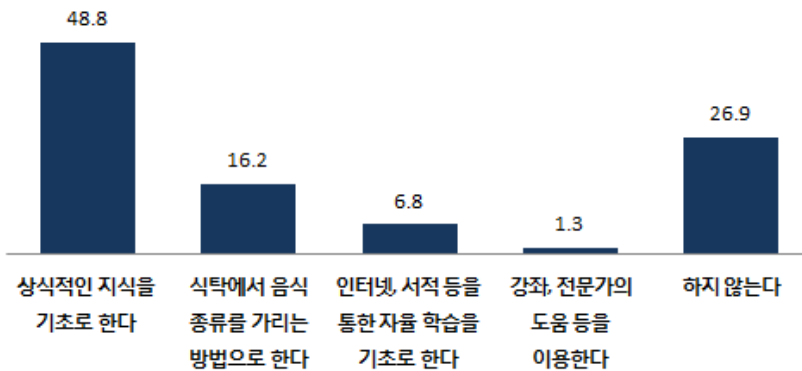
1) 식단관리 방법

■ 식단관리 방법을 살펴본 결과, 식단관리 시 ‘상식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탁에서 음식 종류를 가리는 방법으로 한다’(16.2%),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자율 학습을 기초로 한다’(6.8%) 등의 순이었음.

○ 식단관리를 ‘상식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다’는 응답은 40대(52.7%), 중·소도시(53.5%), 주부(5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5〉 식단관리 방법

(N=1,200 / 단위: %)



〈표 IV-19〉 식단관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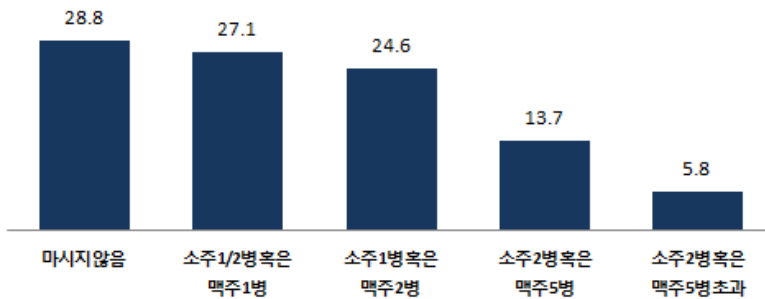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상식을 기초	음식종류 가림	학습을 기초	강좌, 전문가 등	하지 않음
전체		(1,200)	48.8	16.2	6.8	1.3	26.9
성별	남성	(594)	46.6	14.3	5.1	1.3	32.7
	여성	(606)	51.0	18.0	8.6	1.2	21.3
연령	20대	(197)	40.1	16.8	15.7	1.0	26.4
	30대	(222)	50.5	15.3	10.4	0.5	23.4
	40대	(258)	52.7	15.5	5.8	1.6	24.4
	50대	(240)	47.1	16.7	3.3	1.3	31.7
	60대 이상	(283)	51.6	16.6	1.8	1.8	28.3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6.4	14.9	6.7	1.5	30.5
	중·소도시	(553)	53.5	17.7	7.6	0.9	20.3
	군지역	(97)	36.1	14.4	3.1	2.1	44.3
직업	화이트칼라	(368)	44.8	19.0	9.8	1.6	24.7
	블루칼라	(294)	50.0	14.6	5.1	0.7	29.6
	농/임/어업	(27)	48.1	22.2	0.0	0.0	29.6
	자영업	(158)	49.4	10.1	3.8	1.3	35.4
	주부	(267)	55.4	15.7	7.1	1.9	19.9
	은퇴자	(12)	33.3	33.3	8.3	0.0	25.0
	학생	(38)	36.8	21.1	13.2	0.0	28.9
	무직/기타	(36)	47.2	13.9	0.0	0.0	38.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42.6	11.9	1.0	1.0	43.6
	고졸	(482)	49.8	18.0	3.3	1.0	27.8
	대재 이상	(547)	47.9	15.5	11.5	1.5	23.6
	모름/무응답	(70)	58.6	14.3	2.9	1.4	2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50.4	14.3	1.9	1.1	32.3
	중소득	(622)	50.2	15.3	6.3	1.4	26.8
	고소득	(312)	44.9	19.6	12.2	1.0	22.4

마. 음주량

- 1주일 기준 음주량을 살펴본 결과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주 1/2병 혹은 맥주 1병’(27.1%), ‘소주 1병 혹은 맥주 2병’(24.6%) 등의 순임.
-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45.4%), 60대 이상(43.5%), 군지역(42.3%), 주부(5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6〉 음주량

(N=1,200 / 단위: %)



〈표 IV-20〉 음주량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마시지 않음	소주 1/2병 혹은 맥주 1병	소주 1병 혹은 맥주 2병	소주 2병 혹은 맥주 5병	소주 2병 혹은 맥주 5병 초과
전체		(1,200)	28.8	27.1	24.6	13.7	5.8
성별	남성	(594)	12.0	18.7	33.2	25.1	11.1
	여성	(606)	45.4	35.3	16.2	2.5	0.7
연령	20대	(197)	12.2	34.5	32.5	15.2	5.6
	30대	(222)	23.0	28.4	25.7	17.6	5.4
	40대	(258)	28.3	28.3	22.1	14.0	7.4
	50대	(240)	31.3	21.7	24.2	15.4	7.5
	60대 이상	(283)	43.5	24.4	20.8	7.8	3.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28.2	25.8	26.5	11.6	7.8
	중·소도시	(553)	27.1	29.7	24.6	14.6	4.0
	군지역	(97)	42.3	19.6	13.4	19.6	5.2
직업	화이트칼라	(368)	14.7	24.7	31.8	19.8	9.0
	블루칼라	(294)	23.5	28.2	26.9	13.3	8.2
	농/임/어업	(27)	37.0	11.1	18.5	25.9	7.4
	자영업	(158)	27.2	15.8	30.4	20.3	6.3
	주부	(267)	50.9	35.2	12.0	1.5	0.4
	은퇴자	(12)	33.3	16.7	33.3	16.7	0.0
	학생	(38)	23.7	50.0	15.8	10.5	0.0
	무직/기타	(36)	58.3	22.2	11.1	8.3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54.5	20.8	14.9	8.9	1.0
	고졸	(482)	33.0	28.0	22.6	11.0	5.4
	대재 이상	(547)	20.8	26.7	27.8	17.2	7.5
	모름/무응답	(70)	25.7	32.9	27.1	11.4	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40.6	27.8	15.8	9.8	6.0
	중소득	(622)	26.0	28.1	26.5	14.6	4.7
	고소득	(312)	24.4	24.4	28.2	15.1	8.0

바.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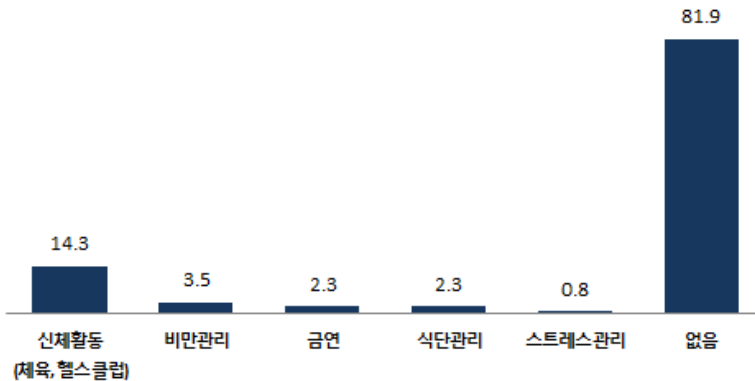
■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물어본 결과, ‘체육, 헬스클럽 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14.3%), ‘비만관리 프로그램’(3.5%), 금연(2.3%) 등의 순으로 참여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은 참여 경험이 없다(81.9%)고 응답함.

○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88.7%), 자영업자(8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7〉 건강관리 프로그램별 참여율

(N=1,200 / 단위: %)



〈표 IV-21〉 건강관리 프로그램별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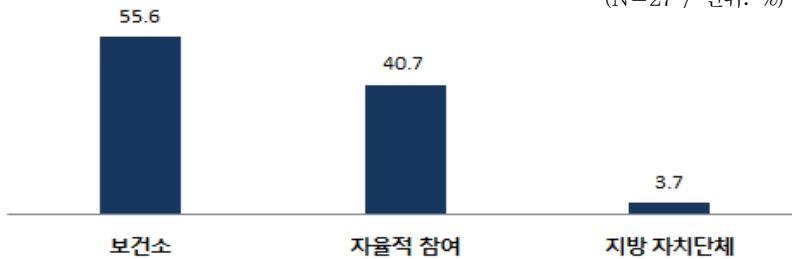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신체 활동	비만 관리	금연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없음
전체		(1,200)	14.3	3.5	2.3	2.3	0.8	81.9
성별	남성	(594)	12.8	1.7	4.4	1.2	0.8	83.0
	여성	(606)	15.7	5.3	0.2	3.3	0.7	80.9
연령	20대	(197)	15.7	4.6	2.5	1.0	1.0	79.2
	30대	(222)	15.3	3.2	2.7	2.3	0.9	81.5
	40대	(258)	12.8	4.3	1.6	2.3	0.8	82.9
	50대	(240)	13.3	3.8	3.3	3.8	0.8	81.3
	60대 이상	(283)	14.5	2.1	1.4	1.8	0.4	83.7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3.3	3.5	3.1	2.7	0.9	81.6
	중·소도시	(553)	16.1	3.8	1.8	2.0	0.5	81.0
	군지역	(97)	9.3	2.1	0.0	1.0	1.0	88.7
직업	화이트칼라	(368)	14.9	3.3	4.1	2.4	1.9	79.9
	블루칼라	(294)	12.2	4.8	1.4	2.4	0.0	84.4
	농/임/어업	(27)	3.7	0.0	3.7	0.0	0.0	92.6
	자영업	(158)	7.6	0.6	4.4	0.6	0.6	87.3
	주부	(267)	18.4	4.5	0.0	3.4	0.4	79.0
	은퇴자	(12)	33.3	0.0	0.0	0.0	0.0	66.7
	학생	(38)	15.8	5.3	0.0	0.0	0.0	81.6
	무직/기타	(36)	22.2	2.8	0.0	2.8	0.0	77.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6.9	1.0	0.0	0.0	0.0	93.1
	고졸	(482)	13.5	4.6	2.1	2.9	0.2	82.0
	대재 이상	(547)	15.4	3.5	2.9	2.4	1.5	80.4
	모름/무응답	(70)	21.4	0.0	1.4	0.0	0.0	7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1.7	1.5	1.5	0.8	0.0	87.2
	중소득	(622)	15.0	4.8	2.1	2.9	0.6	81.0
	고소득	(312)	15.1	2.6	3.2	2.2	1.6	79.2

1) 금연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금연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보건소’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정 제공 기관이 아닌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40.7%), ‘지방자치단체’(3.7%) 등의 순임.

〈그림 IV-18〉 금연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N=27 / 단위: %)



〈표 IV-22〉 금연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자율적 참여	지방자치단체
전체		(27)	55.6	40.7	3.7
성별	남성	(26)	57.7	38.5	3.8
	여성	(1)	0.0	100.0	0.0
연령	20대	(5)	40.0	60.0	0.0
	30대	(6)	50.0	33.3	16.7
	40대	(4)	50.0	50.0	0.0
	50대	(8)	62.5	37.5	0.0
	60대 이상	(4)	75.0	25.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7)	41.2	52.9	5.9
	중·소도시	(10)	80.0	2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5)	53.3	40.0	6.7
	블루칼라	(4)	75.0	25.0	0.0
	농/임/어업	(1)	100.0	0.0	0.0
	자영업	(7)	42.9	57.1	0.0
교육 수준	고졸	(10)	70.0	30.0	0.0
	대재 이상	(16)	43.8	50.0	6.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	75.0	25.0	0.0
	중소득	(13)	61.5	30.8	7.7
	고소득	(10)	40.0	60.0	0.0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30,741원이었음.

〈표 IV-23〉 금연관리 프로그램 참여 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27)	81.5	3.7	14.8	30,741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금연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7.4%로 ‘달성하지 못했다’(88.9%)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V-24〉 금연관리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달성	보통	미달성
전체	(27)	7.4	3.7	88.9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금연을 위해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남.

〈표 IV-25〉 금연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12.6	7.6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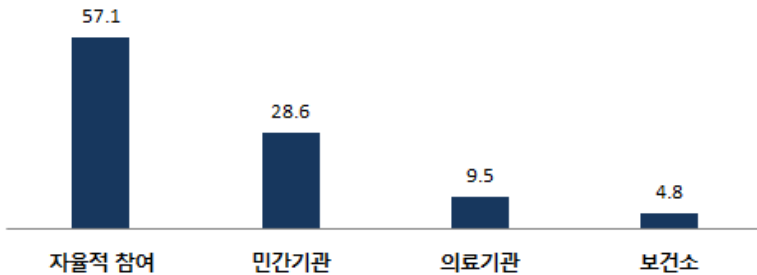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특정 제공 기관이 아닌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간기관’(28.6%), ‘의료기관’(9.5%) 등의 순임.

〈그림 IV-19〉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N=42 / 단위: %)



〈표 IV-26〉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율적 참여	민간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전체		(42)	57.1	28.6	9.5	4.8
성별	남성	(10)	50.0	30.0	0.0	20.0
	여성	(32)	59.4	28.1	12.5	0.0
연령	20대	(9)	77.8	22.2	0.0	0.0
	30대	(7)	42.9	42.9	0.0	14.3
	40대	(11)	45.5	27.3	27.3	0.0
	50대	(9)	66.7	22.2	11.1	0.0
	60대 이상	(6)	50.0	33.3	0.0	16.7
지역 규모	대도시	(19)	68.4	21.1	10.5	0.0
	중·소도시	(21)	47.6	38.1	4.8	9.5
	군지역	(2)	50.0	0.0	5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2)	66.7	25.0	8.3	0.0
	블루칼라	(14)	50.0	21.4	14.3	14.3
	자영업	(1)	100.0	0.0	0.0	0.0
	주부	(12)	41.7	50.0	8.3	0.0
	학생	(2)	10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표 IV-26〉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자율적 참여	민간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0.0	100.0	0.0	0.0
	고졸	(22)	59.1	22.7	9.1	9.1
	대재 이상	(19)	57.9	31.6	10.5	0.0
가구 소득	저소득	(4)	75.0	25.0	0.0	0.0
	중소득	(30)	53.3	30.0	10.0	6.7
	고소득	(8)	62.5	25.0	12.5	0.0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비만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200,262원이었음.

〈표 IV-27〉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 7만 원 미만	7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42)	52.4	4.8	4.8	2.4	35.7	200,262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비만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체중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4%로 ‘달성하지 못했다’(47.6%)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V-28〉 비만관리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달성	보통	미달성
전체	(42)	2.4	50.0	47.6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비만관리를 위해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남.

〈표 IV-29〉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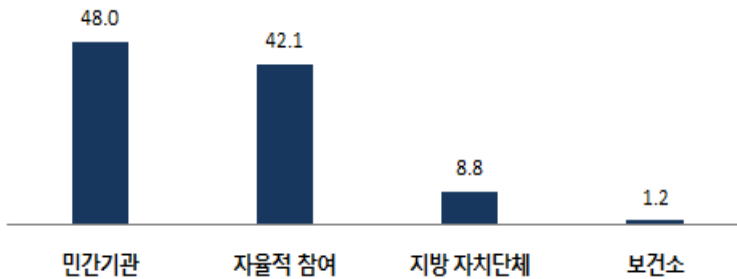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19.1	28.8	52.2

3)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민간기관’이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정 제공 기관이 아닌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42.1%), ‘지방자치단체’(8.8%) 등의 순임.

〈그림 IV-20〉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N=171 / 단위: %)



〈표 IV-30〉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민간기관	자율적 참여	지방 자치단체	보건소
전체		(171)	48.0	42.1	8.8	1.2
성별	남성	(76)	42.1	55.3	1.3	1.3
	여성	(95)	52.6	31.6	14.7	1.1
연령	20대	(31)	74.2	19.4	6.5	0.0
	30대	(34)	38.2	47.1	14.7	0.0
	40대	(33)	51.5	45.5	3.0	0.0
	50대	(32)	40.6	50.0	6.3	3.1
	60대 이상	(41)	39.0	46.3	12.2	2.4
지역 규모	대도시	(73)	42.5	46.6	9.6	1.4
	중·소도시	(89)	51.7	38.2	9.0	1.1
	군지역	(9)	55.6	44.4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55)	47.3	45.5	7.3	0.0
	블루칼라	(36)	41.7	50.0	5.6	2.8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자영업	(12)	41.7	50.0	8.3	0.0
	주부	(49)	53.1	30.6	16.3	0.0
	은퇴자	(4)	50.0	50.0	0.0	0.0
	학생	(6)	83.3	16.7	0.0	0.0
	무직/기타	(8)	25.0	62.5	0.0	1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42.9	42.9	0.0	14.3
	고졸	(65)	36.9	47.7	13.8	1.5
	대재 이상	(84)	56.0	38.1	6.0	0.0
	모름/무응답	(15)	53.3	40.0	6.7	0.0
가구 소득	저소득	(31)	35.5	51.6	9.7	3.2
	중소득	(93)	48.4	39.8	10.8	1.1
	고소득	(47)	55.3	40.4	4.3	0.0

-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292,053원이었음.

〈표 IV-31〉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참여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 7만 원 미만	7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 (원)
전체	(171)	35.7	9.9	5.3	7.0	42.1	292,053

-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2.2%로 ‘달성하지 못했다’(11.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V-32〉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달성	보통	미달성
전체	(171)	22.2	66.1	11.7

- 향후 신체활동 관리를 위해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0.3%로 나타남.

〈표 IV-33〉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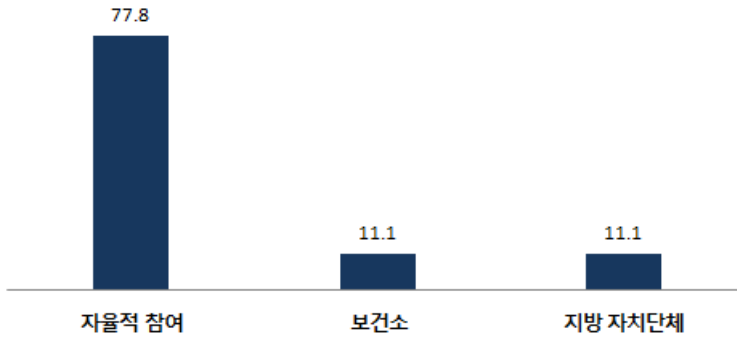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40.3	28.2	31.6

4)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 해본 결과, ‘특정 제공 기관이 아닌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소’(11.1%), ‘지방자치단체’(11.1%) 등의 순임.

〈그림 IV-21〉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N=9 / 단위: %)



〈표 IV-34〉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참여
전체		(9)	11,1	11,1	77,8
성별	남성	(5)	0,0	20,0	80,0
	여성	(4)	25,0	0,0	75,0
연령	20대	(2)	0,0	0,0	100,0
	30대	(2)	50,0	0,0	50,0
	40대	(2)	0,0	0,0	100,0
	50대	(2)	0,0	50,0	50,0
	60대 이상	(1)	0,0	0,0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5)	20,0	0,0	80,0
	중·소도시	(3)	0,0	0,0	100,0
	군지역	(1)	0,0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7)	14,3	14,3	71,4
	자영업	(1)	0,0	0,0	100,0
	주부	(1)	0,0	0,0	100,0
교육 수준	고졸	(1)	0,0	0,0	100,0
	대재 이상	(8)	12,5	12,5	75,0
가구 소득	중소득	(4)	25,0	25,0	50,0
	고소득	(5)	0,0	0,0	100,0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0.0%,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남.

〈표 IV-35〉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통	미달성
전체	(9)	88.9	11.1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5.1%로 나타남.

〈표 IV-36〉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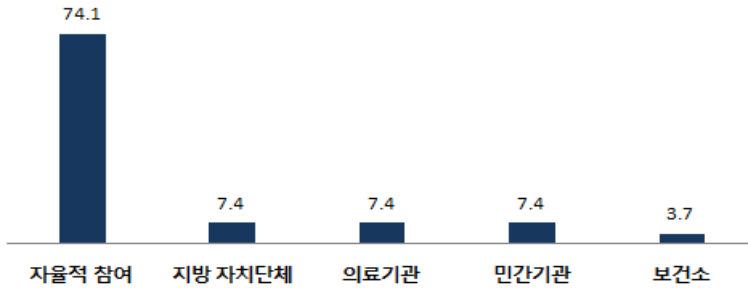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25.1	35.8	39.1

5) 식단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특정 제공 기관이 아닌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적 참가’라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7.4%), ‘의료기관’(7.4%) 등의 순임.

〈그림 IV-22〉 식단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N=27 / 단위: %)



〈표 IV-37〉 식단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지방 자치단체	의료기관	민간기관	자율적 참여
전체		(27)	3.7	7.4	7.4	7.4	74.1
성별	남성	(7)	14.3	14.3	28.6	0.0	42.9
	여성	(20)	0.0	5.0	0.0	10.0	85.0
연령	20대	(2)	0.0	0.0	0.0	0.0	100.0
	30대	(5)	0.0	20.0	0.0	20.0	60.0
	40대	(6)	0.0	0.0	16.7	0.0	83.3
	50대	(9)	0.0	11.1	11.1	11.1	66.7
	60대 이상	(5)	20.0	0.0	0.0	0.0	80.0
지역 규모	대도시	(15)	0.0	6.7	13.3	0.0	80.0
	중·소도시	(11)	9.1	0.0	0.0	18.2	72.7
	군지역	(1)	0.0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9)	0.0	22.2	11.1	0.0	66.7
	블루칼라	(7)	14.3	0.0	14.3	14.3	57.1
	자영업	(1)	0.0	0.0	0.0	0.0	100.0
	주부	(9)	0.0	0.0	0.0	11.1	88.9
	무직/기타	(1)	0.0	0.0	0.0	0.0	100.0
교육 수준	고졸	(14)	7.1	0.0	7.1	14.3	71.4
	대재 이상	(13)	0.0	15.4	7.7	0.0	76.9
가구 소득	저소득	(2)	0.0	0.0	0.0	0.0	100.0
	중소득	(18)	5.6	11.1	5.6	11.1	66.7
	고소득	(7)	0.0	0.0	14.3	0.0	85.7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식단관리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6,556원이었음.

〈표 IV-38〉 식단관리 프로그램 참여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27)	96.3	3.7	6,556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식단관리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0.0%,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4.8%였음.

〈표 IV-39〉 식단관리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통	미달성
전체	(27)	85.2	14.8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식단관리를 위해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남.

〈표 IV-40〉 식단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18.5	36.2	45.3

6) 금주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향후 금주를 위해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남.

〈표 IV-41〉 금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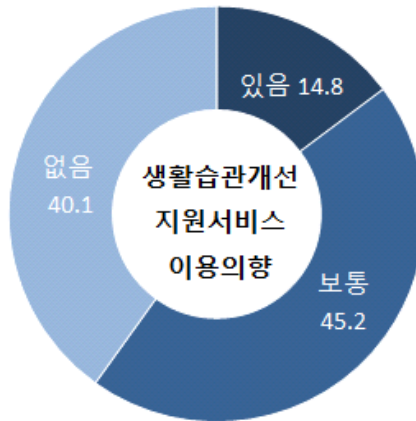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5.5	20.0	74.5

사. 향후 생활습관개선 지원 서비스 이용의향

- 향후 생활습관개선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물어본 결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1%로, ‘참여하겠다’(14.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특히, 여성(95.9%), 60대 이상(87.3%), 군지역(91.8%), 주부(97.0%)에서 ‘생활습관개선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23〉 생활습관개선 지원서비스 이용의향

(N=1,200 / 단위: %)



〈표 IV-42〉 생활습관개선 지원서비스 이용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14.8	45.2	40.1
성별	남성	(594)	14.3	45.5	40.2
	여성	(606)	15.2	44.9	39.9
연령	20대	(197)	15.2	46.7	38.1
	30대	(222)	17.6	49.1	33.3
	40대	(258)	16.7	45.7	37.6
	50대	(240)	17.9	44.6	37.5
	60대 이상	(283)	7.8	41.0	51.2

〈표 IV-42〉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6.5	46.4	37.1
	중·소도시	(553)	14.5	48.3	37.3
	군지역	(97)	6.2	20.6	73.2
직업	화이트칼라	(368)	18.8	51.6	29.6
	블루칼라	(294)	15.0	40.8	44.2
	농/임/어업	(27)	0.0	25.9	74.1
	자영업	(158)	8.9	43.0	48.1
	주부	(267)	15.4	45.3	39.3
	은퇴자	(12)	8.3	50.0	41.7
	학생	(38)	13.2	52.6	34.2
	무직/기타	(36)	8.3	27.8	63.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5.0	26.7	68.3
	고졸	(482)	13.9	44.0	42.1
	대재 이상	(547)	18.3	49.5	32.2
	모름/무응답	(70)	7.1	45.7	4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9.8	39.5	50.8
	중소득	(622)	15.6	46.3	38.1
	고소득	(312)	17.3	47.8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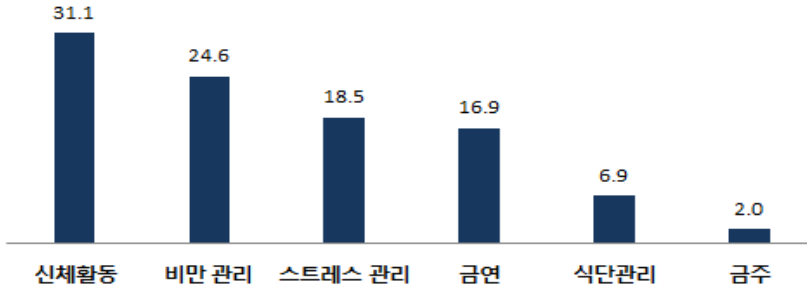
1)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이용 시 희망 프로그램(1순위)

■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이용 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만관리 서비스’(24.6%), ‘스트레스관리 서비스’(18.5%)의 순이었음.

○ 특히, 20대(40.1%)와 60대 이상(38.2%), 군지역(36.1%), 중졸 이하(48.5%)에서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4〉 희망 프로그램 1순위

(N=1,200 / 단위: %)



〈표 IV-43〉 희망 프로그램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신체활동	비만관리	스트레스 관리	금연	식단관리	금주
전체		(1,200)	31.1	24.6	18.5	16.9	6.9	2.0
성별	남성	(594)	24.9	11.8	21.7	32.3	5.6	3.7
	여성	(606)	37.1	37.1	15.3	1.8	8.3	0.3
연령	20대	(197)	40.1	23.9	15.7	12.7	6.1	1.5
	30대	(222)	26.1	23.9	25.2	20.7	3.6	0.5
	40대	(258)	22.1	29.5	19.8	17.4	7.8	3.5
	50대	(240)	29.6	24.6	16.3	20.4	6.7	2.5
	60대 이상	(283)	38.2	21.2	15.9	13.4	9.5	1.8
지역 규모	대도시	(550)	30.2	24.4	16.9	19.3	8.0	1.3
	중·소도시	(553)	31.1	25.9	20.4	14.6	5.4	2.5
	군지역	(97)	36.1	18.6	16.5	16.5	9.3	3.1
직업	화이트칼라	(368)	28.3	22.8	19.0	22.0	5.4	2.4
	블루칼라	(294)	29.6	20.1	18.4	21.4	9.5	1.0
	농/임/어업	(27)	37.0	7.4	14.8	25.9	3.7	11.1
	자영업	(158)	24.7	17.1	24.1	24.1	6.3	3.8
	주부	(267)	35.2	40.4	15.4	1.1	7.9	0.0
	은퇴자	(12)	58.3	8.3	0.0	33.3	0.0	0.0
	학생	(38)	47.4	28.9	15.8	2.6	2.6	2.6
	무직/기타	(36)	38.9	8.3	25.0	16.7	5.6	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48.5	15.8	16.8	11.9	3.0	4.0
	고졸	(482)	28.2	27.2	16.6	16.6	9.8	1.7
	대재 이상	(547)	29.3	24.3	20.1	19.2	5.5	1.6
	모름/무응답	(70)	40.0	21.4	21.4	8.6	4.3	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8.0	15.0	20.3	15.4	8.3	3.0
	중소득	(622)	27.3	29.3	17.2	18.0	6.6	1.6
	고소득	(312)	32.7	23.4	19.6	16.0	6.4	1.9

3.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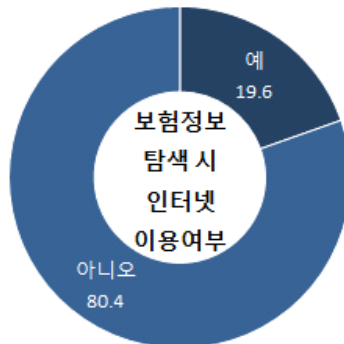
가. 보험 정보 탐색 시 인터넷 이용 여부

■ 인터넷에서 보험료나 보험 상품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4%로, ‘이용 경험이 있다’(19.6%)는 응답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특히, 50대(89.6%)와 60대 이상(97.5%), 자영업자(88.6%)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정보 검색 경험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25〉 보험 정보 탐색 시 인터넷 이용 여부

(N=1,200 / 단위: %)



〈표 IV-44〉 보험 정보 탐색 시 인터넷 이용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200)	19.6	80.4
성별	남성	(594)	20.4	79.6
	여성	(606)	18.8	81.2
연령	20대	(197)	29.9	70.1
	30대	(222)	36.5	63.5
	40대	(258)	24.4	75.6
	50대	(240)	10.4	89.6
	60대 이상	(283)	2.5	97.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9.8	80.2
	중·소도시	(553)	19.9	80.1
	군지역	(97)	16.5	83.5
직업	화이트칼라	(368)	30.2	69.8
	블루칼라	(294)	19.0	81.0
	농/임/어업	(27)	7.4	92.6
	자영업	(158)	11.4	88.6
	주부	(267)	16.1	83.9
	은퇴자	(12)	0.0	100.0
	학생	(38)	5.3	94.7
	무직/기타	(36)	8.3	9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0	99.0
	고졸	(482)	14.5	85.5
	대재 이상	(547)	26.9	73.1
	모름/무응답	(70)	24.3	75.7
가구 소득	저소득	(266)	7.5	92.5
	중소득	(622)	24.1	75.9
	고소득	(312)	20.8	79.2

1) 보험 정보 탐색 사이트 유형

■ 보험 정보 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검색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27.7%), ‘보험 관련 커뮤니티’(6.4%)등의 순이었음.

〈표 IV-45〉 보험 정보 탐색 시 이용 사이트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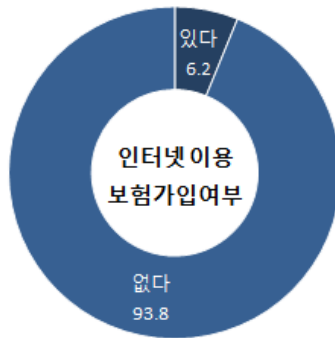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검색포털 사이트	보험회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보험 다모아	블로그
전체		(235)	61.7	27.7	6.4	3.4	1.7
성별	남성	(121)	56.2	33.1	7.4	2.5	.8
	여성	(114)	67.5	21.9	5.3	4.4	2.6
연령	20대	(59)	59.3	28.8	8.5	3.4	0.0
	30대	(81)	64.2	25.9	6.2	3.7	0.0
	40대	(63)	65.1	22.2	7.9	3.2	4.8
	50대	(25)	60.0	32.0	0.0	4.0	4.0
	60대 이상	(7)	28.6	71.4	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09)	52.3	37.6	4.6	2.8	2.8
	중·소도시	(110)	68.2	21.8	8.2	2.7	0.9
	군지역	(16)	81.3	0.0	6.3	12.5	0.0
직업	화이트칼라	(111)	61.3	27.9	6.3	4.5	1.8
	블루칼라	(56)	66.1	25.0	7.1	0.0	1.8
	농/임/어업	(2)	100.0	0.0	0.0	0.0	0.0
	자영업	(18)	27.8	50.0	16.7	5.6	0.0
	주부	(43)	67.4	23.3	2.3	4.7	2.3
	학생	(2)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3)	66.7	33.3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0.0	100.0	0.0	0.0	0.0
	고졸	(70)	58.6	28.6	7.1	1.4	4.3
	대재 이상	(147)	61.9	28.6	6.1	4.1	0.7
	모름/무응답	(17)	76.5	11.8	5.9	5.9	0.0
가구 소득	저소득	(20)	60.0	40.0	0.0	0.0	0.0
	중소득	(150)	60.7	27.3	7.3	3.3	2.7
	고소득	(65)	64.6	24.6	6.2	4.6	0.0

나.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여부

-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입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6.2%로 ‘가입한 적이 없다’(93.8%)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경험은 20대(1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26〉 인터넷 이용 보험 가입 여부

(N=1,200 / 단위: %)



〈표 IV-46〉 인터넷 이용 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200)	6.2	93.8
성별	남성	(594)	8.4	91.6
	여성	(606)	4.0	96.0
연령	20대	(197)	10.2	89.8
	30대	(222)	9.9	90.1
	40대	(258)	5.8	94.2
	50대	(240)	5.0	95.0
	60대 이상	(283)	1.8	98.2
지역 규모	대도시	(550)	6.7	93.3
	중·소도시	(553)	5.6	94.4
	군지역	(97)	6.2	93.8
직업	화이트칼라	(368)	9.2	90.8
	블루칼라	(294)	8.2	91.8
	농/임/어업	(27)	3.7	96.3
	자영업	(158)	5.1	94.9
	주부	(267)	2.2	97.8
	은퇴자	(12)	0.0	100.0
	학생	(38)	0.0	100.0
	무직/기타	(36)	2.8	9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0	98.0
	고졸	(482)	5.0	95.0
	대재 이상	(547)	8.0	92.0
	모름/무응답	(70)	5.7	9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4.1	95.9
	중소득	(622)	7.2	92.8
	고소득	(312)	5.8	94.2

1)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 해지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인터넷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의 해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기존 보험을 해지했다’는 응답은 21.6%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78.4%)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V-47〉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 해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74)	21.6	78.4
성별	남성	(50)	24.0	76.0
	여성	(24)	16.7	83.3
연령	20대	(20)	10.0	90.0
	30대	(22)	27.3	72.7
	40대	(15)	13.3	86.7
	50대	(12)	41.7	58.3
	60대 이상	(5)	20.0	80.0
지역 규모	대도시	(37)	13.5	86.5
	중·소도시	(31)	35.5	64.5
	군지역	(6)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34)	14.7	85.3
	블루칼라	(24)	37.5	62.5
	농/임/어업	(1)	0.0	100.0
	자영업	(8)	25.0	75.0
	주부	(6)	0.0	100.0
	무직/기타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50.0	50.0
	고졸	(24)	29.2	70.8
	대재 이상	(44)	15.9	84.1
	모름/무응답	(4)	25.0	75.0
가구 소득	저소득	(11)	27.3	72.7
	중소득	(45)	20.0	80.0
	고소득	(18)	22.2	77.8

2) 보험 가입 시 인터넷 미이용 이유

■ 보험 가입 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보험 가입 시 신뢰성이 걱정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설계사 등과의 대면 면접이 익숙하기 때문에’(20.3%), ‘인터넷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14.1%) 등의 순이었음.

〈표 IV-48〉 보험 가입 시 인터넷 미이용 이유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신뢰성 걱정	대면가입 익숙	인터넷 사용 어려움	정보검색 시간 오래 걸림	설치 복잡
전체		(1,126)	21.6	20.3	14.1	12.9	5.2
성별	남성	(544)	21.3	21.9	11.4	14.2	5.0
	여성	(582)	21.8	18.9	16.7	11.7	5.5
연령	20대	(177)	24.3	21.5	1.1	18.6	3.4
	30대	(200)	25.0	24.0	5.0	14.5	5.0
	40대	(243)	25.1	22.2	8.2	16.5	4.5
	50대	(228)	20.6	20.2	17.1	10.1	5.7
	60대 이상	(278)	15.1	15.5	31.7	7.2	6.8
지역 규모	대도시	(513)	20.7	20.9	15.4	12.9	4.9
	중·소도시	(522)	24.3	17.8	12.8	12.6	4.8
	군지역	(91)	11.0	31.9	14.3	14.3	9.9
직업	화이트칼라	(334)	26.6	27.5	3.3	16.2	3.9
	블루칼라	(270)	19.3	17.0	17.4	14.4	5.6
	농/임/어업	(26)	15.4	34.6	26.9	3.8	11.5
	자영업	(150)	20.7	15.3	21.3	9.3	4.0
	주부	(261)	20.3	17.2	18.4	11.1	6.9
	은퇴자	(12)	41.7	16.7	25.0	0.0	8.3
	학생	(38)	21.1	15.8	2.6	18.4	5.3
	무직/기타	(35)	2.9	17.1	28.6	2.9	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9)	9.1	13.1	36.4	3.0	4.0
	고졸	(458)	19.7	17.5	20.1	13.5	5.7
	대재 이상	(503)	26.2	25.4	4.2	14.3	4.8
	모름/무응답	(66)	18.2	12.1	15.2	12.1	7.6
가구 소득	저소득	(255)	14.9	14.1	29.4	9.8	5.9
	중소득	(577)	22.4	20.8	10.7	14.6	4.5
	고소득	(294)	25.9	24.8	7.5	12.2	6.1

〈표 IV-49〉 보험 가입 시 인터넷 미이용 이유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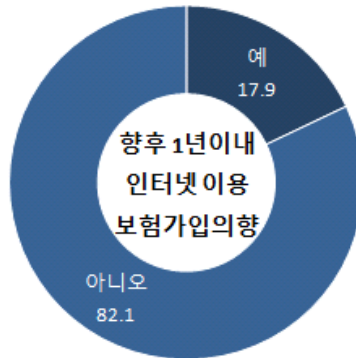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부모님 관리	나중에 보장내용 다들 것 같아서	유선이 편함	보험 가입 의향 없음
전체		(1,126)	0.2	0.1	0.1	25.7
성별	남성	(544)	0.0	0.0	0.2	26.5
	여성	(582)	0.3	0.2	0.0	24.9
연령	20대	(177)	1.1	0.0	0.0	29.9
	30대	(200)	0.0	0.0	0.0	27.0
	40대	(243)	0.0	0.0	0.4	23.0
	50대	(228)	0.0	0.4	0.0	25.9
	60대 이상	(278)	0.0	0.0	0.0	24.1
지역 규모	대도시	(513)	0.0	0.0	0.0	25.3
	중·소도시	(522)	0.4	0.2	0.2	27.2
	군지역	(91)	0.0	0.0	0.0	18.7
직업	화이트칼라	(334)	0.3	0.0	0.0	22.2
	블루칼라	(270)	0.0	0.4	0.4	25.9
	농/임/어업	(26)	0.0	0.0	0.0	7.7
	자영업	(150)	0.0	0.0	0.0	30.0
	주부	(261)	0.0	0.0	0.0	26.1
	은퇴자	(12)	0.0	0.0	0.0	8.3
	학생	(38)	2.6	0.0	0.0	34.2
	무직/기타	(35)	0.0	0.0	0.0	45.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9)	0.0	0.0	0.0	35.4
	고졸	(458)	0.2	0.2	0.0	23.1
	대재 이상	(503)	0.2	0.0	0.2	24.7
	모름/무응답	(66)	0.0	0.0	0.0	36.4
가구 소득	저소득	(255)	0.0	0.0	0.0	26.3
	중소득	(577)	0.3	0.2	0.2	26.5
	고소득	(294)	0.0	0.0	0.0	23.5

다. 향후 1년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의향

- 향후 1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의향을 물어본 결과,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17.9%로 ‘가입하지 않겠다’(82.1%)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20대(38.1%)와 30대(29.3%), 화이트칼라(31.5%), 대재 이상(2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27〉 향후 1년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의향

(N=1,200 / 단위: %)



〈표 IV-50〉 향후 1년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200)	17.9	82.1
성별	남성	(594)	20.2	79.8
	여성	(606)	15.7	84.3
연령	20대	(197)	38.1	61.9
	30대	(222)	29.3	70.7
	40대	(258)	18.6	81.4
	50대	(240)	7.9	92.1
	60대 이상	(283)	2.8	97.2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8.9	81.1
	중·소도시	(553)	18.6	81.4
	군지역	(97)	8.2	91.8
직업	화이트칼라	(368)	31.5	68.5
	블루칼라	(294)	17.7	82.3
	농/임/어업	(27)	3.7	96.3
	자영업	(158)	8.9	91.1
	주부	(267)	8.2	91.8
	은퇴자	(12)	0.0	100.0
	학생	(38)	18.4	81.6
	무직/기타	(36)	8.3	9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0.0	100.0
	고졸	(482)	10.8	89.2
	대재 이상	(547)	27.4	72.6
	모름/무응답	(70)	18.6	81.4
가구 소득	저소득	(266)	6.8	93.2
	중소득	(622)	18.5	81.5
	고소득	(312)	26.3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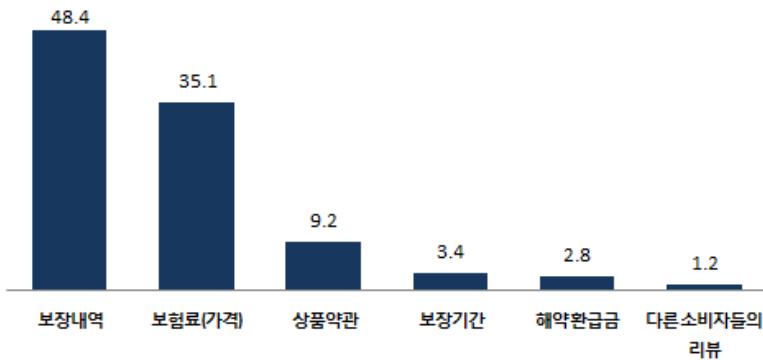
라.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1순위)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보장 내역’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험료(가격)’(35.1%), ‘상품 약관’(9.2%) 등의 순임.

○ 보장 내역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40대(60.1%), 자영업자(5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28〉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1순위)

(N=1,200 / 단위: %)



〈표 IV-51〉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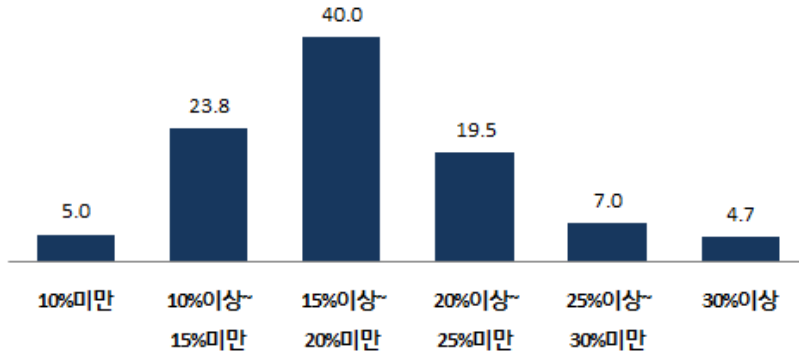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보장 내역	보험료 (가격)	상품 약관	보장 기간	해약 환급금	다른 소비자 리뷰
전체		(1,200)	48.4	35.1	9.2	3.4	2.8	1.2
성별	남성	(594)	50.0	34.3	8.2	3.5	3.2	0.7
	여성	(606)	46.9	35.8	10.1	3.3	2.3	1.7
연령	20대	(197)	44.7	35.0	13.2	3.0	2.0	2.0
	30대	(222)	43.2	35.6	10.8	5.0	4.1	1.4
	40대	(258)	60.1	24.8	7.8	2.3	3.1	1.9
	50대	(240)	49.6	35.8	7.1	3.8	2.9	0.8
	60대 이상	(283)	43.5	43.5	8.1	3.2	1.8	0.0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3.3	38.7	10.2	3.3	3.1	1.5
	중·소도시	(553)	53.7	30.7	8.9	3.3	2.5	.9
	군지역	(97)	47.4	39.2	5.2	5.2	2.1	1.0
직업	화이트칼라	(368)	49.7	31.8	9.8	2.7	3.8	2.2
	블루칼라	(294)	48.0	41.2	6.1	2.4	2.0	0.3
	농/임/어업	(27)	33.3	63.0	3.7	0.0	0.0	0.0
	자영업	(158)	52.5	33.5	5.7	5.7	1.9	.6
	주부	(267)	46.1	33.0	12.7	4.1	3.0	1.1
	은퇴자	(12)	50.0	8.3	41.7	0.0	0.0	0.0
	학생	(38)	50.0	28.9	10.5	7.9	0.0	2.6
	무직/기타	(36)	47.2	36.1	8.3	2.8	5.6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39.6	51.5	4.0	1.0	4.0	0.0
	고졸	(482)	50.6	35.1	8.3	2.9	2.1	1.0
	대재 이상	(547)	48.4	32.7	10.2	3.8	3.1	1.6
	모름/무응답	(70)	45.7	30.0	14.3	7.1	2.9	0.0
가구 소득	저소득	(266)	46.6	41.0	7.9	2.3	2.3	0.0
	중소득	(622)	49.8	32.6	8.8	4.7	2.7	1.3
	고소득	(312)	47.1	34.9	10.9	1.9	3.2	1.9

마.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 보험료 할인율

-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하는 보험료 할인율을 살펴본 결과, ‘15% 이상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 이상 15% 미만’(23.8%), ‘20% 이상 25% 미만’(19.5%)등의 순임.

〈그림 IV-29〉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 보험료 할인율

(N=1,200 / 단위: %)



〈표 IV-52〉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희망 보험료 할인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0% 미만	10 ~15%	15 ~20%	20 ~25%	25 ~30%	30% 이상
전체		(1,200)	5.0	23.8	40.0	19.5	7.0	4.7
성별	남성	(594)	5.6	25.1	38.2	19.5	7.9	3.7
	여성	(606)	4.5	22.6	41.7	19.5	6.1	5.6
연령	20대	(197)	4.6	24.9	42.1	16.2	7.6	4.6
	30대	(222)	3.2	22.5	41.4	20.7	8.1	4.1
	40대	(258)	3.9	24.4	41.5	20.2	7.0	3.1
	50대	(240)	5.8	25.0	36.7	20.0	8.3	4.2
	60대 이상	(283)	7.1	22.6	38.9	19.8	4.6	7.1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4	21.3	41.6	20.2	7.5	5.1
	중·소도시	(553)	2.5	26.4	42.0	19.0	6.7	3.4
	군지역	(97)	22.7	23.7	19.6	18.6	6.2	9.3
직업	화이트칼라	(368)	3.5	26.4	42.4	17.7	7.1	3.0
	블루칼라	(294)	5.8	22.8	39.5	20.4	5.8	5.8
	농/임/어업	(27)	18.5	22.2	29.6	11.1	11.1	7.4
	자영업	(158)	5.7	17.7	39.9	20.9	10.8	5.1
	주부	(267)	3.7	25.1	41.6	20.6	4.9	4.1
	은퇴자	(12)	0.0	8.3	58.3	33.3	0.0	0.0
	학생	(38)	2.6	36.8	31.6	15.8	10.5	2.6
	무직/기타	(36)	13.9	16.7	19.4	22.2	11.1	1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6.8	23.8	33.7	8.9	5.9	10.9
	고졸	(482)	3.9	22.4	40.5	21.4	7.3	4.6
	대재 이상	(547)	4.4	23.0	41.9	19.7	7.3	3.7
	모름/무응답	(70)	0.0	40.0	31.4	20.0	4.3	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7.5	25.2	35.7	18.0	6.4	7.1
	중소득	(622)	4.7	22.8	40.5	20.3	6.9	4.8
	고소득	(312)	3.5	24.7	42.6	19.2	7.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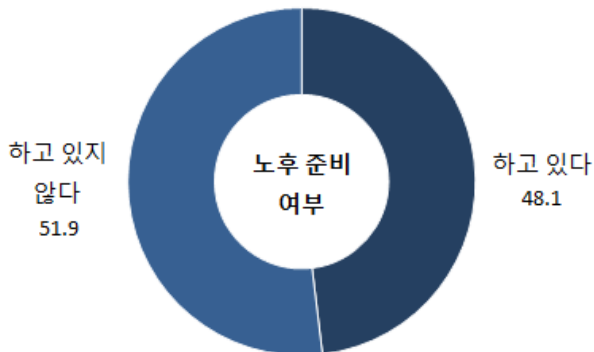
4.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가. 노후 준비 여부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48.1%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51.9%)는 응답에 비해 약간 낮았음.
- 특히, 40대(62.4%)와 50대(66.7%), 대도시 거주자(52.4%), 화이트칼라(54.6%)와 자영업자(62.0%)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30〉 노후 준비 여부

(N=1,200 / 단위: %)



〈표 IV-53〉 노후 준비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전체		(1,200)	48.1	51.9
성별	남성	(594)	51.0	49.0
	여성	(606)	45.2	54.8
연령	20대	(197)	18.3	81.7
	30대	(222)	38.3	61.7
	40대	(258)	62.4	37.6
	50대	(240)	66.7	33.3
	60대 이상	(283)	47.7	52.3
지역 규모	대도시	(550)	52.4	47.6
	중·소도시	(553)	46.3	53.7
	군지역	(97)	34.0	66.0
직업	화이트칼라	(368)	54.6	45.4
	블루칼라	(294)	46.3	53.7
	농/임/어업	(27)	33.3	66.7
	자영업	(158)	62.0	38.0
	주부	(267)	46.1	53.9
	은퇴자	(12)	41.7	58.3
	학생	(38)	0.0	100.0
	무직/기타	(36)	13.9	86.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8.7	71.3
	고졸	(482)	51.7	48.3
	대재 이상	(547)	49.2	50.8
	모름/무응답	(70)	42.9	5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8.7	61.3
	중소득	(622)	47.3	52.7
	고소득	(312)	57.7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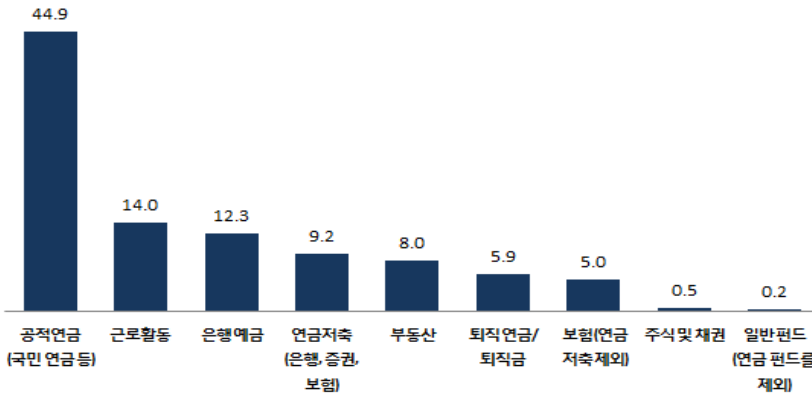
1) 노후대비 상품 유형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으로는 ‘공적연금’(44.9%)에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근로활동’(14.0%), ‘은행예금’(12.3%), ‘연금저축’(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20대(69.4%)와 30대(51.8%), 화이트칼라(5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1〉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N=577 / 단위: %)



〈표 IV-54〉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공적 연금	근로 활동	은행 예금	연금 저축	부동산	퇴직 연금	보험	주식및 채권	일반 펀드
전체		(577)	44.9	14.0	12.3	9.2	8.0	5.9	5.0	0.5	0.2
성별	남성	(303)	47.2	16.5	7.3	8.6	7.9	8.6	3.6	0.3	0.0
	여성	(274)	42.3	11.3	17.9	9.9	8.0	2.9	6.6	0.7	0.4
연령	20대	(36)	69.4	8.3	5.6	5.6	0.0	8.3	2.8	0.0	0.0
	30대	(85)	51.8	15.3	4.7	9.4	5.9	11.8	1.2	0.0	0.0
	40대	(161)	45.3	16.8	8.1	11.2	6.2	6.2	5.0	0.6	0.6
	50대	(160)	40.6	10.6	15.0	9.4	12.5	4.4	6.9	0.6	0.0
	60대 이상	(135)	38.5	15.6	20.7	7.4	8.1	3.0	5.9	0.7	0.0

〈표 IV-5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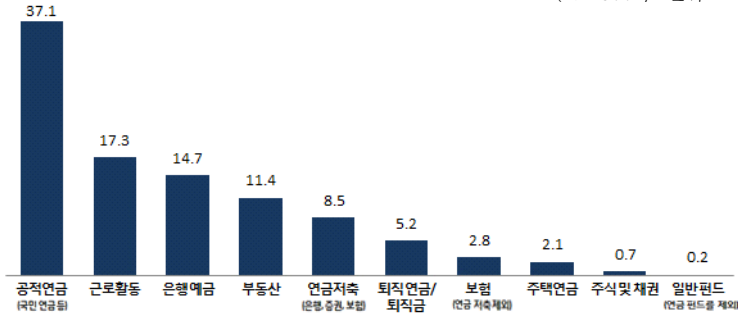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공적 연금	근로 활동	은행 예금	연금 저축	부동산	퇴직 연금	보험	주식 및 채권	일반 펀드
지역 규모	대도시	(288)	46.2	10.8	11.5	10.1	8.0	5.6	6.6	1.0	0.3
	중·소도시	(256)	44.5	16.0	14.1	7.4	7.4	6.6	3.9	0.0	0.0
	군지역	(33)	36.4	27.3	6.1	15.2	12.1	3.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01)	52.7	13.9	6.5	7.0	5.0	11.9	2.5	0.5	0.0
	블루칼라	(136)	44.1	17.6	11.0	10.3	6.6	2.2	8.1	0.0	0.0
	농/임/어업	(9)	44.4	22.2	11.1	22.2	0.0	0.0	0.0	0.0	0.0
	자영업	(98)	35.7	21.4	9.2	11.2	14.3	1.0	7.1	0.0	0.0
	주부	(123)	39.8	4.1	26.8	8.9	10.6	2.4	4.9	1.6	0.8
	은퇴자	(5)	20.0	0.0	0.0	20.0	0.0	60.0	0.0	0.0	0.0
	무직/기타	(5)	80.0	2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9)	48.3	20.7	13.8	13.8	0.0	0.0	3.4	0.0	0.0
	고졸	(249)	42.2	12.4	15.7	9.2	10.4	2.8	6.4	0.4	0.4
	대재 이상	(269)	50.6	11.2	9.3	7.8	7.1	10.0	3.3	0.7	0.0
	모름/무응답	(30)	13.3	46.7	10.0	16.7	3.3	0.0	1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3)	41.7	17.5	19.4	6.8	3.9	6.8	3.9	0.0	0.0
	중소득	(294)	48.3	12.9	8.8	11.6	5.4	5.8	6.1	0.7	0.3
	고소득	(180)	41.1	13.9	13.9	6.7	14.4	5.6	3.9	0.6	0.0

2) 노후에 예상되는 최대 수입원

■ 노후 수입 중 예상되는 최대 수입원을 물어본 결과, ‘공적연금’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활동’(17.3%), ‘은행예금’(14.7%), ‘부동산’(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2〉 노후에 예상되는 최대 수입원

(N=577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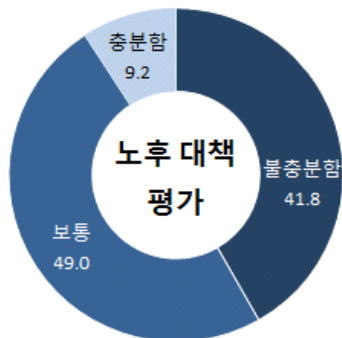
3) 현재 대비 중인 노후 대책 평가

■ 노후 대책을 마련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혹은 준비한) 노후 자금이 자신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충분한지 평가해본 결과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41.8%로, ‘보통이다’(49.0%)는 응답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30대(48.2%), 주부(50.4%), 중소득(48.0%)과 저소득(4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3〉 노후 대책 평가

(N=577 / 단위: %)



〈표 IV-55〉 노후 대책 평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불충분함	보통	충분함
전체		(577)	41.8	49.0	9.2
성별	남성	(303)	40.9	49.8	9.2
	여성	(274)	42.7	48.2	9.1
연령	20대	(36)	44.4	47.2	8.3
	30대	(85)	48.2	41.2	10.6
	40대	(161)	45.3	42.9	11.8
	50대	(160)	36.3	55.6	8.1
	60대 이상	(135)	39.3	54.1	6.7
지역 규모	대도시	(288)	39.6	51.7	8.7
	중·소도시	(256)	44.9	46.9	8.2
	군지역	(33)	36.4	42.4	21.2
직업	화이트칼라	(201)	37.3	50.2	12.4
	블루칼라	(136)	44.1	50.0	5.9
	농/임/어업	(9)	33.3	44.4	22.2
	자영업	(98)	38.8	51.0	10.2
	주부	(123)	50.4	43.9	5.7
	은퇴자	(5)	0.0	100.0	0.0
	무직/기타	(5)	60.0	20.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9)	37.9	62.1	0.0
	고졸	(249)	46.6	45.0	8.4
	대재 이상	(269)	35.3	53.2	11.5
	모름/무응답	(30)	63.3	33.3	3.3
가구 소득	저소득	(103)	46.6	49.5	3.9
	중소득	(294)	48.0	44.6	7.5
	고소득	(180)	28.9	56.1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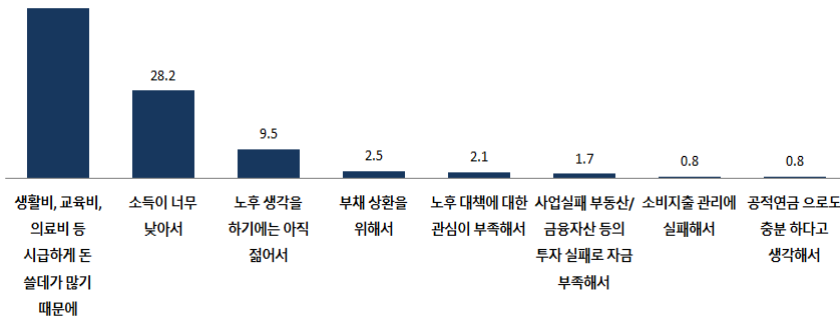
4) 노후 대책이 불충분한 이유

■ 노후대책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28.2%), ‘노후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젊어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은 40대 (69.9%), 자영업자(63.2%), 고소득 가구(7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4〉 노후 대책이 불충분한 이유

(N=241 / 단위: %)



〈표 IV-56〉 노후 대책이 불충분한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	소득이 너무 낮아서	아직 젊어서	부채 상환 위해서	관심이 부족 해서	투자 실패로 자금 부족	소비 지출 관리 실패	공적연금으로 충분
전체	(241)	54.4	28.2	9.5	2.5	2.1	1.7	0.8	0.8
성별	남성	(124)	54.8	22.6	12.1	4.8	1.6	1.6	1.6
	여성	(117)	53.8	34.2	6.8	0.0	2.6	1.7	0.0
연령	20대	(16)	37.5	25.0	31.3	6.3	0.0	0.0	0.0
	30대	(41)	43.9	22.0	26.8	4.9	2.4	0.0	0.0
	40대	(73)	69.9	17.8	6.8	1.4	1.4	0.0	1.4
	50대	(58)	58.6	29.3	1.7	1.7	3.4	3.4	1.7
	60대 이상	(53)	41.5	47.2	1.9	1.9	1.9	3.8	1.9

〈표 IV-56〉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시급하게 돈 쓸 때가 많기 때문	소득이 너무 낮아서	아직 젊어서	부채 상환 위해서	관심이 부족 해서	투자 실패로 자금 부족	소비 지출 관리 실패	공적 연금 으로 충분
지역 규모	대도시	(114)	53.5	35.1	7.0	0.0	0.9	2.6	0.9	0.0
	중·소도시	(115)	56.5	20.9	11.3	5.2	3.5	0.9	0.0	1.7
	군지역	(12)	41.7	33.3	16.7	0.0	0.0	0.0	8.3	0.0
직업	화이트칼라	(75)	50.7	18.7	25.3	4.0	0.0	0.0	0.0	1.3
	블루칼라	(60)	50.0	40.0	0.0	3.3	0.0	1.7	3.3	1.7
	농/임/어업	(3)	33.3	66.7	0.0	0.0	0.0	0.0	0.0	0.0
	자영업	(38)	63.2	18.4	2.6	2.6	7.9	5.3	0.0	0.0
	주부	(62)	58.1	32.3	4.8	0.0	3.2	1.6	0.0	0.0
	무직/기타	(3)	66.7	33.3	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	27.3	63.6	9.1	0.0	0.0	0.0	0.0	0.0
	고졸	(116)	57.8	30.2	1.7	4.3	1.7	2.6	0.9	0.9
	대재 이상	(95)	55.8	23.2	17.9	1.1	0.0	0.0	1.1	1.1
	모름/무응답	(19)	42.1	21.1	15.8	0.0	15.8	5.3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8)	29.2	58.3	8.3	4.2	0.0	0.0	0.0	0.0
	중소득	(141)	56.0	22.0	12.8	2.8	3.5	1.4	0.7	0.7
	고소득	(52)	73.1	17.3	1.9	0.0	0.0	3.8	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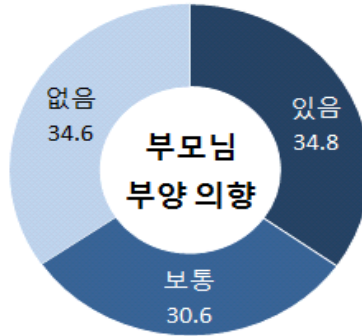
나. 은퇴 후 가족 부양에 대한 태도

1) 향후 부모님 부양 의향

- 향후 은퇴한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양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4.8%로 ‘부양하지 않을 것이다’(34.6%)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부양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남성(39.9%), 20대(46.2%)와 40대(41.1%), 화이트칼라(4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5〉 부모님 부양 의향

(N=221 / 단위: %)



〈표 IV-57〉 부모님 부양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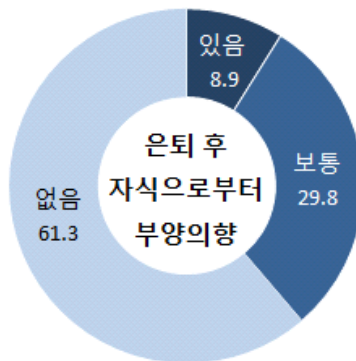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매우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절대 없다
전체		(1,200)	3.5	31.3	30.6	25.8	8.8
성별	남성	(594)	5.6	34.3	32.0	21.0	7.1
	여성	(606)	1.5	28.4	29.2	30.4	10.6
연령	20대	(197)	2.5	43.7	36.0	16.2	1.5
	30대	(222)	5.0	33.8	34.7	23.9	2.7
	40대	(258)	2.3	38.8	27.9	26.4	4.7
	50대	(240)	4.2	28.8	30.8	28.8	7.5
	60대 이상	(283)	3.5	16.3	25.8	30.7	23.7
지역 규모	대도시	(550)	2.7	33.6	28.4	28.5	6.7
	중·소도시	(553)	3.1	30.7	33.3	22.1	10.8
	군지역	(97)	10.3	21.6	27.8	30.9	9.3
직업	화이트칼라	(368)	3.5	39.4	34.2	19.8	3.0
	블루칼라	(294)	2.0	29.9	29.9	29.9	8.2
	농/임/어업	(27)	22.2	14.8	37.0	7.4	18.5
	자영업	(158)	6.3	26.6	27.8	25.9	13.3
	주부	(267)	1.5	25.8	28.1	33.0	11.6
	은퇴자	(12)	0.0	33.3	33.3	0.0	33.3
	학생	(38)	2.6	50.0	23.7	21.1	2.6
교육 수준	무직/기타	(36)	5.6	13.9	30.6	25.0	25.0
	중졸 이하	(101)	4.0	11.9	17.8	32.7	33.7
	고졸	(482)	3.3	24.7	30.3	31.1	10.6
	대재 이상	(547)	3.5	41.3	31.8	20.5	2.9
	모름/무응답	(70)	4.3	27.1	41.4	20.0	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9	15.8	28.6	32.0	21.8
	중소득	(622)	3.5	35.5	31.8	23.8	5.3
	고소득	(312)	4.8	36.2	29.8	24.4	4.8

2)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부양 의향

- 향후 은퇴 시 자식과의 동거 등의 부양을 받고 싶는지 물어본 결과, ‘자식으로부터 부양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이 61.3%로 ‘자식으로부터 부양 받을 생각이 있다’(8.9%)라는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자식으로부터 부양 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응답은 여성(11.2%), 주부(1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식으로부터 부양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은 40대(67.1%), 블루칼라(68.7%)와 자영업자(6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6〉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부양 의향

(N=1,200 / 단위: %)



〈표 IV-58〉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부양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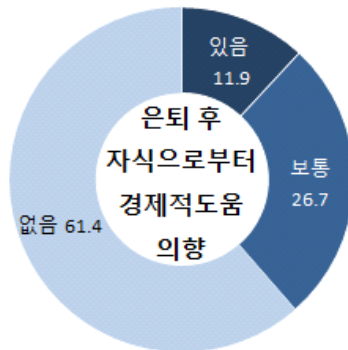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매우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절대 없다
전체		(1,200)	0.1	8.8	29.8	50.5	10.8
성별	남성	(594)	0.2	6.4	31.6	51.7	10.1
	여성	(606)	0.0	11.2	28.1	49.3	11.4
연령	20대	(197)	0.5	6.1	33.5	50.8	9.1
	30대	(222)	0.0	9.9	31.5	49.1	9.5
	40대	(258)	0.0	7.4	25.6	54.7	12.4
	50대	(240)	0.0	10.8	28.3	49.2	11.7
	60대 이상	(283)	0.0	9.5	31.1	48.8	10.6
지역 규모	대도시	(550)	0.2	10.4	31.5	48.9	9.1
	중·소도시	(553)	0.0	7.2	30.7	50.8	11.2
	군지역	(97)	0.0	9.3	15.5	57.7	17.5
직업	화이트칼라	(368)	0.3	8.7	32.1	48.9	10.1
	블루칼라	(294)	0.0	5.8	25.5	56.1	12.6
	농/임/어업	(27)	0.0	7.4	25.9	40.7	25.9
	자영업	(158)	0.0	7.0	25.9	54.4	12.7
	주부	(267)	0.0	15.7	30.3	46.1	7.9
	은퇴자	(12)	0.0	0.0	75.0	25.0	0.0
	학생	(38)	0.0	2.6	34.2	52.6	10.5
	무직/기타	(36)	0.0	2.8	38.9	50.0	8.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0.0	11.9	25.7	46.5	15.8
	고졸	(482)	0.0	8.7	27.6	51.5	12.2
	대재 이상	(547)	0.2	8.4	31.1	50.8	9.5
	모름/무응답	(70)	0.0	8.6	41.4	47.1	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0.0	7.9	29.7	47.7	14.7
	중소득	(622)	0.0	9.0	29.9	52.1	9.0
	고소득	(312)	0.3	9.3	29.8	49.7	10.9

3)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의향

- 향후 은퇴 시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은지 물어본 결과,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이 61.4%로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다’(11.9%)라는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응답은 60대 이상(20.1%), 농/임/어업(2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은 30대(67.6%)와 20대(67.5%), 화이트칼라(6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7〉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의향

(N=1,200 / 단위: %)



〈표 IV-59〉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200)	11.9	26.7	50.1	11.3
성별	남성	(594)	9.8	26.4	52.0	11.8
	여성	(606)	14.0	26.9	48.2	10.9
연령	20대	(197)	6.6	25.9	55.8	11.7
	30대	(222)	7.7	24.8	54.5	13.1
	40대	(258)	9.7	24.8	53.5	12.0
	50대	(240)	12.9	26.3	48.8	12.1
	60대 이상	(283)	20.1	30.7	40.6	8.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4.0	24.0	51.3	10.7
	중·소도시	(553)	9.6	30.0	48.6	11.8
	군지역	(97)	13.4	22.7	51.5	12.4
직업	화이트칼라	(368)	8.2	24.7	55.2	12.0
	블루칼라	(294)	10.2	25.2	51.4	13.3
	농/임/어업	(27)	22.2	29.6	33.3	14.8
	자영업	(158)	12.0	21.5	52.5	13.9
	주부	(267)	18.0	28.8	45.7	7.5
	은퇴자	(12)	8.3	50.0	41.7	0.0
	학생	(38)	2.6	39.5	44.7	13.2
	무직/기타	(36)	22.2	41.7	30.6	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3.8	26.7	40.6	8.9
	고졸	(482)	13.1	27.8	46.5	12.7
	대재 이상	(547)	8.4	25.6	54.8	11.2
	모름/무응답	(70)	14.3	27.1	51.4	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6.9	27.1	41.7	14.3
	중소득	(622)	11.1	26.7	51.8	10.5
	고소득	(312)	9.3	26.3	53.8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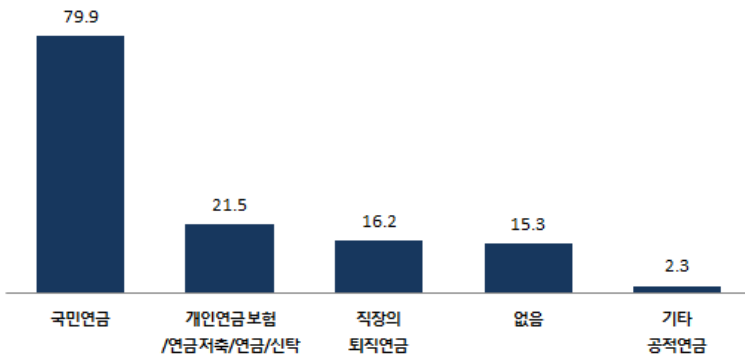
다. 연금 가입 실태

1) 가입 연금 유형

- 연금제도별 가구 가입률은 국민연금(79.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포함)(21.5%), 퇴직연금(16.2%), 기타 공적연금(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8〉 연금제도별 가입률

(N=1,200 / 단위: %)



주: 본 조사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의 가입률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실제 가입률(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과 차이가 있음. 본 조사에서 가입률은 연금상품 가입률의 상대적 값만 의미가 있음.

2) 연금제도별 가입 금융기관

- 사적연금별 가입 금융기관(응답자 기준)은 퇴직(연)금은 은행, 개인연금은 생보사를 통한 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은 은행(62.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명보험회사(14.4%), 증권사(11.9%), 손해보험회사(1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은 생명보험회사(77.1%)가 가장 높고, 은행(12.8%), 손해보험회사(8.1%), 증권사(1.6%), 기타(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0〉 사적연금 가입 금융 기관

(단위: %)

연금제도	은행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기타	모름
퇴직(연)금(N=194)	62.9	14.4	10.8	11.9	-	100.0
개인연금(N=258)	12.8	77.1	8.1	1.6	0.4	100.0

라. 가입 연금제도 만족도 및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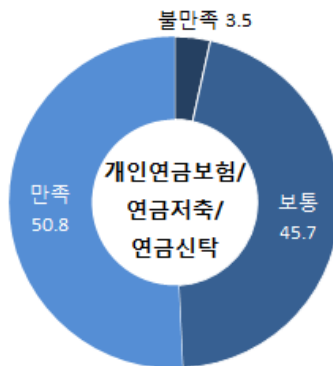
1)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도

■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0.8%로, 불만족하다는 응답(3.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성(54.0%), 60대 이상(65.4%), 농/임/어업(66.7%)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9〉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N=258 / 단위: %)



〈표 IV-61〉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258)	3.5	45.7	50.8
성별	남성	(113)	3.5	42.5	54.0
	여성	(145)	3.4	48.3	48.3
연령	20대	(43)	0.0	48.8	51.2
	30대	(41)	4.9	41.5	53.7
	40대	(90)	2.2	56.7	41.1
	50대	(58)	8.6	34.5	56.9
	60대 이상	(26)	0.0	34.6	65.4
지역 규모	대도시	(134)	2.2	38.1	59.7
	중·소도시	(111)	5.4	55.0	39.6
	군지역	(13)	0.0	46.2	53.8
직업	화이트칼라	(92)	4.3	51.1	44.6
	블루칼라	(61)	0.0	42.6	57.4
	농/임/어업	(3)	0.0	33.3	66.7
	자영업	(37)	8.1	43.2	48.6
	주부	(57)	3.5	45.6	50.9
	무직/기타	(2)	0.0	50.0	5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33.3	0.0	66.7
	고졸	(110)	3.6	42.7	53.6
	대재 이상	(133)	3.0	49.6	47.4
	모름/무응답	(12)	0.0	41.7	58.3
가구 소득	저소득	(19)	0.0	57.9	42.1
	중소득	(144)	3.5	51.4	45.1
	고소득	(95)	4.2	34.7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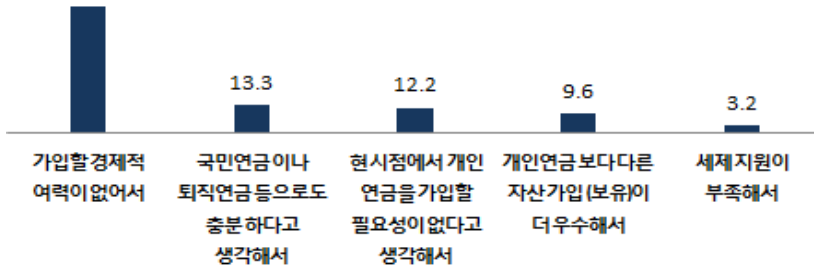
2)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미가입 이유

-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13.3%), ‘현 시점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12.2%) 등의 순이었음.

-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60대 이상(68.9%), 농/임/어업 종사자(7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40〉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미가입 이유

(N=942 / 단위: %)



〈표 IV-62〉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미가입 이유: 응답자 특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시점에서 개인 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개인연금보다 다른 자산 가입(보유)이 더 우수해서	세제 지원이 부족해서
전체		(942)	61.8	13.3	12.2	9.6	3.2
성별	남성	(481)	59.9	15.6	10.8	9.8	4.0
	여성	(461)	63.8	10.8	13.7	9.3	2.4
연령	20대	(154)	55.8	14.9	18.2	5.2	5.8
	30대	(181)	59.1	12.7	14.9	9.9	3.3
	40대	(168)	61.3	12.5	11.3	10.7	4.2
	50대	(182)	59.9	17.6	7.1	12.1	3.3
	60대 이상	(257)	68.9	10.1	10.9	9.3	0.8
지역 규모	대도시	(416)	63.5	14.2	12.7	7.0	2.6
	중·소도시	(442)	60.0	13.1	10.6	12.2	4.1
	군지역	(84)	63.1	9.5	17.9	8.3	1.2
직업	화이트칼라	(276)	55.8	18.1	11.6	9.8	4.7
	블루칼라	(233)	67.0	12.0	11.6	5.2	4.3
	농/임/어업	(24)	70.8	12.5	16.7	0.0	0.0
	자영업	(121)	55.4	15.7	9.1	15.7	4.1
	주부	(210)	65.7	9.0	11.9	12.4	1.0
	은퇴자	(12)	41.7	16.7	8.3	33.3	0.0
	학생	(32)	65.6	3.1	31.3	0.0	0.0
	무직/기타	(34)	70.6	8.8	14.7	5.9	0.0

〈표 IV-6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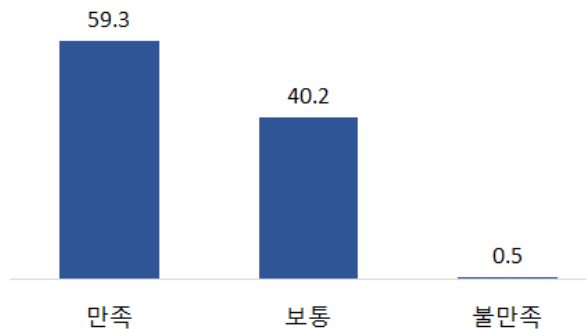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 하다고 생각해서	현 시점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개인연금 보다 다른 자산 가입 (보유)이 더 우수해서	세제 지원이 부족해서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8)	73.5	5.1	15.3	6.1	0.0
	고졸	(372)	67.2	11.3	9.4	9.1	3.0
	대재 이상	(414)	55.6	15.5	14.5	10.1	4.3
	모름/무응답	(58)	51.7	24.1	8.6	13.8	1.7
가구 소득	저소득	(247)	72.9	8.1	10.5	6.1	2.4
	중소득	(478)	59.8	14.9	10.9	11.3	3.1
	고소득	(217)	53.5	15.7	17.1	9.7	4.1

3) 퇴직연금 만족도

■ 퇴직(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9.3%로, 불만족한다(0.5%)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IV-41〉 퇴직연금제도 만족 수준

(N=194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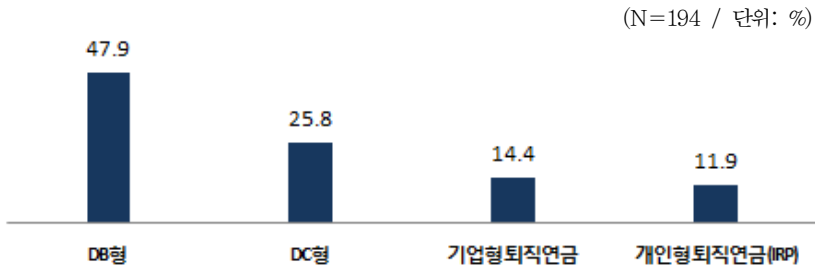


4)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살펴본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25.8%), ‘기업형 퇴직연금’(14.4%) 등의 순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5.0%), 은퇴자(8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2〉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표 IV-63〉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DB형	DC형	기업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전체		(194)	47.9	25.8	14.4	11.9
성별	남성	(120)	47.5	25.8	14.2	12.5
	여성	(74)	48.6	25.7	14.9	10.8
연령	20대	(45)	46.7	33.3	11.1	8.9
	30대	(54)	33.3	25.9	27.8	13.0
	40대	(54)	57.4	22.2	7.4	13.0
	50대	(29)	48.3	27.6	10.3	13.8
	60대 이상	(12)	75.0	8.3	8.3	8.3
지역 규모	대도시	(87)	33.3	39.1	17.2	10.3
	중·소도시	(104)	58.7	15.4	12.5	13.5
	군지역	(3)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19)	46.2	28.6	13.4	11.8
	블루칼라	(48)	52.1	20.8	12.5	14.6
	은퇴자	(5)	80.0	0.0	20.0	0.0

〈표 IV-63〉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DB형	DC형	기업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0.0	0.0	100.0	0.0
	고졸	(40)	60.0	12.5	15.0	12.5
	대재 이상	(144)	44.4	31.3	13.2	11.1
	모름/무응답	(9)	55.6	0.0	22.2	22.2
가구 소득	저소득	(19)	52.6	21.1	10.5	15.8
	중소득	(94)	45.7	28.7	14.9	10.6
	고소득	(81)	49.4	23.5	14.8	12.3

마. 연금과세 체계 인지도

1)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인지도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가입 시 연간 불입금의 12%(연간 400만 원 한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5%)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7.3%로, ‘모르고 있었다’(72.7%)의 3분의 1수준이었음.

○ 개인연금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0대(38.3%)와 40대(39.1%), 화이트칼라(40.8%), 대재 이상(36.7%), 고소득층(38.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43〉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64〉 개인연금저축 가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인지도: 응답자 특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1,200)	27.3	72.7
성별	남성	(594)	31.0	69.0
	여성	(606)	23.8	76.2
연령	20대	(197)	19.3	80.7
	30대	(222)	38.3	61.7
	40대	(258)	39.1	60.9
	50대	(240)	30.0	70.0
	60대 이상	(283)	11.3	88.7
지역 규모	대도시	(550)	25.1	74.9
	중·소도시	(553)	31.6	68.4
	군지역	(97)	15.5	84.5
직업	화이트칼라	(368)	40.8	59.2
	블루칼라	(294)	23.1	76.9
	농/임/어업	(27)	11.1	88.9
	자영업	(158)	24.1	75.9
	주부	(267)	23.2	76.8
	은퇴자	(12)	8.3	91.7
	학생	(38)	5.3	94.7
	무직/기타	(36)	11.1	88.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4.0	96.0
	고졸	(482)	21.4	78.6
	대재 이상	(547)	36.7	63.3
	모름/무응답	(70)	28.6	71.4
가구 소득	저소득	(266)	9.4	90.6
	중소득	(622)	29.3	70.7
	고소득	(312)	38.8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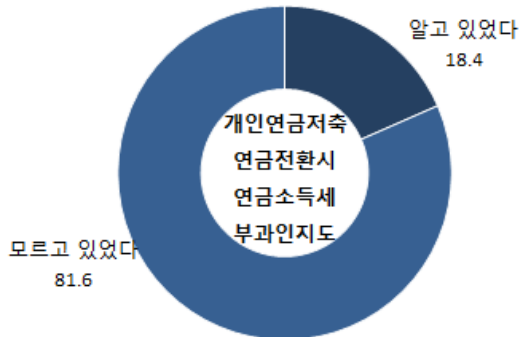
2)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전환 시 연금소득세 부과 제도 인지도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액의 3~5%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8.4%로, ‘모르고 있었다’(81.6%)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전환시 세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남성(24.4%), 40대(27.9%), 화이트칼라(31.3%), 대재 이상(28.5%), 고소득층(27.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44〉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전환 시 연금소득세 부과 제도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65〉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전환 시 연금소득세 부과 제도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1,200)	18.4	81.6
성별	남성	(594)	24.4	75.6
	여성	(606)	12.5	87.5
연령	20대	(197)	16.2	83.8
	30대	(222)	20.7	79.3
	40대	(258)	27.9	72.1
	50대	(240)	20.8	79.2
	60대 이상	(283)	7.4	92.6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8.7	81.3
	중·소도시	(553)	20.6	79.4
	군지역	(97)	4.1	95.9
직업	화이트칼라	(368)	31.3	68.8
	블루칼라	(294)	13.6	86.4
	농/임/어업	(27)	3.7	96.3
	자영업	(158)	18.4	81.6
	주부	(267)	10.5	89.5
	은퇴자	(12)	25.0	75.0
	학생	(38)	2.6	97.4
	무직/기타	(36)	11.1	88.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0	98.0
	고졸	(482)	11.4	88.6
	대재 이상	(547)	28.5	71.5
	모름/무응답	(70)	11.4	88.6
가구 소득	저소득	(266)	6.4	93.6
	중소득	(622)	18.8	81.2
	고소득	(312)	27.9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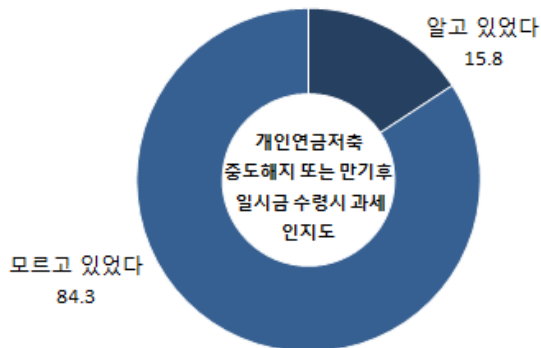
3)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 수령 시 과세 인지도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중도해지 하거나 만기 후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운용수익과 원금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 되는 것에 대한 인지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5.8%로, ‘모르고 있었다’(84.3%)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개인연금저축의 중도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0대(20.5%), 화이트칼라(26.4%), 대재 이상(22.7%), 고소득층(23.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45〉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 수령 시 과세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66〉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 수령 시 과세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1,200)	15.8	84.3
성별	남성	(594)	19.4	80.6
	여성	(606)	12.2	87.8
연령	20대	(197)	14.2	85.8
	30대	(222)	19.4	80.6
	40대	(258)	20.5	79.5
	50대	(240)	14.6	85.4
	60대 이상	(283)	10.6	89.4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6.9	83.1
	중·소도시	(553)	16.5	83.5
	군지역	(97)	5.2	94.8
직업	화이트칼라	(368)	26.4	73.6
	블루칼라	(294)	11.2	88.8
	농/임/어업	(27)	0.0	100.0
	자영업	(158)	13.3	86.7
	주부	(267)	10.9	89.1
	은퇴자	(12)	25.0	75.0
	학생	(38)	7.9	92.1
	무직/기타	(36)	8.3	9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5.0	95.0
	고졸	(482)	11.2	88.8
	대재 이상	(547)	22.7	77.3
	모름/무응답	(70)	8.6	91.4
가구 소득	저소득	(266)	9.8	90.2
	중소득	(622)	14.5	85.5
	고소득	(312)	23.4	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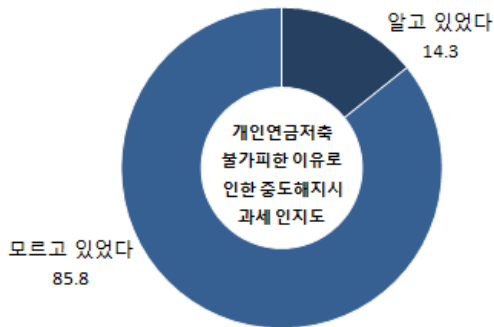
4) 개인연금저축을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과세 인지도

■ 질병, 파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중도 해지 할 경우에도 수령액의 3~5% 세율로 저율과세 되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4.3%로, ‘모르고 있었다’(85.8%)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인연금 저축 해지 시 저율과세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0대(20.3%), 화이트칼라(22.3%), 대재 이상(20.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46〉 개인연금저축을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과세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67〉 개인연금저축을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 시 저율과세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1,200)	14.3	85.8
성별	남성	(594)	17.8	82.2
	여성	(606)	10.7	89.3
연령	20대	(197)	12.2	87.8
	30대	(222)	20.3	79.7
	40대	(258)	18.2	81.8
	50대	(240)	13.8	86.3
	60대 이상	(283)	7.8	92.2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4.4	85.6
	중·소도시	(553)	15.7	84.3
	군지역	(97)	5.2	94.8
직업	화이트칼라	(368)	22.3	77.7
	블루칼라	(294)	12.2	87.8
	농/임/어업	(27)	3.7	96.3
	자영업	(158)	13.3	86.7
	주부	(267)	9.0	91.0
	은퇴자	(12)	25.0	75.0
	학생	(38)	7.9	92.1
	무직/기타	(36)	2.8	9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3.0	97.0
	고졸	(482)	9.8	90.2
	대재 이상	(547)	20.5	79.5
	모름/무응답	(70)	12.9	8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8.6	91.4
	중소득	(622)	15.6	84.4
	고소득	(312)	16.3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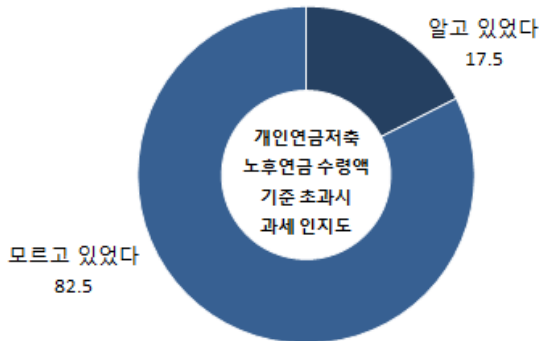
5)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인지도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부터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공적연금 등 여타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7.5%, ‘모르고 있었다’(82.5%)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노후 수령하는 사적연금의 연간 총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0대(26.7%), 화이트칼라(30.2%), 대재 이상(28.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47〉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68〉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1,200)	17.5	82.5
성별	남성	(594)	20.5	79.5
	여성	(606)	14.5	85.5
연령	20대	(197)	17.8	82.2
	30대	(222)	21.6	78.4
	40대	(258)	26.7	73.3
	50대	(240)	14.6	85.4
	60대 이상	(283)	8.1	91.9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6.9	83.1
	중·소도시	(553)	20.4	79.6
	군지역	(97)	4.1	95.9
직업	화이트칼라	(368)	30.2	69.8
	블루칼라	(294)	11.6	88.4
	농/임/어업	(27)	3.7	96.3
	자영업	(158)	15.2	84.8
	주부	(267)	13.5	86.5
	은퇴자	(12)	16.7	83.3
	학생	(38)	2.6	97.4
	무직/기타	(36)	2.8	9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0	98.0
	고졸	(482)	9.3	90.7
	대재 이상	(547)	28.3	71.7
	모름/무응답	(70)	11.4	88.6
가구 소득	저소득	(266)	4.9	95.1
	중소득	(622)	17.0	83.0
	고소득	(312)	29.2	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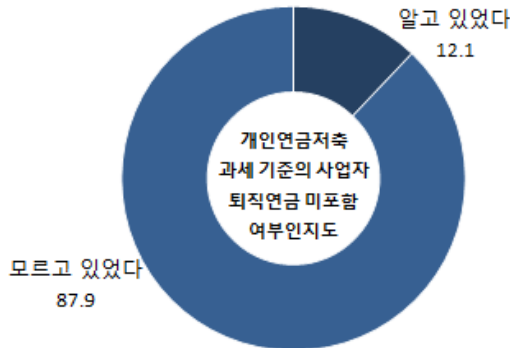
6)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액의 퇴직연금 미포함 여부 인지도

■ 사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1,200만 원)에서 고용주가 납입해 준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2.1%, ‘모르고 있었다’(87.9%)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사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고용주 납입분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0대(18.6%), 화이트 칼라(21.2%), 대재 이상(19.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48〉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액의 퇴직연금 미포함 여부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69〉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의 퇴직연금 미포함 여부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1,200)	12.1	87.9
성별	남성	(594)	15.8	84.2
	여성	(606)	8.4	91.6
연령	20대	(197)	9.6	90.4
	30대	(222)	14.9	85.1
	40대	(258)	18.6	81.4
	50대	(240)	11.7	88.3
	60대 이상	(283)	6.0	94.0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2.0	88.0
	중·소도시	(553)	13.7	86.3
	군지역	(97)	3.1	96.9
직업	화이트칼라	(368)	21.2	78.8
	블루칼라	(294)	7.1	92.9
	농/임/어업	(27)	3.7	96.3
	자영업	(158)	12.0	88.0
	주부	(267)	7.1	92.9
	은퇴자	(12)	25.0	75.0
	학생	(38)	5.3	94.7
	무직/기타	(36)	5.6	94.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0	99.0
	고졸	(482)	6.8	93.2
	대재 이상	(547)	19.6	80.4
	모름/무응답	(70)	5.7	9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4.1	95.9
	중소득	(622)	11.9	88.1
	고소득	(312)	19.2	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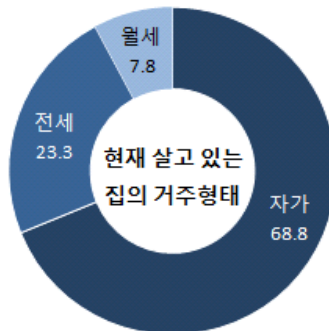
5.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가.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로 자가(68.8%), 전세(23.3%), 월세(7.8%) 순으로 나타남.
-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로 자가 의견은 50대(81.7%)와 60대 이상(81.3%), 군지역(83.5%), 자영업(80.4%),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져 고소득층(8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9〉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N=1,200 / 단위: %)



〈표 IV-70〉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가	전세	월세
전체		(1,200)	68.8	23.3	7.8
성별	남성	(594)	66.8	24.2	8.9
	여성	(606)	70.8	22.4	6.8
연령	20대	(197)	70.1	17.3	12.7
	30대	(222)	36.9	52.7	10.4
	40대	(258)	69.8	24.8	5.4
	50대	(240)	81.7	11.3	7.1
	60대 이상	(283)	81.3	13.4	5.3
지역 규모	대도시	(550)	69.3	24.5	6.2
	중·소도시	(553)	65.8	25.0	9.2
	군지역	(97)	83.5	7.2	9.3
직업	화이트칼라	(368)	63.3	28.0	8.7
	블루칼라	(294)	59.9	28.2	11.9
	농/임/어업	(27)	96.3	0.0	3.7
	자영업	(158)	80.4	16.5	3.2
	주부	(267)	73.4	22.1	4.5
	은퇴자	(12)	91.7	8.3	0.0
	학생	(38)	84.2	10.5	5.3
	무직/기타	(36)	69.4	11.1	1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66.3	18.8	14.9
	고졸	(482)	72.2	19.3	8.5
	대재 이상	(547)	66.2	28.0	5.9
	모름/무응답	(70)	70.0	21.4	8.6
가구 소득	저소득	(266)	59.4	21.8	18.8
	중소득	(622)	63.2	30.4	6.4
	고소득	(312)	88.1	10.6	1.3

나. 살고 있는 집의 금액

■ 살고 있는 집의 금액의 경우, 자가는 평균 2억 9,198만 원,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6,080만 원, 보증금 있는 월세는 평균 보증금 2,760만 원에 월세는 평균 28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21만 원 정도로 나타남.

〈표 IV-71〉 살고 있는 집의 금액

(단위: 만 원)

특성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월세	
사례 수	(826)	(280)	(85)		(9)
금액(평균)	29,198	16,080	2,760	28	21

주: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 응답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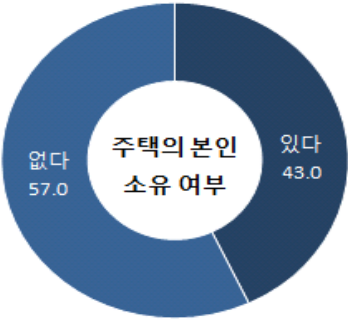
다.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에 대해서 ‘없다’는 응답이 57.0%,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남.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49.8%), 50대(65.4%), 자영업(6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0〉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N=1,200 / 단위: %)



〈표 IV-72〉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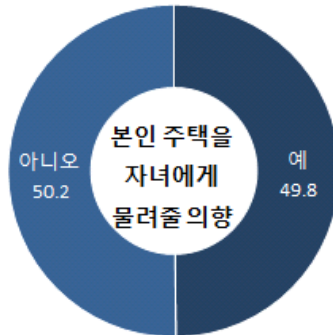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200)	43.0	57.0
성별	남성	(594)	49.8	50.2
	여성	(606)	36.3	63.7
연령	20대	(197)	5.1	94.9
	30대	(222)	16.2	83.8
	40대	(258)	54.7	45.3
	50대	(240)	65.4	34.6
	60대 이상	(283)	60.8	39.2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4.5	55.5
	중·소도시	(553)	41.0	59.0
	군지역	(97)	45.4	54.6
직업	화이트칼라	(368)	40.8	59.2
	블루칼라	(294)	37.8	62.2
	농/임/어업	(27)	81.5	18.5
	자영업	(158)	66.5	33.5
	주부	(267)	36.7	63.3
	은퇴자	(12)	91.7	8.3
	학생	(38)	0.0	100.0
교육 수준	무직/기타	(36)	52.8	47.2
	중졸 이하	(101)	43.6	56.4
	고졸	(482)	49.4	50.6
	대재 이상	(547)	38.0	62.0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70)	37.1	62.9
	저소득	(266)	44.7	55.3
	중소득	(622)	39.1	60.9
	고소득	(312)	49.4	50.6

라.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에 대해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50.2%로, 의향이 ‘있다’는 의견인 49.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여성(52.7%), 60대 이상(60.5%), 주부(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1〉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N=516 / 단위: %)



〈표 IV-73〉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516)	49.8	50.2
성별	남성	(296)	47.6	52.4
	여성	(220)	52.7	47.3
연령	20대	(10)	0.0	100.0
	30대	(36)	58.3	41.7
	40대	(141)	39.7	60.3
	50대	(157)	48.4	51.6
	60대 이상	(172)	60.5	39.5
지역 규모	대도시	(245)	53.1	46.9
	중·소도시	(227)	47.6	52.4
	군지역	(44)	43.2	56.8
직업	화이트칼라	(150)	40.7	59.3
	블루칼라	(111)	53.2	46.8
	농/임/어업	(22)	45.5	54.5
	자영업	(105)	49.5	50.5
	주부	(98)	61.2	38.8
	은퇴자	(11)	18.2	81.8
	무직/기타	(19)	68.4	31.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4)	56.8	43.2
	고졸	(238)	49.2	50.8
	대재 이상	(208)	49.5	50.5
	모름/무응답	(26)	46.2	53.8
가구 소득	저소득	(119)	51.3	48.7
	중소득	(243)	54.3	45.7
	고소득	(154)	41.6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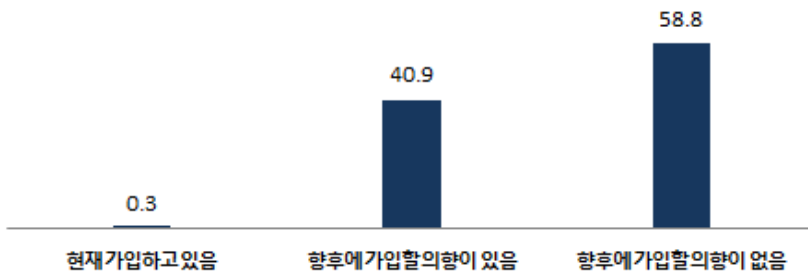
마.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

■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에 대해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40.9%,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0.3%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에 대해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군지역(72.2%), 60대 이상(61.5%), 저소득층(6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2〉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

(N=1,200 / 단위: %)



〈표 IV-74〉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현재 가입하고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 없음
전체		(1,200)	0.3	40.9	58.8
성별	남성	(594)	0.5	39.6	59.9
	여성	(606)	0.2	42.2	57.6
연령	20대	(197)	0.5	43.1	56.3
	30대	(222)	0.5	43.7	55.9
	40대	(258)	0.0	41.9	58.1
	50대	(240)	0.8	38.3	60.8
	60대 이상	(283)	0.0	38.5	61.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0.7	40.7	58.5
	중·소도시	(553)	0.0	43.4	56.6
	군지역	(97)	0.0	27.8	72.2
직업	화이트칼라	(368)	0.5	43.8	55.7
	블루칼라	(294)	0.3	40.8	58.8
	농/임/어업	(27)	0.0	14.8	85.2
	자영업	(158)	0.6	38.6	60.8
	주부	(267)	0.0	41.6	58.4
	은퇴자	(12)	0.0	58.3	41.7
	학생	(38)	0.0	44.7	55.3
	무직/기타	(36)	0.0	27.8	72.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0.0	29.7	70.3
	고졸	(482)	0.4	42.5	57.1
	대재 이상	(547)	0.4	40.4	59.2
	모름/무응답	(70)	0.0	50.0	50.0
가구 소득	저소득	(266)	0.4	33.8	65.8
	중소득	(622)	0.2	45.8	54.0
	고소득	(312)	0.6	37.2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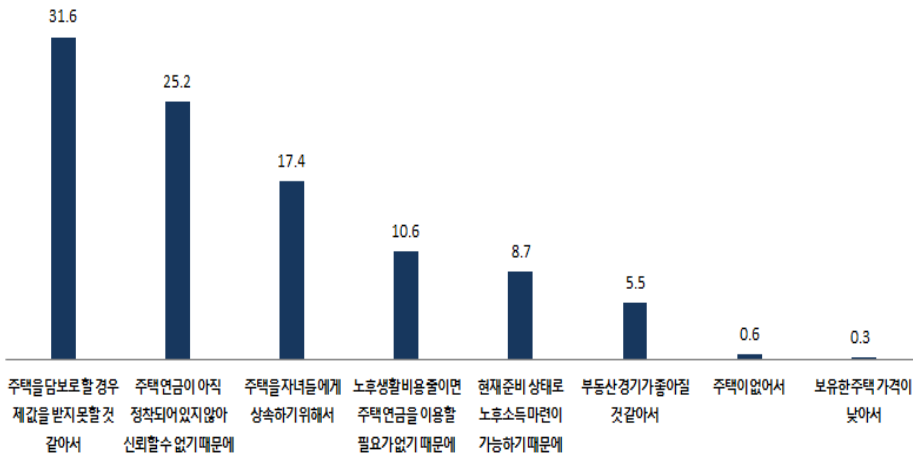
바.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25.2%),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7.4%)의 순이었음.

○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60대 이상(36.8%), 군지역(38.6%), 중졸 이하(39.4%), 저소득층(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3〉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N=705 / 단위: %)



〈표 IV-75〉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노후생활 비용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705)	31.6	25.2	17.4	10.6
성별	남성	(356)	31.5	27.0	14.9	11.5
	여성	(349)	31.8	23.5	20.1	9.7
연령	20대	(111)	34.2	30.6	4.5	14.4
	30대	(124)	25.0	33.1	16.1	12.9
	40대	(150)	30.0	26.0	17.3	8.0
	50대	(146)	30.8	23.3	19.9	11.6
	60대 이상	(174)	36.8	17.2	24.7	8.0
지역 규모	대도시	(322)	29.2	23.9	19.9	11.5
	중·소도시	(313)	32.6	28.4	15.0	9.6
	군지역	(70)	38.6	17.1	17.1	11.4
직업	화이트칼라	(205)	29.8	29.3	13.7	11.2
	블루칼라	(173)	30.6	28.3	14.5	11.0
	농/임/어업	(23)	47.8	8.7	26.1	8.7
	자영업	(96)	30.2	21.9	16.7	11.5
	주부	(156)	31.4	21.8	26.3	9.0
	은퇴자	(5)	20.0	20.0	20.0	0.0
	학생	(21)	33.3	33.3	0.0	23.8
	무직/기타	(26)	46.2	15.4	23.1	3.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1)	39.4	16.9	22.5	11.3
	고졸	(275)	34.9	22.5	16.0	10.9
	대재 이상	(324)	27.2	29.6	16.0	10.8
	모름/무응답	(35)	31.4	22.9	31.4	5.7
가구 소득	저소득	(175)	40.0	18.3	17.1	10.9
	중소득	(336)	27.4	29.8	20.5	12.8
	고소득	(194)	31.4	23.7	12.4	6.7

〈표 IV-76〉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현재 준비 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주택이 없어서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아서
전체		(705)	8.7	5.5	0.6	0.3
성별	남성	(356)	7.0	7.9	0.3	0.0
	여성	(349)	10.3	3.2	0.9	0.6
연령	20대	(111)	10.8	5.4	0.0	0.0
	30대	(124)	8.9	4.0	0.0	0.0
	40대	(150)	12.0	6.7	0.0	0.0
	50대	(146)	7.5	5.5	0.7	0.7
	60대 이상	(174)	5.2	5.7	1.7	0.6
지역 규모	대도시	(322)	11.5	3.4	0.3	0.3
	중·소도시	(313)	5.8	8.0	0.6	0.0
	군지역	(70)	8.6	4.3	1.4	1.4
직업	화이트칼라	(205)	12.2	3.9	0.0	0.0
	블루칼라	(173)	6.9	8.1	0.0	0.6
	농/임/어업	(23)	8.7	0.0	0.0	0.0
	자영업	(96)	12.5	6.3	1.0	0.0
	주부	(156)	5.8	3.2	1.9	0.6
	은퇴자	(5)	0.0	40.0	0.0	0.0
	학생	(21)	0.0	9.5	0.0	0.0
교육 수준	무직/기타	(26)	3.8	7.7	0.0	0.0
	중졸 이하	(71)	2.8	2.8	2.8	1.4
	고졸	(275)	8.0	6.9	0.4	0.4
	대재 이상	(324)	11.1	5.2	0.0	0.0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35)	2.9	2.9	2.9	0.0
	저소득	(175)	4.0	8.0	1.1	0.6
	중소득	(336)	5.7	3.6	0.3	0.0
	고소득	(194)	18.0	6.7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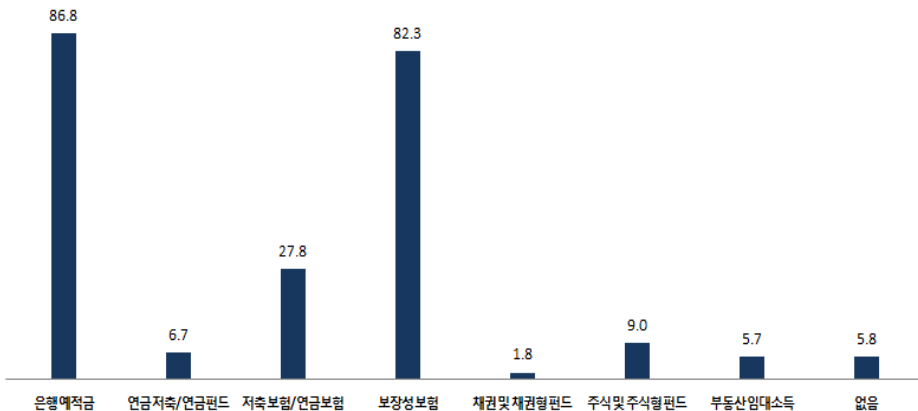
사.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중복 응답)

■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에 대해서 은행 예·적금(86.8%)과 보장성보험(82.3%)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27.8%), 주식 및 주식형 펀드(9.0%), 연금저축 및 예금펀드(6.7%), 부동산 임대소득(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유한 금융자산 중 은행 예·적금 보유율은 30대(95.5%), 화이트칼라(95.4%), 대재 이상(94.9%), 고소득(9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4〉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중복 응답)

(N=1,200 / 단위: %)



〈표 IV-77〉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중복 응답)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은행 예·적금	연금저축 /연금펀드	저축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전체		(1,200)	86.8	6.7	27.8	82.3
성별	남성	(594)	86.7	6.2	26.4	82.7
	여성	(606)	86.8	7.1	29.0	81.8
연령	20대	(197)	89.8	9.1	29.9	86.8
	30대	(222)	95.5	9.0	22.5	88.3
	40대	(258)	92.6	7.4	41.5	85.3
	50대	(240)	85.8	6.7	32.5	85.4
	60대 이상	(283)	73.1	2.5	13.8	68.9
지역 규모	대도시	(550)	92.5	6.7	32.0	89.5
	중·소도시	(553)	85.5	7.1	25.9	78.5
	군지역	(97)	60.8	4.1	14.4	62.9
직업	화이트칼라	(368)	95.4	8.7	35.3	87.0
	블루칼라	(294)	86.1	4.4	23.8	88.1
	농/임/어업	(27)	40.7	0.0	11.1	44.4
	자영업	(158)	88.0	8.9	33.5	82.3
	주부	(267)	87.6	6.4	26.2	79.0
	은퇴자	(12)	25.0	0.0	0.0	58.3
	학생	(38)	78.9	10.5	13.2	81.6
	무직/기타	(36)	55.6	0.0	5.6	4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59.4	0.0	6.9	49.5
	고졸	(482)	83.2	4.8	25.7	83.6
	대재 이상	(547)	94.9	9.9	34.0	88.3
	모름/무응답	(70)	87.1	4.3	22.9	7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70.7	1.5	10.2	65.4
	중소득	(622)	89.2	5.0	28.5	85.7
	고소득	(312)	95.5	14.4	41.3	89.7

〈표 IV-78〉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중복 응답) (2)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채권 및 채권형 펀드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부동산 임대소득	없음
전체		(1,200)	1.8	9.0	5.7	5.8
성별	남성	(594)	1.9	9.9	4.7	6.1
	여성	(606)	1.7	8.1	6.6	5.4
연령	20대	(197)	2.0	12.7	3.0	4.1
	30대	(222)	1.4	8.6	0.9	0.9
	40대	(258)	0.8	13.2	3.1	3.1
	50대	(240)	4.2	9.2	10.4	5.0
	60대 이상	(283)	0.7	2.8	9.5	13.8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8	8.9	7.8	1.8
	중·소도시	(553)	1.8	10.7	3.8	6.5
	군지역	(97)	1.0	0.0	4.1	23.7
직업	화이트칼라	(368)	2.4	15.2	3.0	2.4
	블루칼라	(294)	0.7	4.8	3.7	4.4
	농/임/어업	(27)	0.0	0.0	3.7	37.0
	자영업	(158)	3.8	11.4	10.8	3.2
	주부	(267)	0.7	5.6	9.4	6.0
	은퇴자	(12)	8.3	16.7	0.0	8.3
	학생	(38)	2.6	7.9	2.6	10.5
	무직/기타	(36)	0.0	0.0	5.6	30.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0.0	0.0	5.9	28.7
	고졸	(482)	1.2	4.6	6.0	5.8
	대재 이상	(547)	2.7	15.0	5.5	1.3
	모름/무응답	(70)	0.0	5.7	4.3	7.1
가구 소득	저소득	(266)	0.0	1.5	3.8	15.0
	중소득	(622)	1.0	6.9	4.2	4.2
	고소득	(312)	4.8	19.6	10.3	1.0

아. 금융자산별 보유율

- 은행 예·적금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유율이 80% 이상으로 나온 가운데, 나머지 금융자산은 보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79〉 보유한 금융자산별 보유율

(단위: %)

구분	보유	미보유
은행 예·적금	86.8	13.3
연금저축(은행) 및 예금펀드(증권)	6.7	93.3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보험회사)	27.8	72.3
보장성보험	82.3	17.8
채권 및 채권형 펀드	1.8	98.3
주식 및 주식형 펀드	9.0	91.0
부동산 임대소득	5.7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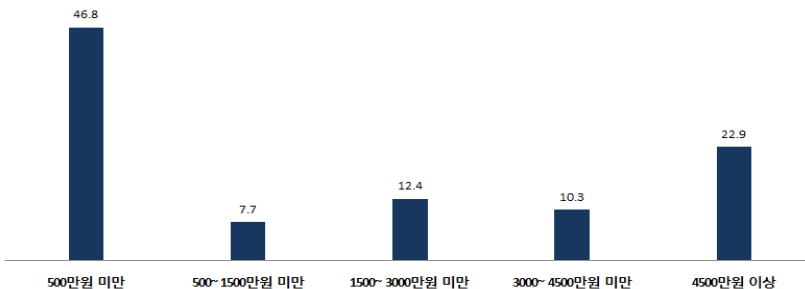
자.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총액)

-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총액)을 물어본 결과, 보유한 금융자산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500만 원 이상’(22.9%), ‘1,500~3,000만 원 미만’(12.4%), ‘3,000~4,500만 원 미만’(10.3%)순으로 나타남.

○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균 규모는 약 2,822만 원임.

〈그림 IV-55〉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총액)

(N=1,041 / 단위: %)



〈표 IV-80〉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총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00만 원 미만	500~1,500만 원 미만	1,500~3,000만 원 미만	3,000~4,500만 원 미만	4,500만 원 이상
전체		(1,041)	46.8	7.7	12.4	10.3	22.9
성별	남성	(515)	46.6	9.1	12.6	10.5	21.2
	여성	(526)	47.0	6.3	12.2	10.1	24.5
연령	20대	(177)	51.4	8.5	10.2	5.1	24.9
	30대	(212)	48.1	9.4	17.5	12.3	12.7
	40대	(239)	47.7	4.2	11.7	10.5	25.9
	50대	(206)	45.1	8.3	8.3	8.3	30.1
	60대 이상	(207)	42.0	8.7	14.0	14.5	20.8
지역 규모	대도시	(509)	46.2	5.5	12.2	12.0	24.2
	중·소도시	(473)	45.7	9.3	13.5	9.3	22.2
	군지역	(59)	61.0	13.6	5.1	3.4	16.9
직업	화이트칼라	(351)	45.6	8.0	12.8	7.1	26.5
	블루칼라	(253)	46.6	7.9	14.2	12.3	19.0
	농/임/어업	(11)	54.5	9.1	9.1	9.1	18.2
	자영업	(139)	41.7	5.0	12.9	13.7	26.6
	주부	(234)	48.7	5.6	11.1	11.5	23.1
	은퇴자	(3)	100.0	0.0	0.0	0.0	0.0
	학생	(30)	63.3	16.7	6.7	6.7	6.7
	무직/기타	(20)	45.0	30.0	5.0	1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0)	53.3	10.0	11.7	8.3	16.7
	고졸	(401)	44.4	7.5	14.0	12.5	21.7
	대재 이상	(519)	47.4	6.4	11.8	8.7	25.8
	모름/무응답	(61)	50.8	18.0	8.2	11.5	11.5
가구 소득	저소득	(188)	47.3	15.4	14.9	10.6	11.7
	중소득	(555)	48.6	7.0	14.2	10.6	19.5
	고소득	(298)	43.0	4.0	7.4	9.4	36.2

차. 금융자산별 납입금액(총액)

- 보유한 금융자산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채권 및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4,5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음.

〈표 IV-81〉 보유한 금융자산별 납입금액(총액)

(단위: %)

구분	500만 원 미만	500~1,500만 원 미만	1,500~3,000만 원 미만	3,000~4,500만 원 미만	4,500만 원 이상
은행 예·적금	49.8	14.6	15.9	9.3	10.4
연금저축(은행) 및 예금펀드(증권)	51.3	6.3	17.5	10.0	15.0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보험회사)	67.9	7.2	11.4	10.2	3.3
보장성보험	62.1	24.6	9.9	2.6	0.7
채권 및 채권형 펀드	4.8	14.3	28.6	23.8	28.6
주식 및 주식형 펀드	13.0	21.3	28.7	21.3	15.7
부동산 임대소득	76.5	13.2	5.9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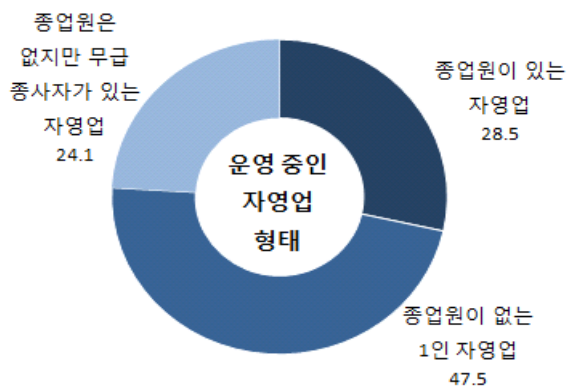
6.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가.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

-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를 물어본 결과,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이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28.5%),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 (24.1%)의 순이었음.
 -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57.4%), 60대 이상(5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6〉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

(N=158 / 단위: %)



〈표 IV-82〉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
전체		(158)	28.5	47.5	24.1
성별	남성	(111)	34.2	43.2	22.5
	여성	(47)	14.9	57.4	27.7
연령	20대	(4)	0.0	100.0	0.0
	30대	(12)	25.0	66.7	8.3
	40대	(38)	26.3	34.2	39.5
	50대	(55)	38.2	38.2	23.6
	60대 이상	(49)	22.4	59.2	18.4
지역 규모	대도시	(69)	24.6	55.1	20.3
	중·소도시	(72)	34.7	37.5	27.8
	군지역	(17)	17.6	58.8	23.5
직업	자영업	(158)	28.5	47.5	24.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12.5	62.5	25.0
	고졸	(98)	24.5	50.0	25.5
	대재 이상	(44)	38.6	38.6	22.7
	모름/무응답	(8)	37.5	50.0	12.5
가구 소득	저소득	(29)	13.8	79.3	6.9
	중소득	(73)	23.3	45.2	31.5
	고소득	(56)	42.9	33.9	23.2

1) 현재의 자영업 종사기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의 종사기간을 살펴본 결과, ‘7~1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25년 미만’(31.0%), ‘3~7년 미만’(14.6%), ‘25년 이상’(13.3%) 등의 순임.

〈표 IV-83〉 현재의 자영업 종사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년 미만	3~7년 미만	7~15년 미만	15~25년 미만	25년 이상
전체		(158)	6.3	14.6	34.8	31.0	13.3
성별	남성	(111)	6.3	14.4	37.8	27.0	14.4
	여성	(47)	6.4	14.9	27.7	40.4	10.6
연령	20대	(4)	75.0	0.0	25.0	0.0	0.0
	30대	(12)	16.7	41.7	41.7	0.0	0.0
	40대	(38)	2.6	23.7	52.6	21.1	0.0
	50대	(55)	7.3	14.5	21.8	43.6	12.7
	60대 이상	(49)	0.0	2.0	34.7	34.7	28.6
지역 규모	대도시	(69)	7.2	18.8	33.3	30.4	10.1
	중·소도시	(72)	5.6	12.5	37.5	31.9	12.5
	군지역	(17)	5.9	5.9	29.4	29.4	29.4
직업	자영업	(158)	6.3	14.6	34.8	31.0	1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0.0	0.0	37.5	50.0	12.5
	고졸	(98)	7.1	8.2	29.6	40.8	14.3
	대재 이상	(44)	6.8	29.5	45.5	9.1	9.1
	모름/무응답	(8)	0.0	25.0	37.5	12.5	25.0
가구 소득	저소득	(29)	6.9	6.9	31.0	31.0	24.1
	중소득	(73)	5.5	16.4	24.7	42.5	11.0
	고소득	(56)	7.1	16.1	50.0	16.1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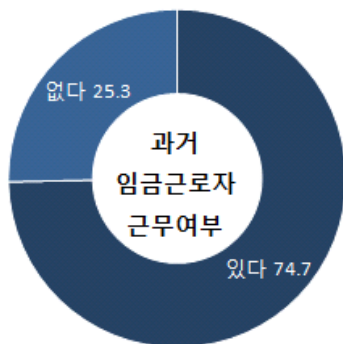
나. 과거 임금 근로자 근무 여부

■ 현재의 자영업 종사 전 임금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4.7%로 ‘경험이 없다’(25.3%)는 응답에 비해 3배 정도 많이 나타남.

○ 임금 근로자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82.0%), 50대(85.5%), 고소득층(8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7〉 과거 임금 근로자 근무 여부

(N=158 / 단위: %)



〈표 IV-84〉 과거 임금 근로자 근무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58)	74.7	25.3
성별	남성	(111)	82.0	18.0
	여성	(47)	57.4	42.6
연령	20대	(4)	25.0	75.0
	30대	(12)	75.0	25.0
	40대	(38)	81.6	18.4
	50대	(55)	85.5	14.5
	60대 이상	(49)	61.2	38.8
지역 규모	대도시	(69)	84.1	15.9
	중·소도시	(72)	66.7	33.3
	군지역	(17)	70.6	29.4

〈표 IV-84〉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직업	자영업	(158)	74.7	25.3
	중졸 이하	(8)	50.0	50.0
교육 수준	고졸	(98)	74.5	25.5
	대재 이상	(44)	81.8	18.2
	모름/무응답	(8)	62.5	37.5
가구 소득	저소득	(29)	48.3	51.7
	중소득	(73)	75.3	24.7
	고소득	(56)	87.5	12.5

1) 임금 근로 경험 및 근무 기간

- 자영업 종사 전의 임금 근로 종사기간을 살펴본 결과, ‘7~1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7년 미만’(24.6%), ‘15~25년 미만’(21.2%), ‘25년 이상’(6.8%) 등의 순임.

〈표 IV-85〉 근로자 근무 이력 시 근무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년 미만	3~7년 미만	7~15년 미만	15~25년 미만	25년 이상
전체		(118)	4.2	24.6	43.2	21.2	6.8
성별	남성	(91)	4.4	24.2	39.6	23.1	8.8
	여성	(27)	3.7	25.9	55.6	14.8	0.0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0.0
	30대	(9)	22.2	33.3	44.4	0.0	0.0
	40대	(31)	0.0	41.9	48.4	9.7	0.0
	50대	(47)	4.3	19.1	48.9	25.5	2.1
	60대 이상	(30)	0.0	13.3	30.0	33.3	23.3
지역 규모	대도시	(58)	5.2	27.6	36.2	20.7	10.3
	중·소도시	(48)	4.2	25.0	39.6	27.1	4.2
	군지역	(12)	0.0	8.3	91.7	0.0	0.0
직업		(118)	4.2	24.6	43.2	21.2	6.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25.0	0.0	50.0	25.0	0.0
	고졸	(73)	1.4	20.5	45.2	23.3	9.6
	대재 이상	(36)	8.3	36.1	38.9	13.9	2.8
	모름/무응답	(5)	0.0	20.0	40.0	4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4)	0.0	28.6	21.4	42.9	7.1
	중소득	(55)	3.6	20.0	45.5	20.0	10.9
	고소득	(49)	6.1	28.6	46.9	16.3	2.0

2) 퇴직 후 현재 자영업 개시 여부

- 임금 근로자 퇴직 후에 현재 자영업 개시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퇴직 후 현재 자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응답이 62.7%로, ‘그렇지 않다’(37.3%)는 응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V-86〉 퇴직 후 현재 자영업 개시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18)	62.7	37.3
성별	남성	(91)	63.7	36.3
	여성	(27)	59.3	40.7
연령	20대	(1)	100.0	0.0
	30대	(9)	77.8	22.2
	40대	(31)	54.8	45.2
	50대	(47)	68.1	31.9
	60대 이상	(30)	56.7	43.3
지역 규모	대도시	(58)	67.2	32.8
	중·소도시	(48)	58.3	41.7
	군지역	(12)	58.3	41.7
직업	자영업	(118)	62.7	3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25.0	75.0
	고졸	(73)	65.8	34.2
	대재 이상	(36)	61.1	38.9
	모름/무응답	(5)	60.0	40.0
가구 소득	저소득	(14)	50.0	50.0
	중소득	(55)	63.6	36.4
	고소득	(49)	65.3	34.7

3) 퇴직 후 현재 자영업 개시 연령대

- 임금 근로자 퇴직 후에 현재 자영업 개시 연령대를 확인해본 결과, '35~40세'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5세 이상'(23.0%), '30~35세 미만'과 '40~45세'(각 20.3%) 등의 순이었음.

〈표 IV-87〉 퇴직 후 현재 자영업 개시 연령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20대	30~35세 미만	35~40세 미만	40~45세 미만	45세 이상
전체		(74)	9.5	20.3	27.0	20.3	23.0
성별	남성	(58)	12.1	22.4	24.1	15.5	25.9
	여성	(16)	0.0	12.5	37.5	37.5	12.5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0.0
	30대	(7)	28.6	57.1	14.3	0.0	0.0
	40대	(17)	5.9	11.8	58.8	23.5	0.0
	50대	(32)	9.4	18.8	25.0	18.8	28.1
	60대 이상	(17)	0.0	17.6	5.9	29.4	47.1
지역 규모	대도시	(39)	7.7	17.9	23.1	23.1	28.2
	중·소도시	(28)	10.7	25.0	25.0	21.4	17.9
	군지역	(7)	14.3	14.3	57.1	0.0	14.3
직업	자영업	(74)	9.5	20.3	27.0	20.3	23.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0.0	0.0	0.0	0.0	100.0
	고졸	(48)	8.3	20.8	20.8	27.1	22.9
	대재 이상	(22)	13.6	18.2	40.9	9.1	18.2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0.0	33.3
가구 소득	저소득	(7)	0.0	28.6	0.0	42.9	28.6
	중소득	(35)	2.9	22.9	34.3	20.0	20.0
	고소득	(32)	18.8	15.6	25.0	15.6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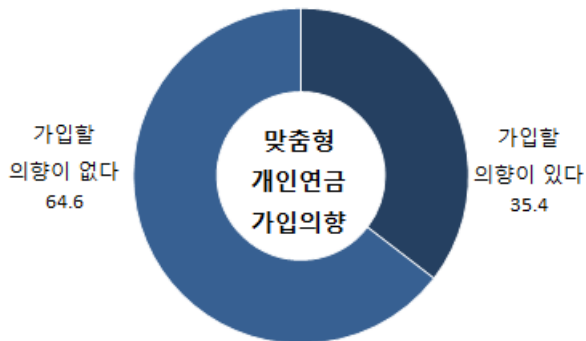
다.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1)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이 제공될 경우 가입의향을 물어본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4%로 ‘가입할 의향이 없다’(64.6%)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았음.
- 맞춤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0대(47.4%), 군지역(47.1%), 중소득층(4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8〉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N=158 / 단위: %)



〈표 IV-88〉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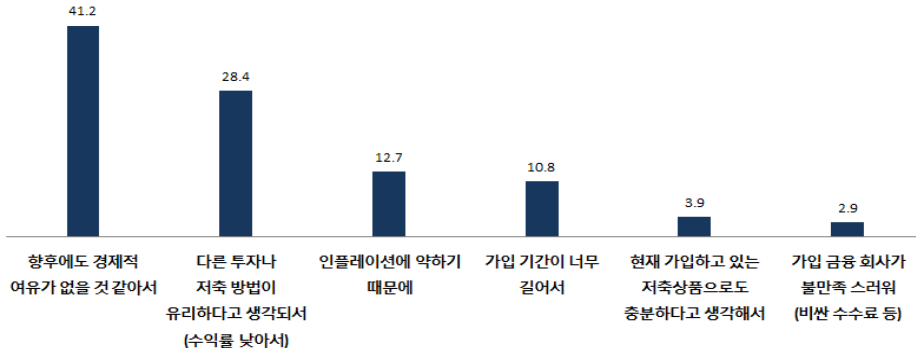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할 의향 있다	가입할 의향 없다
전체		(158)	35.4	64.6
성별	남성	(111)	36.0	64.0
	여성	(47)	34.0	66.0
연령	20대	(4)	0.0	100.0
	30대	(12)	58.3	41.7
	40대	(38)	47.4	52.6
	50대	(55)	40.0	60.0
	60대 이상	(49)	18.4	81.6
지역 규모	대도시	(69)	36.2	63.8
	중·소도시	(72)	31.9	68.1
	군지역	(17)	47.1	52.9
직업	자영업	(158)	35.4	64.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25.0	75.0
	고졸	(98)	34.7	65.3
	대재 이상	(44)	38.6	61.4
	모름/무응답	(8)	37.5	62.5
가구 소득	저소득	(29)	13.8	86.2
	중소득	(73)	43.8	56.2
	고소득	(56)	35.7	64.3

2)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28.4%), ‘인플레이션에 약하기 때문에’(12.7%) 등의 순임.

〈그림 IV-59〉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N=102 / 단위: %)



〈표 IV-89〉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1)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익을 낮아서)	인플레이션에 약하기 때문에
전체		(102)	41.2	28.4	12.7
성별	남성	(71)	50.7	22.5	12.7
	여성	(31)	19.4	41.9	12.9
연령	20대	(4)	75.0	25.0	0.0
	30대	(5)	40.0	40.0	0.0
	40대	(20)	40.0	25.0	20.0
	50대	(33)	36.4	39.4	12.1
	60대 이상	(40)	42.5	20.0	12.5
지역 규모	대도시	(44)	38.6	29.5	20.5
	중·소도시	(49)	49.0	20.4	6.1
	군지역	(9)	11.1	66.7	11.1
직업	자영업	(102)	41.2	28.4	12.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50.0	16.7	0.0
	고졸	(64)	46.9	31.3	10.9
	대재 이상	(27)	33.3	29.6	18.5
	모름/무응답	(5)	0.0	0.0	20.0
가구 소득	저소득	(25)	64.0	12.0	12.0
	중소득	(41)	31.7	36.6	17.1
	고소득	(36)	36.1	30.6	8.3

〈표 IV-90〉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2)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가입 금융회사가 불만족스러워 (비싼 수수료 등)
전체		(102)	10.8	3.9	2.9
성별	남성	(71)	7.0	2.8	4.2
	여성	(31)	19.4	6.5	0.0
연령	20대	(4)	0.0	0.0	0.0
	30대	(5)	0.0	20.0	0.0
	40대	(20)	10.0	0.0	5.0
	50대	(33)	6.1	6.1	0.0
	60대 이상	(40)	17.5	2.5	5.0
지역 규모	대도시	(44)	6.8	2.3	2.3
	중·소도시	(49)	14.3	6.1	4.1
	군지역	(9)	11.1	0.0	0.0
직업	자영업	(102)	10.8	3.9	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33.3	0.0	0.0
	고졸	(64)	6.3	1.6	3.1
	대재 이상	(27)	11.1	7.4	0.0
	모름/무응답	(5)	40.0	20.0	20.0
가구 소득	저소득	(25)	12.0	0.0	0.0
	중소득	(41)	7.3	2.4	4.9
	고소득	(36)	13.9	8.3	2.8

라.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및 가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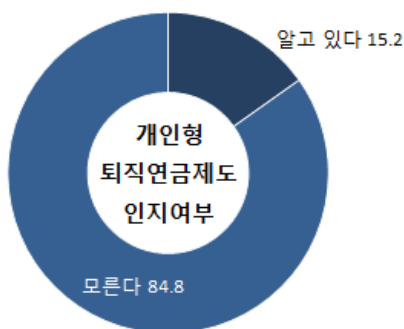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여부

-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84.8%로, ‘알고 있다’(15.2%)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개정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89.4%), 60대 이상(91.8%), 고졸(9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여부

(N=158 / 단위: %)



〈표 IV-9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58)	15.2	84.8
성별	남성	(111)	17.1	82.9
	여성	(47)	10.6	89.4
연령	20대	(4)	0.0	100.0
	30대	(12)	16.7	83.3
	40대	(38)	13.2	86.8
	50대	(55)	23.6	76.4
	60대 이상	(49)	8.2	91.8
지역 규모	대도시	(69)	18.8	81.2
	중·소도시	(72)	15.3	84.7
	군지역	(17)	0.0	100.0
직업	자영업	(158)	15.2	84.8

〈표 IV-91〉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른다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0.0	100.0
	고졸	(98)	9.2	90.8
	대재 이상	(44)	34.1	65.9
	모름/무응답	(8)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29)	3.4	96.6
	중소득	(73)	15.1	84.9
	고소득	(56)	21.4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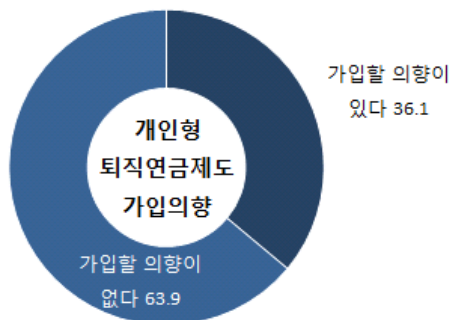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향

■ 기존의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시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6.1%로 ‘가입할 의향이 없다’(63.9%)는 응답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7.6%), 고소득층(7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향

(N=158 / 단위: %)



〈표 IV-9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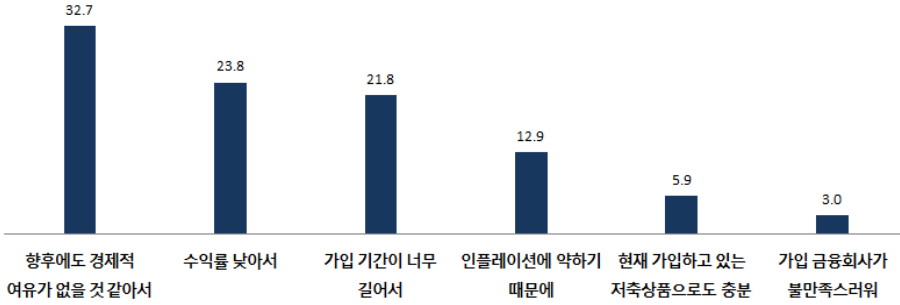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할 의향이 있다	가입할 의향이 없다
전체		(158)	36.1	63.9
성별	남성	(111)	38.7	61.3
	여성	(47)	29.8	70.2
연령	20대	(4)	25.0	75.0
	30대	(12)	50.0	50.0
	40대	(38)	39.5	60.5
	50대	(55)	43.6	56.4
	60대 이상	(49)	22.4	77.6
지역 규모	대도시	(69)	36.2	63.8
	중·소도시	(72)	34.7	65.3
	군지역	(17)	41.2	58.8
직업	자영업	(158)	36.1	63.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25.0	75.0
	고졸	(98)	39.8	60.2
	대재 이상	(44)	31.8	68.2
	모름/무응답	(8)	25.0	75.0
가구 소득	저소득	(29)	24.1	75.9
	중소득	(73)	47.9	52.1
	고소득	(56)	26.8	73.2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서’(23.8%),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서’(21.8%), ‘인플레이션에 약하기 때문에’(12.9%) 등의 순이었음.

〈그림 IV-6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N=101 / 단위: %)



〈표 IV-9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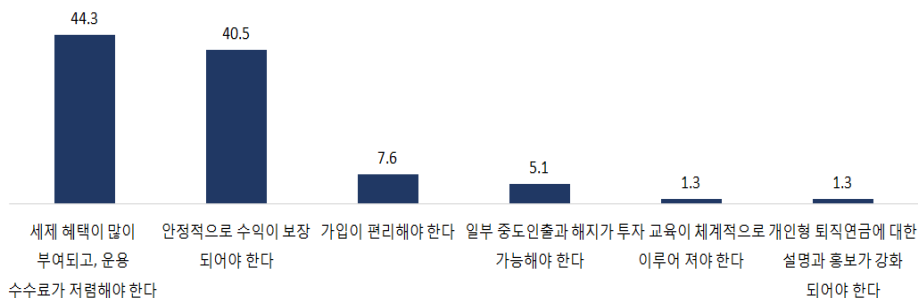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수익률 낮아서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인플레 이션에 약하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축상품 으로도 충분	가입 금융회사 불만족
전체		(101)	32.7	23.8	21.8	12.9	5.9	3.0
성별	남성	(68)	33.8	23.5	23.5	10.3	4.4	4.4
	여성	(33)	30.3	24.2	18.2	18.2	9.1	0.0
연령	20대	(3)	0.0	66.7	0.0	0.0	0.0	33.3
	30대	(6)	16.7	50.0	0.0	0.0	33.3	0.0
	40대	(23)	34.8	26.1	21.7	13.0	4.3	0.0
	50대	(31)	41.9	22.6	19.4	6.5	6.5	3.2
	60대 이상	(38)	28.9	15.8	28.9	21.1	2.6	2.6
지역 규모	대도시	(44)	29.5	29.5	22.7	9.1	9.1	0.0
	중·소도시	(47)	40.4	17.0	21.3	12.8	4.3	4.3
	군지역	(10)	10.0	30.0	20.0	30.0	0.0	10.0
직업		(101)	32.7	23.8	21.8	12.9	5.9	3.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50.0	16.7	16.7	16.7	0.0	0.0
	고졸	(59)	37.3	16.9	25.4	10.2	6.8	3.4
	대재 이상	(30)	23.3	43.3	13.3	10.0	6.7	3.3
	모름/무응답	(6)	16.7	0.0	33.3	5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2)	50.0	9.1	18.2	13.6	4.5	4.5
	중소득	(38)	36.8	21.1	18.4	18.4	2.6	2.6
	고소득	(41)	19.5	34.1	26.8	7.3	9.8	2.4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 방안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를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물어본 결과, ‘세제 혜택이 많이 부여되고,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40.5%), ‘가입이 편리해야 한다’(7.6%) 등의 순이었음.

〈그림 IV-6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 방안

(N=158 / 단위: %)



〈표 IV-9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 방안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되고,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 되어야 한다	가입이 편리해야 한다	일부 중도인출 하거나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형 퇴직 연금에 대해 설명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158)	44.3	40.5	7.6	5.1	1.3	1.3
성별	남성	(111)	46.8	42.3	6.3	3.6	0.0	0.9
	여성	(47)	38.3	36.2	10.6	8.5	4.3	2.1
연령	20대	(4)	25.0	50.0	25.0	0.0	0.0	0.0
	30대	(12)	50.0	41.7	8.3	0.0	0.0	0.0
	40대	(38)	44.7	44.7	5.3	5.3	0.0	0.0
	50대	(55)	43.6	45.5	7.3	1.8	0.0	1.8
	60대 이상	(49)	44.9	30.6	8.2	10.2	4.1	2.0

〈표 IV-94〉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세제 혜택이 많이 부여되고,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입이 편리해야 한다	일부 중도인출 하거나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형 퇴직 연금에 대해 설명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규모	대도시	(69)	46.4	42.0	5.8	4.3	0.0	1.4
	중·소도시	(72)	47.2	34.7	9.7	4.2	2.8	1.4
	군지역	(17)	23.5	58.8	5.9	11.8	0.0	0.0
직업	자영업	(158)	44.3	40.5	7.6	5.1	1.3	1.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25.0	37.5	12.5	12.5	0.0	12.5
	고졸	(98)	41.8	41.8	9.2	5.1	1.0	1.0
	대재 이상	(44)	54.5	38.6	4.5	2.3	0.0	0.0
	모름/무응답	(8)	37.5	37.5	0.0	12.5	12.5	0.0
가구 소득	저소득	(29)	37.9	27.6	24.1	3.4	3.4	3.4
	중소득	(73)	46.6	41.1	5.5	5.5	1.4	0.0
	고소득	(56)	44.6	46.4	1.8	5.4	0.0	1.8

7.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가. 화재보험 가입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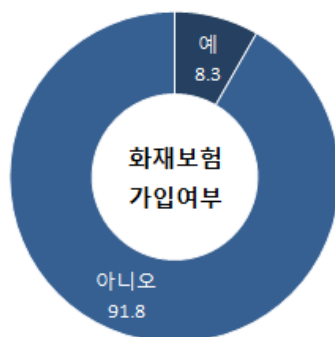
1) 화재보험 가입여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본 결과, 화재보험 가입 가구는 8.3%로 매우 낮게 나타남.

○ 거주하고 있는 집의 화재보험가입률은 50대(12.5%), 군지역 거주자(12.4%), 자영업 종사자(24.1%), 자가 보유자(11.1%)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져 고소득층(1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4〉 화재보험 가입여부

(N=1,200 / 단위: %)



〈표 IV-95〉 화재보험 가입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200)	8.3	91.8
성별	남성	(594)	9.6	90.4
	여성	(606)	6.9	93.1
연령	20대	(197)	2.5	97.5
	30대	(222)	5.0	95.0
	40대	(258)	11.6	88.4
	50대	(240)	12.5	87.5
	60대 이상	(283)	8.1	91.9
지역 규모	대도시	(550)	8.9	91.1
	중·소도시	(553)	6.9	93.1
	군지역	(97)	12.4	87.6
직업	화이트칼라	(368)	7.6	92.4
	블루칼라	(294)	3.7	96.3
	농/임/어업	(27)	7.4	92.6
	자영업	(158)	24.1	75.9
	주부	(267)	5.6	94.4
	은퇴자	(12)	0.0	100.0
	학생	(38)	2.6	97.4
	무직/기타	(36)	11.1	88.9

〈표 IV-95〉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5.9	94.1
	고졸	(482)	9.8	90.2
	대재 이상	(547)	7.7	92.3
	모름/무응답	(70)	5.7	9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8	96.2
	중소득	(622)	7.1	92.9
	고소득	(312)	14.4	85.6
거주 형태별	자가	(826)	11.1	88.9
	전세	(280)	2.5	97.5
	월세	(94)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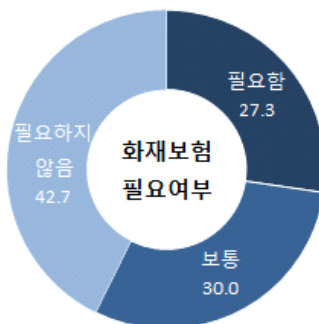
2) 화재보험 필요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필요하다’(27.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자영업(34.2%), 고소득층(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5〉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N=1,200 / 단위: %)



〈표 IV-96〉 화재보험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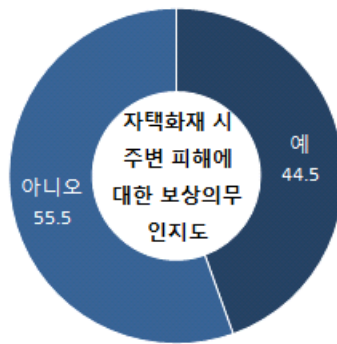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전체		(1,200)	27.3	30.0	42.7
성별	남성	(594)	28.8	29.6	41.6
	여성	(606)	25.9	30.4	43.7
연령	20대	(197)	26.4	33.5	40.1
	30대	(222)	27.0	31.1	41.9
	40대	(258)	30.6	29.8	39.5
	50대	(240)	30.0	29.2	40.8
	60대 이상	(283)	23.0	27.6	49.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31.3	32.2	36.5
	중·소도시	(553)	24.1	28.8	47.2
	군지역	(97)	23.7	24.7	51.5
직업	화이트칼라	(368)	31.5	29.6	38.9
	블루칼라	(294)	20.7	31.6	47.6
	농/임/어업	(27)	22.2	25.9	51.9
	자영업	(158)	34.2	31.0	34.8
	주부	(267)	24.3	30.3	45.3
	은퇴자	(12)	50.0	16.7	33.3
	학생	(38)	28.9	31.6	39.5
	무직/기타	(36)	25.0	19.4	5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10.9	28.7	60.4
	고졸	(482)	27.4	26.8	45.9
	대재 이상	(547)	30.2	34.7	35.1
	모름/무응답	(70)	28.6	17.1	54.3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2.8	25.9	61.3
	중소득	(622)	28.5	32.2	39.4
	고소득	(312)	37.5	29.2	33.3
거주 형태별	자가	(826)	30.6	31.1	38.3
	전세	(280)	23.2	29.6	47.1
	월세	(94)	10.6	21.3	68.1

3) 자택 화재 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인지도

■ 주택 화재로 발생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5%로 ‘모르고 있다’(55.5%)에 비해 11.0%p 낮게 나타남.

〈그림 IV-66〉 자택 화재 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97〉 자택 화재 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200)	44.5	55.5
성별	남성	(594)	47.1	52.9
	여성	(606)	41.9	58.1
연령	20대	(197)	38.6	61.4
	30대	(222)	45.5	54.5
	40대	(258)	53.1	46.9
	50대	(240)	49.2	50.8
	60대 이상	(283)	36.0	64.0
지역 규모	대도시	(550)	51.8	48.2
	중·소도시	(553)	39.2	60.8
	군지역	(97)	33.0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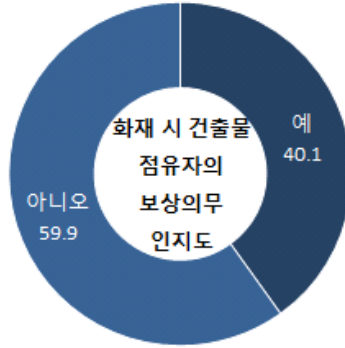
〈표 IV-97〉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직업	화이트칼라	(368)	50.0	50.0
	블루칼라	(294)	42.5	57.5
	농/임/어업	(27)	29.6	70.4
	자영업	(158)	50.0	50.0
	주부	(267)	39.7	60.3
	은퇴자	(12)	33.3	66.7
	학생	(38)	34.2	65.8
	무직/기타	(36)	41.7	58.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32.7	67.3
	고졸	(482)	41.3	58.7
	대재 이상	(547)	53.0	47.0
	모름/무응답	(70)	17.1	8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31.2	68.8
	중소득	(622)	44.9	55.1
	고소득	(312)	55.1	44.9
거주 형태별	자가	(826)	46.5	53.5
	전세	(280)	43.6	56.4
	월세	(94)	29.8	70.2

4) 화재 시 건축물 점유자의 화재 책임 인지도

- 우발적인 화재로 인한 피해도 화재 시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화재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10명 중 4명(40.1%)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67〉 화재 시 건축물 점유자의 보상 의무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98〉 화재 시 건축물 점유자의 화재 책임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200)	40.1	59.9
성별	남성	(594)	44.1	55.9
	여성	(606)	36.1	63.9
연령	20대	(197)	35.0	65.0
	30대	(222)	44.1	55.9
	40대	(258)	46.9	53.1
	50대	(240)	45.4	54.6
	60대 이상	(283)	29.7	70.3
지역 규모	대도시	(550)	44.4	55.6
	중·소도시	(553)	38.0	62.0
	군지역	(97)	27.8	72.2
직업	화이트칼라	(368)	45.7	54.3
	블루칼라	(294)	36.4	63.6
	농/임/어업	(27)	29.6	70.4
	자영업	(158)	48.7	51.3
	주부	(267)	33.3	66.7
	은퇴자	(12)	33.3	66.7
	학생	(38)	34.2	65.8
	무직/기타	(36)	41.7	58.3

〈표 IV-98〉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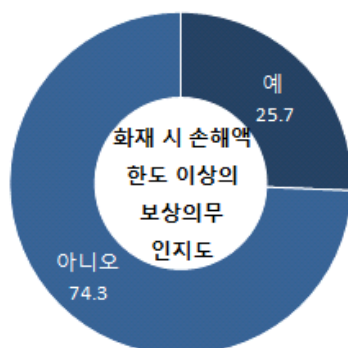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21.8	78.2
	고졸	(482)	38.8	61.2
	대재 이상	(547)	47.5	52.5
	모름/무응답	(70)	17.1	82.9
가구 소득	저소득	(266)	27.8	72.2
	중소득	(622)	41.3	58.7
	고소득	(312)	48.1	51.9
거주 형태별	자가	(826)	42.3	57.7
	전세	(280)	35.7	64.3
	월세	(94)	34.0	66.0

5) 단체화재보험 가입자도 한도 초과 시 개인 추가 보상 의무 인지도

-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개인이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74.3%로 ‘알고 있다’(25.7%)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았음.

〈그림 IV-68〉 단체화재보험 가입자도 한도 초과 시 개인 추가 보상 의무 인지도

(N=1,200 / 단위: %)



〈표 IV-99〉 단체화재보험 가입자도 한도 초과 시 개인 추가 보상 의무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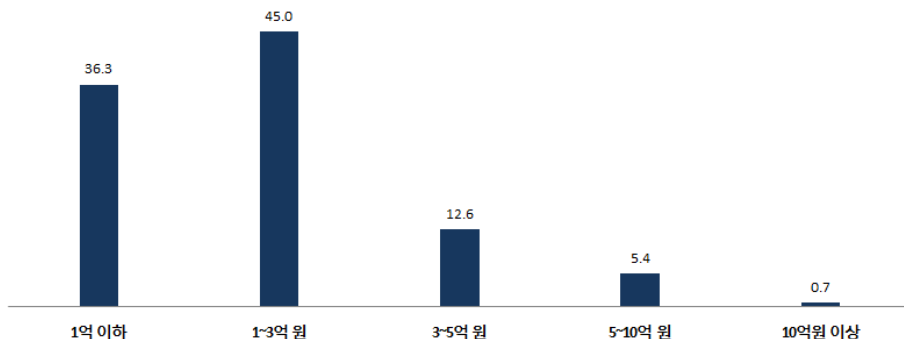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200)	25.7	74.3
성별	남성	(594)	29.5	70.5
	여성	(606)	21.9	78.1
연령	20대	(197)	21.3	78.7
	30대	(222)	30.6	69.4
	40대	(258)	32.2	67.8
	50대	(240)	25.8	74.2
	60대 이상	(283)	18.7	81.3
지역 규모	대도시	(550)	29.8	70.2
	중·소도시	(553)	23.9	76.1
	군지역	(97)	12.4	87.6
직업	화이트칼라	(368)	31.5	68.5
	블루칼라	(294)	20.1	79.9
	농/임/어업	(27)	11.1	88.9
	자영업	(158)	36.7	63.3
	주부	(267)	21.3	78.7
	은퇴자	(12)	33.3	66.7
	학생	(38)	18.4	81.6
	무직/기타	(36)	11.1	88.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9.9	90.1
	고졸	(482)	23.9	76.1
	대재 이상	(547)	32.0	68.0
	모름/무응답	(70)	11.4	88.6
가구 소득	저소득	(266)	17.3	82.7
	중소득	(622)	24.4	75.6
	고소득	(312)	35.3	64.7
거주 형태별	자가	(826)	27.0	73.0
	전세	(280)	24.3	75.7
	월세	(94)	18.1	81.9

6) 주택 화재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1~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하'(36.3%), '3~5억 원 미만'(12.6%)등의 순임.

〈그림 IV-69〉 주택 화재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N=1,200 / 단위: %)



〈표 IV-100〉 주택 화재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억 원 이하	1~3억 원	3~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이상
전체		(1,200)	36.3	45.0	12.6	5.4	0.7
성별	남성	(594)	34.7	44.8	13.8	6.1	0.7
	여성	(606)	38.0	45.2	11.4	4.8	0.7
연령	20대	(197)	31.0	40.6	20.8	6.6	1.0
	30대	(222)	33.8	50.0	10.8	5.0	0.5
	40대	(258)	31.8	49.6	11.2	6.2	1.2
	50대	(240)	34.2	44.2	14.2	6.7	0.8
	60대 이상	(283)	48.1	40.6	8.1	3.2	0.0
지역 규모	대도시	(550)	32.2	46.5	13.8	6.7	0.7
	중·소도시	(553)	38.3	43.4	12.8	4.9	0.5
	군지역	(97)	48.5	45.4	4.1	1.0	1.0

〈표 IV-100〉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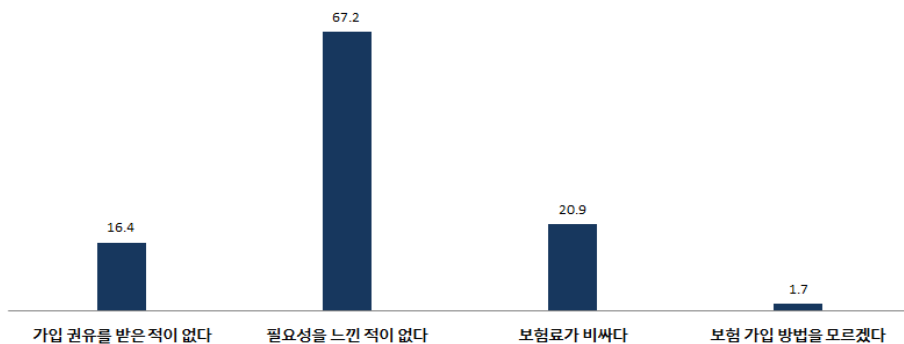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억 원 이하	1~3억 원	3~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이상
직업	화이트칼라	(368)	31.5	45.9	14.4	7.6	0.5
	블루칼라	(294)	37.8	48.3	9.9	3.4	0.7
	농/임/어업	(27)	66.7	29.6	3.7	0.0	0.0
	자영업	(158)	33.5	46.8	9.5	8.9	1.3
	주부	(267)	38.6	43.8	13.9	3.7	0.0
	은퇴자	(12)	25.0	75.0	0.0	0.0	0.0
	학생	(38)	28.9	28.9	34.2	5.3	2.6
	무직/기타	(36)	58.3	27.8	8.3	2.8	2.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68.3	26.7	5.0	0.0	0.0
	고졸	(482)	37.3	45.0	12.0	5.0	0.6
	대재 이상	(547)	30.0	47.0	14.6	7.5	0.9
	모름/무응답	(70)	32.9	55.7	11.4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66)	58.3	35.0	4.1	2.6	0.0
	중소득	(622)	33.3	47.9	14.1	4.2	0.5
	고소득	(312)	23.7	47.8	16.7	10.3	1.6
거주 형태별	자가	(826)	30.4	48.5	14.2	5.9	1.0
	전세	(280)	44.6	41.1	10.7	3.6	0.0
	월세	(94)	63.8	25.5	4.3	6.4	0.0

7)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낀적이 없다’는 응답이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료가 비싸다’(20.9%), ‘가입 권유를 받은 적 없다’(16.4%) 등의 순임.

〈그림 IV-70〉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N=1,200 / 단위: %)



〈표 IV-101〉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권유 받은 적 없다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 가입방법을 모르겠다
전체		(1,101)	16.4	67.2	20.9	1.7
성별	남성	(537)	15.1	68.5	19.6	1.5
	여성	(564)	17.7	66.0	22.2	2.0
연령	20대	(192)	20.8	65.6	16.7	3.1
	30대	(211)	14.2	70.6	19.0	0.5
	40대	(228)	17.1	68.4	22.4	0.9
	50대	(210)	17.1	65.7	23.3	0.5
	60대 이상	(260)	13.8	65.8	22.3	3.5
지역 규모	대도시	(501)	15.4	63.1	26.9	0.6
	중·소도시	(515)	18.3	70.3	15.9	2.7
	군지역	(85)	11.8	72.9	15.3	2.4
직업	화이트칼라	(340)	16.8	67.9	20.0	0.9
	블루칼라	(283)	15.5	63.6	25.4	2.5
	농/임/어업	(25)	16.0	68.0	12.0	4.0
	자영업	(120)	16.7	66.7	20.0	0.8
	주부	(252)	16.7	70.2	20.2	0.8
	은퇴자	(12)	16.7	66.7	16.7	8.3
	학생	(37)	21.6	64.9	10.8	8.1
	무직/기타	(32)	12.5	71.9	18.8	3.1

〈표 IV-10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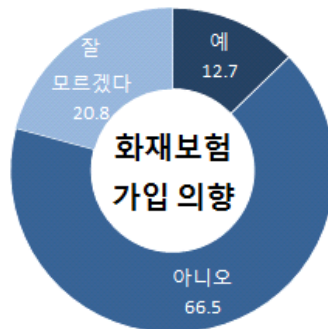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가입 권유 받은 적 없다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 가입방법을 모르겠다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5)	12.6	72.6	20.0	4.2
	고졸	(435)	14.5	65.3	23.9	2.1
	대재 이상	(505)	19.0	66.3	20.4	1.0
	모름/무응답	(66)	15.2	78.8	6.1	1.5
가구 소득	저소득	(256)	14.1	69.1	20.7	2.7
	중소득	(578)	15.6	66.8	22.5	1.6
	고소득	(267)	20.6	66.3	17.6	1.1
거주 형태별	자가	(826)	16.8	66.2	20.8	2.0
	전세	(280)	16.1	68.9	21.6	0.7
	월세	(94)	14.9	70.2	19.1	2.1

8) 화재보험 가입의향

- 향후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12.7%로 ‘가입하지 않겠다’(66.5%)는 응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IV-71〉 화재보험 가입의향

(N=1,101 / 단위: %)



〈표 IV-102〉 화재보험 가입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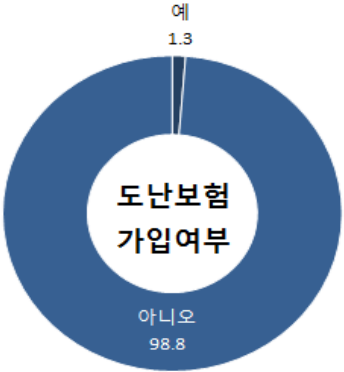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1,101)	12.7	66.5	20.8
성별	남성	(537)	13.0	68.5	18.4
	여성	(564)	12.4	64.5	23.0
연령	20대	(192)	11.5	64.6	24.0
	30대	(211)	13.7	69.2	17.1
	40대	(228)	15.4	61.4	23.2
	50대	(210)	14.3	67.1	18.6
	60대 이상	(260)	9.2	69.6	21.2
지역 규모	대도시	(501)	14.6	68.5	17.0
	중·소도시	(515)	11.5	67.4	21.2
	군지역	(85)	9.4	49.4	41.2
직업	화이트칼라	(340)	14.1	67.6	18.2
	블루칼라	(283)	10.6	66.8	22.6
	농/임/어업	(25)	8.0	52.0	40.0
	자영업	(120)	15.8	65.0	19.2
	주부	(252)	12.3	69.8	17.9
	은퇴자	(12)	25.0	33.3	41.7
	학생	(37)	13.5	56.8	29.7
	무직/기타	(32)	6.3	65.6	2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5)	3.2	77.9	18.9
	고졸	(435)	11.3	65.7	23.0
	대재 이상	(505)	16.6	64.0	19.4
	모름/무응답	(66)	6.1	74.2	19.7
가구 소득	저소득	(256)	6.6	71.1	22.3
	중소득	(578)	11.1	68.3	20.6
	고소득	(267)	22.1	58.1	19.9
거주 형태별	자가	(826)	14.6	62.9	22.5
	전세	(280)	10.6	75.5	13.9
	월세	(94)	4.3	68.1	27.7

나. 도난보험 가입실태

1) 도난보험 가입여부

- 현재 도난보험에 가입여부를 물어본 결과, 도난보험 가입 가구는 1.3%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도난보험가입률은 농/임/어업 종사자(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72〉 도난보험 가입여부
(N=1,200 / 단위: %)



〈표 IV-103〉 도난보험 가입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200)	1.3	98.8
성별	남성	(594)	1.2	98.8
	여성	(606)	1.3	98.7
연령	20대	(197)	0.5	99.5
	30대	(222)	1.8	98.2
	40대	(258)	1.9	98.1
	50대	(240)	1.7	98.3
	60대 이상	(283)	0.4	99.6

〈표 IV-10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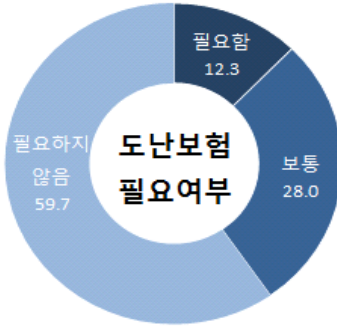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지역 규모	대도시	(550)	1.1	98.9
	중·소도시	(553)	1.6	98.4
	군지역	(97)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368)	2.2	97.8
	블루칼라	(294)	0.7	99.3
	농/임/어업	(27)	3.7	96.3
	자영업	(158)	0.6	99.4
	주부	(267)	1.1	98.9
	은퇴자	(12)	0.0	100.0
	학생	(38)	0.0	100.0
	무직/기타	(36)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0.0	100.0
	고졸	(482)	0.2	99.8
	대재 이상	(547)	2.4	97.6
	모름/무응답	(70)	1.4	98.6
가구 소득	저소득	(266)	0.4	99.6
	중소득	(622)	0.8	99.2
	고소득	(312)	2.9	97.1
거주 형태별	자가	(826)	1.7	98.3
	전세	(280)	0.4	99.6
	월세	(94)	0.0	100.0

2) 도난보험 필요성

■ 현재 도난보험 가입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도난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9.7%로 ‘필요하다’(12.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 도난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군지역(84.5%), 농/임/어업(81.5%), 중졸 이하(8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73〉 도난보험 필요성
(N=1,200 / 단위: %)



〈표 IV-104〉 도난보험 필요성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1,200)	0.3	12.1	28.0	49.3	10.3
성별	남성	(594)	0.2	13.5	25.9	50.2	10.3
	여성	(606)	0.3	10.7	30.0	48.5	10.4
연령	20대	(197)	0.0	15.2	35.0	42.6	7.1
	30대	(222)	0.5	12.6	21.6	56.3	9.0
	40대	(258)	0.8	11.2	32.6	46.9	8.5
	50대	(240)	0.0	10.0	30.4	49.6	10.0
	60대 이상	(283)	0.0	12.0	21.9	50.5	15.5
지역 규모	대도시	(550)	0.2	13.5	32.7	47.1	6.5
	중·소도시	(553)	0.4	12.3	26.0	47.9	13.4
	군지역	(97)	0.0	3.1	12.4	70.1	14.4
직업	화이트칼라	(368)	0.3	13.3	32.6	45.9	7.9
	블루칼라	(294)	0.3	9.9	26.9	50.0	12.9
	농/임/어업	(27)	0.0	3.7	14.8	59.3	22.2
	자영업	(158)	0.0	12.0	30.4	51.3	6.3
	주부	(267)	0.4	12.0	24.7	51.7	11.2
	은퇴자	(12)	0.0	41.7	25.0	33.3	0.0
	학생	(38)	0.0	21.1	23.7	44.7	10.5
	무직/기타	(36)	0.0	5.6	19.4	55.6	19.4

〈표 IV-10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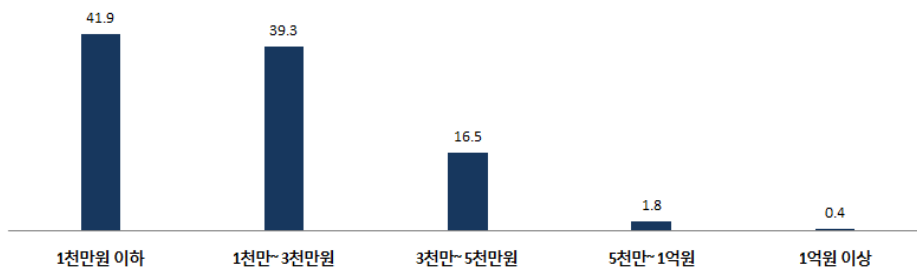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0.0	2.0	15.8	62.4	19.8
	고졸	(482)	0.0	11.6	26.8	49.2	12.4
	대재 이상	(547)	0.5	13.3	32.7	46.1	7.3
	모름/무응답	(70)	0.0	20.0	17.1	57.1	5.7
가구 소득	저소득	(266)	0.0	9.0	16.5	55.6	18.8
	중소득	(622)	0.2	12.9	28.0	50.3	8.7
	고소득	(312)	0.6	13.1	37.8	42.0	6.4
거주 형태별	자가	(826)	0.2	13.4	31.1	46.2	9.0
	전세	(280)	0.4	11.8	21.8	53.2	12.9
	월세	(94)	0.0	1.1	19.1	64.9	14.9

3) 도난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1천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 원~3천만 원 미만’(39.3%),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16.5%)등의 순임.

〈그림 IV-74〉 도난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N=1,200 / 단위: %)



〈표 IV-105〉 도난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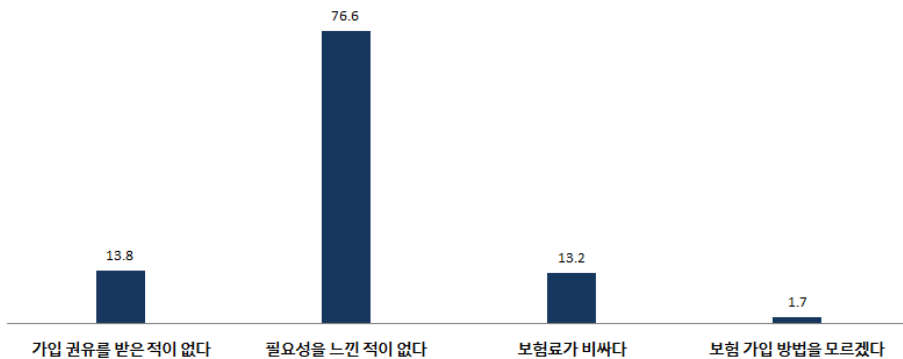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천만 원 이하	1천만 ~3천만 원	3천만 ~5천만 원	5천만 ~1억 원	1억 원 이상
전체		(1,200)	41.9	39.3	16.5	1.8	0.4
성별	남성	(594)	40.9	38.9	17.5	2.0	0.7
	여성	(606)	42.9	39.8	15.5	1.7	0.2
연령	20대	(197)	35.0	39.6	22.8	1.5	1.0
	30대	(222)	42.8	43.7	12.2	1.4	0.0
	40대	(258)	37.6	44.2	16.3	1.6	0.4
	50대	(240)	38.8	37.5	20.0	3.3	0.4
	60대 이상	(283)	52.7	32.9	12.7	1.4	0.4
지역 규모	대도시	(550)	38.9	39.6	20.2	1.3	0.0
	중·소도시	(553)	42.7	40.0	13.9	2.7	0.7
	군지역	(97)	54.6	34.0	10.3	0.0	1.0
직업	화이트칼라	(368)	38.6	41.3	18.2	1.9	0.0
	블루칼라	(294)	43.9	39.5	15.0	1.0	0.7
	농/임/어업	(27)	85.2	14.8	0.0	0.0	0.0
	자영업	(158)	38.6	41.8	15.2	3.2	1.3
	주부	(267)	42.7	39.0	16.5	1.9	0.0
	은퇴자	(12)	50.0	33.3	16.7	0.0	0.0
	학생	(38)	28.9	34.2	34.2	0.0	2.6
	무직/기타	(36)	47.2	36.1	11.1	5.6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1)	67.3	28.7	4.0	0.0	0.0
	고졸	(482)	43.2	38.4	16.0	2.1	0.4
	대재 이상	(547)	38.0	40.4	19.0	2.0	0.5
	모름/무응답	(70)	27.1	52.9	18.6	1.4	0.0
가구 소득	저소득	(266)	60.2	32.7	6.0	0.8	0.4
	중소득	(622)	39.4	41.3	16.9	2.1	0.3
	고소득	(312)	31.4	41.0	24.7	2.2	0.6
거주 형태별	자가	(826)	37.8	40.8	19.0	2.1	0.4
	전세	(280)	46.1	39.6	12.5	1.1	0.7
	월세	(94)	66.0	25.5	6.4	2.1	0.0

4) 도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 도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도난보험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입 권유를 받은 적 없다’(13.8%), ‘보험료가 비싸다’(13.2%) 등의 순임.

〈그림 IV-75〉 도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N=1,200 / 단위: %)



부록 : 설문지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매년 보험연구원이 소비자의 금융/보험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 추세는 보험회사들의 상품 설계, 마케팅 정책 등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이 예상됩니다.

본 조사 자료는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주소	※ 응답자 주소의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면접 일시	____월 ____일					
면접원 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SQ1.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SQ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		
SQ4. 결혼여부	① 기혼 ② 미혼		
SQ5. 가구주 여부	○○님께서 현재 ○○님 가구의 가구주이십니까? ① 예(가구주) ② 아니오(가구원)		
SQ3. 성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본인 성별을 가구주 란에도 기재해 주세요. <table border="1"> <tr> <td>본인 (만____세)</td> <td>가구주 (만____세)</td> </tr> </table>	본인 (만____세)	가구주 (만____세)
본인 (만____세)	가구주 (만____세)		
SQ6. 연령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본인 연령을 가구주 란에도 기재해 주세요. <table border="1"> <tr> <td>① 남자(본인) ② 여자(본인)</td> <td>① 남자(가구주) ② 여자(가구주)</td> </tr> </table>	① 남자(본인) ② 여자(본인)	① 남자(가구주) ② 여자(가구주)
① 남자(본인) ② 여자(본인)	① 남자(가구주) ② 여자(가구주)		
SQ7. 가족 구성원	○○님 가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인 가구 ② 다인 가구 → 총 가족 수: (____명) / 자녀 수: (총 ____명=아들 ____명+딸 ____명)		
SQ8. 응답자 직업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직 ⑦ 농/임/어업 ⑧ 자영업자 ⑨ 주부 ⑩ 은퇴자(정년퇴직) ⑪ 학생 ⑫ 무직/기타 ⑬ 모름/무응답		
SQ9. 가구주 직업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SQ8 응답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직 ⑦ 농/임/어업 ⑧ 자영업자 ⑨ 주부 ⑩ 은퇴자(정년퇴직) ⑪ 학생 ⑫ 무직/기타 ⑬ 모름/무응답		

♠ 생명보험 가입실태 ♠

문1. 본인을 포함하여 ○○님 댁(가구)에서는 현재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2번으로](#)

② 없다 [문8번으로](#)

문2. (문1에서 ①번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하여 ○○님 댁(가구)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 상품별 가입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2-1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3	재해(상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4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5	사망 보험	종신보험(치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정기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9	변액 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변액 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유니버설 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변액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문3.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댁(가구)에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음 항목(위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보험 상품 종류			건수	금액
3-1	실손의료보험	입원	()건	()원
		외래	()건	()원
		약	()건	()원
3-2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건	()원
3-3	일반질병		()건	()원
3-4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건	()원
3-5	재해(상해)		()건	()원
3-6	치매		()건	()원
3-7	사망		()건	()원
3-8	저축(개인연금, 변액연금 등 포함)		()건	()원
3-9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건	()원
3-10	재산손실		()건	()원
3-11	자녀(15세 미만)에 대한 보장		()건	()원
3-12	기타		()건	()원
3-13	지급받은 경험 없음 문4번으로		☐	

문4. ○○님(본인)께서는 현재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5번으로

② 없다  문8번으로

문5. (문4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1)	가입 이유 (보기2)
5-1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3	재해(상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4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5	사망 보험	종신보험(치명적 질병보험(Ⅱ),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정기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9	변액 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변액 유니버설	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변액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보기1)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보기2) 가입 이유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④ 노후자금 마련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⑦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6. ○○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3~2015년)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 회사(보기3)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9번으로 가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회사 (보기3)	가입 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6-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6-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6-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⑤
6-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6-5	사망 보험	종신보험(지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정기보험		①	②	③	④	⑤
6-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⑤
6-7	연금보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⑤
6-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6-9	변액 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⑤
		변액	연금	①	②	③	④	⑤
		유니버설	종신	①	②	③	④	⑤
		변액종신		①	②	③	④	⑤

(보기3) 보험 회사

- ①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② 삼성생명 ③ 교보생명
 ④ 흥국생명 ⑤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⑥ 신한생명 ⑦ 동부생명
 ⑧ 동양생명 ⑨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G생명) ⑩ KDB생명 ⑪ 미래에셋생명
 ⑫ 하나생명(구 하나HSBC) ⑬ ING생명 KB생명 ⑮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⑯ IBK연금보험 ⑰ NH농협생명
 ⑱ 알리안츠생명 ⑲ 메트라이프생명 ⑳ PCA생명 ㉑ ACE생명(구 뉴욕생명)
 ㉒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구 카디프생명, 구 SH&C생명) ㉓ AIA생명(구 AIG생명)
 ㉔ 라이나생명 ㉕ 푸르덴셜생명
 ㉖ 우체국 ㉗ 새마을금고 등 기타공제
 ㉘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7.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
(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7-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3	문3-1~문 3-12에서 지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문8. ○○님(본인)께서는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 시(보험가입의향 ③, ④번 응답자)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보험 상품별로 가입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 선호이유(보기5)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의향				선호 가입경로 (보기4)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이유 1	이유 2
8-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8-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8-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8-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8-5	사망 보험	종신보험(치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①	②	③	④			
		정기보험	①	②	③	④			
8-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8-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8-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8-9	변액 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변액	①	②	③	④			
		유니버설	①	②	③	④			
		변액종신	①	②	③	④			

♠ 손해보험 가입실태 ♠

문10. ○○님 본인을 포함하여 ○○님 댁(가구)에서는 현재 가입한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11번으로 ② 없다 문17번으로

문11. (문10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댁(가구)에서 가입한 손해 보험 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11-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4	기타 (직접기재 :)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문12.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댁(가구)에서 가입하신 손해보험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음 항목(위험)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보험 상품 종류			건수	금액
12-1	실손의료보험	입원	()건	()원
		외래	()건	()원
		약	()건	()원
12-2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건	()원
12-3	일반질병		()건	()원
12-4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건	()원
12-5	재해(상해)		()건	()원
12-6	치매		()건	()원
12-7	사망		()건	()원
12-8	저축(개인연금 등 포함)		()건	()원
12-9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u>교통사고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경우도 포함</u>		()건	()원
12-10	재산손실		()건	()원
12-11	자녀(15세 미만)에 대한 보장		()건	()원
12-12	기타		()건	()원
12-13	지급받은 경험 없음 문13번으로		□	

문13. ○○님(본인)께서는 현재 가입한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14번으로 ② 없다  문17번으로

문14. (문13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보험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1)	가입 이유 (보기2)
14-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애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4	기타(직접기재 :)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보기1) 가입 경로

- | | |
|----------------------------------|---------------|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 ⑨ 기타(직접기재 :) | |

(보기2) 가입 이유

- | | |
|----------------------------------|-----------------------|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
|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 ④ 노후자금 마련 |
|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
| ⑦ 기타(직접기재 :) | |

문15. ○○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3년~2015년) 가입하신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6)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16번으로 가세요

보험상품종류			가입 회사 (보기6)	가입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5-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15-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상해(운전자보험, 장애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②	③	④	⑤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15-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15-4	기타(직접 기재 : _____)			①	②	③	④	⑤

(보기6) 보험 회사

- ① 삼성화재 ② 현대해상(현대하이카다이렉트 포함) ③ KB손해보험(구LIG손해보험)
④ 동부화재
⑤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⑥ 한화손해보험 ⑦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⑧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⑨ 흥국화재(구 흥국쌍용화재)
⑩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AHA손해보험) ⑪ 에이스(ACE)화재
⑫ NH농협손해보험
⑬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⑭ 더케이손해보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⑮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⑯ 우체국 ⑰ 기타공제
⑱ 기타(직접 기재 : _____)

문16.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6-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3	문12-1 ~ 문 12-12에서 지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문17. ○○님(본인)께서는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시(보험가입의향 ③, ④번 응답자)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와 선호이유(보기5)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의향				선호 가입경로 (보기4)	선호 이유 (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이유 1	이유 2
17-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②	③	④			
17-2	장기 손해 보험 (3 년 이 상)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②	③	④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①	②	③	④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어린이보장보험 (15세 미만)	①	②	③	④			
17-3	상해보험 (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②	③	④			
17-4	기타(직접 기재 : _____)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보기5)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18. ○○님(본인)께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③ 가격 경쟁력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⑥ 과거 거래경험
 ⑦ 회사 규모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⑪ 기타(직접기재 : _____)

♠ 실손의료보험 ♠

문19. 현재, 오오님의 건강상태는 또래 연령층과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문20. 오오님(본인)께서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종류는 아래 중 무엇입니까?

- ① 직장 건강보험 ② 지역 건강보험 ③ 의료급여
④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⑤ 국가유공자 특례 ⑥ 미가입

문21. 오오님(본인)께서는 현재 개인 혹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가?

*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

- ① 있다(개인 실손의료보험) 문 24번으로
② 있다(단체 실손의료보험) 문 24번으로
③ 없다 문 22번으로

문22. (문21에서 ③번 응답자만) 오오님께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①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②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③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 ④ 가입을 거절당해서
⑤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
⑥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23. (문21에서 ③번 응답자만) 그럼, 오오님께서는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 35번으로
② 없다 문 35번으로

문24. 오오님(본인)께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_ _ _ _ 년)

문25. 오오님께서는 과거에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문 26번으로 ② 없다 문 27번으로

문26. 오오님께서는 과거에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응답 가능)

- ① 의료이용이 적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②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③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④ 갱신기간을 놓쳐서
⑤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27.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유형과 회사의 종류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27-1	실손 의료 보험 유형	① 단독형* ② 특약형** * 단독형 : 다른 보장내역 없이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되어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 **특약형 : 사망 및 후유장애를 주계약으로 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27-2	보험 회사 종류	① 생명보험사(농협 포함) ② 손해보험사 ③ 우체국 및 기타 공제

문28.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갱신 주기*는 무엇입니까?

* 갱신 주기 : 보험료가 변동되는 일정 주기를 말함

-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비갱신형

문29.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몇 %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본인이 직접 지불한 의료비의 몇 %를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으셨습니까)?

* 본인 부담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의료비로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납입한 금액

- ① 100%(전액보상) ② 90% ③ 80% ④ 기타(%) ⑤ 모름

문30.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다음 항목에 대해 선호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A	A를 매우 선호	A를 선호 하는 편	A와 B 둘 다 상관 없음	B를 선호 하는 편	B를 매우 선호	B
30-1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지만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는 크지 않은 상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가 큰 상품을 선호한다.
30-2	현재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향후 보험료 변동 가능성이 있는 갱신형 상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향후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호한다.

※ 문31 ~ 문31-2 대한 응답은 아래 표의 해당 열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31. 아래 표에 제시된 질병 중 발병 경험이 있거나 발병이 걱정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1-1. **(문31 응답자만)** 선택한 질병 중 발병이 가장 걱정되는 순서대로 숫자를 적어주세요.

문31-2. **○○님(본인)**께서 아래 표에 제시된 질병 중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질병에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번호	질병 항목	문31. 걱정되는 질병	문31-1. 걱정 질병 우선순위	문31-2. 실손보험 보장경험
1	암	☐		
2	소화기계통 질환(위, 장, 간 등)	☐		
3	순환계통 질환	☐		
4	내분비 및 대사질환(당뇨, 갑상선 등)	☐		
5	정신 및 행동장애(치매, 우울증 등)	☐		
6	신경계통 질환(뇌졸중, 파킨슨병 등)	☐		
7	호흡계통 질환(천식, 기관지염 등)	☐		
8	비뇨생식계통 질환(궁팔, 요실금, 전립선 비대 등)	☐		
9	정형외과 질환(관절염, 척추 등)	☐		
10	피부질환	☐		
11	임신 및 태아관련 질환	☐		
12	눈 질환	☐		
13	귀 질환	☐		
14	치과질환(치주염, 충치, 보철 등)	☐		
15	한방질환 및 관련 서비스	☐		
16	장기손상, 골절(뇌, 내장 손상, 골절 등)	☐		
17	이미용 목적 치료(치아교정, 양악, 성형 등)	☐		

- 문32.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 (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실손의료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32-1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 절차 등)	①	②	③	④	⑤
32-2 보험료 갱신 시 제공된 안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32-3 청구 절차의 간편함 ☞ 보험금 청구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32-4 신속한 보험금 처리 ☞ 보험금 청구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 문33. ○○님께서는 실손의료보험료로 한 달 평균 얼마를 내십니까?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월 평균 만 원

- 문34. ○○님께서는 지난 1년간 실손의료보험으로부터 얼마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1년간 수령하신 총 보험금을 응답해주십시오.

연 만 원

♠ 건강생활서비스 ♠

문35. 현재, ○○님은 하루에 몇 개비를 흡연하고 계십니까?

- ① 흡연하지 않음 ② 5 개비 이하 ③ 10 개비 이하
④ 20 개비 이하 ⑤ 20 개비 초과

문36. ○○님의 체중은 얼마입니까? (_ _ _ kg)

문37. ○○님의 키는 어느 정도 입니까? (_ _ _ cm)

문38-1. ○○님께서는 1주일을 기준으로 직업적 신체활동 제외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① 운동을 하지 않음 ② 1주일에 1회 ③ 1주일에 2~3회
④ 1주일에 4~5회 ⑤ 매일 운동

문38-2. (문38-1에서 ②~⑤번을 응답한 경우만)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1회당 평균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_ 시간)

문39. ○○님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많이 받고 있다
② 어느 정도 받고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받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문40. ○○님은 건강을 위해 평소 드시는 식단의 조미료, 영양분, 섭취량 등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리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문41. ○○님은 식단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① 강좌, 전문가의 도움 등을 이용한다
②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자율학습을 기초로 한다
③ 상식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다
④ 식탁에서 음식종류를 가리는 방법으로 한다
⑤ 하지 않는다

문42. 현재, ○○님은 1주일에 어느 정도 음주를 하고 계십니까?

- ① 마시지 않음 ② 소주 1/2병 혹은 맥주 1병 ③ 소주 1병 혹은 맥주 2병
④ 소주 2병 혹은 맥주 5병 ⑤ 소주 2병 혹은 맥주 5병 초과

문43. ○○님은 지난 한 해 동안 건강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비용과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을 아래 보기를 보시고 답하여 주십시오. 없다면, ‘자율적 참여’로 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프로그램	있다	없다	프로그램 제공기관	비용
1	금연	☐	☐		(_____ 원)
2	비만관리	☐	☐		(_____ 원)
3	신체활동(체육, 헬스클럽)	☐	☐		(_____ 원)
4	스트레스관리	☐	☐		(_____ 원)
5	식단관리	☐	☐		(_____ 원)
6	금주	☐	☐		(_____ 원)

(보기1) 프로그램 제공기관

- ① 보건소 ②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기관 ④ 민간기관 ⑤ 자율적 참여

문44. (문43의 ‘있다’ 응답 프로그램만) ○○님께서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계획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기대이상의 매우 높은 달성	기대 이상의 달성	기대 수준의 달성	기대 이하의 달성	기대이하의 매우 낮은 달성
1	금연	☐	☐	☐	☐	☐
2	비만관리	☐	☐	☐	☐	☐
3	신체활동(체육, 헬스클럽)	☐	☐	☐	☐	☐
4	스트레스관리	☐	☐	☐	☐	☐
5	식단관리	☐	☐	☐	☐	☐
6	금주	☐	☐	☐	☐	☐

문45. ○○○님은 향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번호	프로그램	매우 강함	강함	보통	약함	없음
1	금연	☐	☐	☐	☐	☐
2	비만관리	☐	☐	☐	☐	☐
3	신체활동(체육, 헬스클럽)	☐	☐	☐	☐	☐
4	스트레스관리	☐	☐	☐	☐	☐
5	식단관리	☐	☐	☐	☐	☐
6	금주	☐	☐	☐	☐	☐

문45-1. ○○○님은 향후 상담, 전화, 인터넷, 문자, 서적 등을 통한 생활습관개선 지원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강함 ② 강함 ③ 보통 ④ 약함 ⑤ 없음

문45-2. ○○○님은 향후 다음 중 무엇을 위해 상담, 전화, 인터넷, 문자, 서적 등을 통한 생활습관개선 지원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4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3순위()/4순위()

- ① 금연 ② 비만관리 ③ 신체활동 ④ 스트레스관리
⑤식단관리 ⑥금주

♠ 인터넷 채널 이용 실태 ♠

문46. ○○님께서는 인터넷에서 보험료나 보험상품 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문46-1번으로**

② 아니오  **문47번으로**

문46-1. (문46에서 ①번 응답자만) 인터넷으로 보험상품 정보를 탐색할 때 이용한 사이트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보험회사 홈페이지

② 검색포털 사이트

③ 금융상품 정보 공유 커뮤니티

④ 다른 사람 블로그

⑤ 보험다모아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

⑥ 언론사 홈페이지

⑦ 기타 (직접기재 : _____)

문47. ○○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47-1번으로**

② 없다  **문47-2번으로**

문47-1. (문47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께서는 기존 상품을 해약하고 보장내역이 비슷한 상품을 다시 가입하셨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47-2. (문47에서 ②번 응답자만) 인터넷 채널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안 신뢰성이 걱정되서

②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③ 보험 가입의향이 없어서

④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아서

⑤ 인터넷 가입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복잡해서

⑥ 설계사나 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에 익숙해서

⑦ 기타 (직접기재 : _____)

문48. ○○님께서는 향후 1년 이내에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면 인터넷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9. 인터넷을 통한 보험 상품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보험료(가격)

② 상품약관

③ 보장내역

④ 해약환급금

⑤ 보장기간

⑥ 다른 소비자들의 리뷰

⑦ 기타 (직접기재 : _____)

문50. ○○님께서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직접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동차보험료나 보장내역 등을 검색해야 합니다. 이같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기존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는 자동차보험보다 최소한 몇 % 정도 저렴하면 인터넷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을 고려하시겠습니까?

- | | | |
|---------------|---------------|---------------|
| ① 10%미만 | ② 10%이상~15%미만 | ③ 15%이상~20%미만 |
| ④ 20%이상~25%미만 | ⑤ 25%이상~30%미만 | ⑥ 30%이상 |

♠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

문51. ○○님께서서는 노후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문51-1번으로 ② 하고 있지 않다 문53번으로

문51-1. (문51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께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② 퇴직연금·퇴직금 ③ 연금저축(은행, 증권, 보험)
 ④ 보험(연금저축 제외) ⑤ 은행 예금 ⑥ 주식 및 채권
 ⑦ 일반 펀드(연금펀드를 제외) ⑧ 부동산 ⑨ 근로활동
 ⑩ 기타(직접기재 :)

문51-2. (문51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께서 예상하는 노후 소득 중 가장 큰 수입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② 퇴직연금·퇴직금 ③ 연금저축(은행, 증권, 보험)
 ④ 보험(연금저축 제외) ⑤ 은행 예금 ⑥ 주식 및 채권
 ⑦ 일반 펀드(연금펀드를 제외) ⑧ 부동산 ⑨ 주택연금
 ⑩ 근로활동 ⑪ 기타(직접기재 :)

문52. (문51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혹은 준비한) 노후자금이 자신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충분하다 ② 불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52-1. (문52에서 ① 또는 ②라고 응답한 경우만) ○○님께서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너무 낮아서
 ②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③ 노후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젊어서
 ④ 부채상환을 위해서
 ⑤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⑥ 사업실패,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투자 실패로 자금이 부족해서
 ⑦ 소비지출 관리에 실패해서
 ⑧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⑨ 기타 ()

문53. ○○님께서서는 향후 본인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절대 없다

문54. ○○님께서서는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절대 없다

문55. ○○님께서서는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56. 본인을 포함한 ○○님 맥(가구)에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연금 보험 상품별 가입 여부와 보험료, 가입 금융회사를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 가입하신 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입자만 응답)를 보기 중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납입 보험료 (월)	가입 금융회사 (보기1)	상품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56-1 국민연금	①가입 ②비가입	만 원		①	②	③	④	⑤
56-2 기타공적연금(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	①가입 ②비가입	만 원		①	②	③	④	⑤
56-3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보험회사, 은행, 투신, 농협 등)	①가입 ②비가입	만 원		①	②	③	④	⑤
56-4 직장의 퇴직연금	①가입 ②비가입	만 원		①	②	③	④	⑤

(보기1) 가입 금융회사

- ① 은행 ②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 ③ 손해보험회사
④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⑥ 기타(직접기재: _____)

문57. (문56-4에서 ①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귀하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형태는 어떤 것이지요?

- ① DB형 ② DC형 ③ 기업형 퇴직연금 ④개인형 퇴직연금(IRP)

□ 용어 설명 □

- 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개선하여 지급 보장성을 높이고,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자신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가 적립 되는 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업주'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 매년 한달치 급여수준이 적립되고 '근로자 자신'이 직접 혹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이 퇴직 연금 용도로 근로복지관리공단 등에 가입하는 '기업형',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포함)을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에 적립 및 운용하는 '퇴직형'과, 개인이 여유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 '적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적립형)와 함께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문58~문59은 개인연금 가입 및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개인연금은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수협 등에 가입한 모든 형태의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펀드·연금신탁, 연금보험(변액연금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문58. (문56-3에서 가입여부에 ②라고 응답한 경우만) ○○님께서 개인연금을 가입하시지 못한(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 ②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③ 개인연금보다 다른 자산 가입(보유)이 더 우수해서
- ④ 세제지원이 부족해서
- ⑤ 현 시점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 ⑥ 기타 (직접 기재 : _____)

문59. (문56-3에서 가입여부에 ① 그리고 상품 만족도에서 ① 또는 ②(불만족한) 응답한 경우만) 개인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예상 연금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 ② 가입 금융회사의 부실화 우려 때문에
- ③ 수익률이 낮아서
- ④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 ⑤ 가입 금융회사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⑥ 계약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편의성 부족 때문에
- ⑦ 세제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⑧ 기타 (직접기재 : _____)

문60. ○○님께서서는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한 적은 있으신지요?

- ① 수급하고 있다
- ② 수급한 적 있으나 지급은 종료되었다(일시금 포함)
- ③ 수급한 적 없다

문60-1 (문60에서 ① 또는 ②라고 응답한 경우) ○○님께서 수급한 개인연금 계좌는 몇 개입니까? 총 수급액은 얼마인지요?

총 계좌 수

개

총 수급액

만 원

♠ 연금과세 체계 인지도 ♠

문61. ○○님께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금 불입금의 12%(연간 400만 원 한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5%)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문62. ○○님께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액의 3~5%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문63. ○○님께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중도해지 하거나 만기 후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운용수익과 원금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문64. ○○님께서는 질병, 파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수령액의 3~5% 세율로 과세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문65. ○○님께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부터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공적연금 등 여타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문66. ○○님께서는 사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 (1,200만 원)에서 사업자가 납입해 준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등 ♠

문67. 현재 ○○님께서 살고계신 집의 거주형태와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가의 경우, 거래시가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 ① 자가 (_____ 만 원)
- ② 전세 (보증금 : _____ 만 원)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 _____ 만 원/ 월세 : _____ 만 원)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 : _____ 만 원)

문68. ○○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8번으로](#)
- ② 없다  [문9번으로](#)

문69. ○○님께서는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70.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만 60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한 뒤 사망 후에 보유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주택연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현재 혹은 향후에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현재 가입하고 있음.  [문72번으로](#)
- ②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문72번으로](#)
- ③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  [문71번으로](#)

(참고: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만 원)

주택가격 연령	1억 원	3억 원	5억 원
60세	23	68	114
70세	33	99	164
80세	51	152	253

문71. (문70에서 ③번 응답자만) 주택연금에 이용하실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준비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②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 ③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④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 ⑤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 ⑥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 ⑦ 기타 ()

문72. ○○님 택(가구)에서 현재 보유하신 금융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유하신 금융상품과 납입금액을 말씀해주세요.

※ 같은 종목의 보험이 2개 이상인 경우, 월 납입액은 합산으로 말씀해주세요.

금융상품		보유 여부	납입금액
11-1	은행 예 · 적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11-2	연금저축(은행) / 연금펀드(증권)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11-3	저축보험/연금보험(보험회사)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11-4	보장성보험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11-5	채권 및 채권형 펀드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11-6	주식 및 주식형 펀드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11-7	부동산 임대소득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11-8	기타()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 자영업자 노후준비 ♠

※ (SQ8에서 ⑧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경우만) 문55~문60은 자영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3. ○○님께서 자영업자인 경우 어떤 형태의 자영업입니까?

- ①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②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
③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종사자가 있는 자영업

※ 무급가족종사자란 가족구성원으로 특별한 보수없이 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다른 직원처럼 정상적인 보수를 받는 가족구성원이 있다면 이는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문74. 현재 자영업으로 일하신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년 ()개월

※ 자영업 종류를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에 종사한 전체 기간을 적어 주세요.

문75. ○○님께서는 과거 임금 근로자로 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75-1번으로 ② 없다 📞 문76번으로

※ 과거 일정시점에서 자영업과 임금 근로를 동시에 겸한 경우는 주업으로 한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자영업도 한 경우 본인이 생계를 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자영업이었다면, 임금 근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문75-1. 임금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었다면 얼마나 하셨는지요?

()년 ()개월

문75-2. 지금의 자영업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시작하신 것인가요?

- ① 그렇다 📞 문75-3번으로 ② 아니다 📞 문76번으로

문75-3 (문75-2에서 ①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몇 세 때 시작하신 것인가요?

()세

※ 문76~문76-1은 개인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6. ○○씨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가입할 의향이 있다  문77번으로
- ② 가입할 의향이 없다  문76-1번으로

문76-1. ○○님께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다른 투자나 저축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수익률이 낮아서)
- ③ 인플레이션에 약하기 때문에
- ④ 가입 금융회사가 불만족스러워(비싼 수수료 등)
- ⑤ 가입기간이 너무 길어서
- ⑥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 문77~문78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여유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 ‘적립형’을 의미합니다. 개인형 퇴직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적립형)와 함께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문77.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님께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77-1. 기존의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① 가입할 의향이 있다 문78번으로
② 가입할 의향이 없다 문77-2번으로

문77-2.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다른 투자나 저축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수익률이 낮아서)
- ③ 인플레이션에 약하기 때문에
- ④ 가입 금융회사가 불만족스러워(비싼 수수료 등)
- ⑤ 가입기간이 너무 길어서
- ⑥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

문78. ○○님께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세제혜택을 많이 부여되고, 운용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
- ② 가입이 편리해야 한다
- ③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투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일부 중도인출하거나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 ⑥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 ⑦ 기타 ()

♠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

※ 문79 ~ 문86 화재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문79. ○○님께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0. ○○님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화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81. ○○님께서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으로 번질 경우 이웃에 발생한 피해까지 ○○님께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2. ○○님께서는 실수로 화재(예: 전열기 과열 사고 등)가 발생했더라도 화재 사고의 경우 화재 시 건축물 점유자가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3. ○○님께서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호 당 보상 한도가 1억 원 정도로 손해액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화재 시 건축물 점유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4. ○○님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가 최대 얼마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억 이하 ② 1~3억 원 ③ 3~5억 원
- ④ 5~10억 원 ⑤ 10억 원 이상

문85. (문79에서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님께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재보험 보험료는 보통 월 수 천 원(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복수응답)

- ①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
- ②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 ③ 보험료가 비싸다
- ④ 보험 가입 방법을 모르겠다

문86. ○○님께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문87 ~ 문91 도난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문87. ○○님께서 도난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문88. ○○님께서 귀하의 주택에 도난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89. (도난보험) 귀하의 주택에서 도난이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1천만 원 이하 ② 1천만~3천만 원 ③ 3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 원 이상

문90. (문87에서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님께서 도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
②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③ 보험료가 비싸다
④ 보험 가입 방법을 모르겠다

문91. ○○님께서 도난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DQ1. (SQ8 및 SQ9에서 ①~⑧번 응답자만) ○○님이 또는 가구주가 소속된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본인 : () / 세대주 : ()

- | | | |
|--------------|--------------|------------|
| ① 10인 미만 | ② 10 ~ 29인 | ③ 30 ~ 99인 |
| ④ 100 ~ 299인 | ⑤ 300 ~ 499인 | ⑥ 500인 이상 |

DQ2. (SQ8 및 SQ9에서 ⑧번 응답자만) ○○님이 또는 가구주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본인 : () / 세대주 : ()

- | | | |
|---------------------|-------------------------|-------------|
| ① 제조업 | ② 도매 및 소매업 | ③ 운수업 |
| ④ 숙박 및 음식점업 | ⑤ 금융 및 보험업 | ⑥ 부동산 및 임대업 |
| ⑦ 교육 서비스업 | ⑧ 개인 서비스업(세탁소, 이·미용실 등) | |
| ⑨ 기타() | | |

DQ3. 실례하지만, ○○님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을 동일하게 작성

DQ3-1. 본인의 학력	DQ3-2. 세대주의 학력
① 중졸 이하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③ 대졸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무응답	⑤ 모름/무응답

DQ4. ○○님의 개인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	--	--	--	--

 만 원

DQ5. 귀하의 소득을 포함한 ○○님 택(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	--	--	--	--

 만 원

DQ5-1. ○○님 택(가구)의 연간 총수입 가운데 얼마 정도를 저축 또는 투자 (납입보험료 포함)하고 계십니까?

총 수입의

--	--

 %

DQ6.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님 택(가구)의 한 달 납입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월

--	--	--

 만 원

DQ7. ○○님 택(가구)에 최근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 여기에서 가구는 동일 거처에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단위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인 이상 ⑥ 없음

DQ8. ○○님 택(가구)의 가구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와 자녀
④ 한부모와 자녀(이혼이나 사별로 한 쪽 부모만 함께 사는 경우)
⑤ 3세대 가구(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⑥ 4세대 이상
⑦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⑧ 비친족가구
⑨ 기타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
 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점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향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56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조용운

The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wcho@kiri.or.kr)

정원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류건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강성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이상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mail : swlee@kiri.or.kr)

최창희

Iowa State University
경영과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cchoi@kiri.or.kr)

박선영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young1002@kiri.or.kr)

정성희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hchung71@kiri.or.kr)

오승연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h@kiri.or.kr)

최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inowon@kiri.or.kr)

조사보고서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46-6 94320

979-11-85691-02-2 (세트)

정가 10,000원